

2016년도

**문화재위원회(국재문화재분과) 제2차 회의자료**

- 일 시 : 2016. 3. 22.(화) 14:0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 윤인석(위원장), 신동원, 안창모, 여홍구, 오용섭, 채금석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b>【심의사항】</b>	
1	「간호교과서」 문화재 등록
2	사적 제280호 「서울 한국은행 본관」 현상변경
3	사적 제291호 「창원 진해우체국」 주변 현상변경
4	사적 제442호 「구 대구의학전문학교 본관」 및 사적 제443호 「구 도립 대구병원」 주변 현상변경
5	등록문화재 제83호 「창경궁 대운실」 현상변경
6	등록문화재 제180호 「익산 중앙동 구 삼산의원」 등록 말소
<b>【검토사항】</b>	
7	사적 제318호 「익산 나바위성당」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8	등록문화재 제52호 「구 서울특별시 청사」 등록범위 조정
9	「고흥 소록도 병사성당」 문화재 등록
10	「고흥 소록도 마리안느와 마가렛 사택」 문화재 등록
11	「남대문로 2층 한옥 상가」 문화재 등록
12	「김천 나화랑 생가」 문화재 등록
13	「백용성 역 『조선글화엄경』」 문화재 등록
14	「백용성 역 『조선어능엄경(朝鮮語楞嚴經)』」 문화재 등록
15	「백용성 역 『상역과해금강경』」 문화재 등록
16	「서울 흥천사 감로도」 문화재 등록
17	「이회영 복식」 문화재 등록
18	「의병장 유인석 심의」 문화재 등록
<b>【보고사항】</b>	
19	「근현대문화유산 동산분야 문화재 등록 추진 계획」 보고

## 1. 「간호교과서」 문화재 등록

### 가. 제안사항

- 「간호교과서」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위원회 등록 검토('16.01.26)를 거쳐 **등록예고('16.02.11~'16.03.11)**된 「간호교과서」에 대하여 **문화재 등록 여부**를 심의하기 위함

# 심 의 사 항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문화재청
- (2) 대상문화재

유물명	수량	규격	제작년대	재질	판종	소유자	소재지	비고
간호교과서	2권 (상, 하)	상권(세로 22.0 ×가로 15.8), 하권(세로 22.6 ×가로 14.8)(cm)	상권(1908년), 하권(1910년)	양지	신연활자본	장로회 신학대 학교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 장로 5길 25-1	

#### (3) 추진 경과

- '간호교과서(상권)에 대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동은의학박물관 등록 신청 (2015. 4. 8)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동은의학박물관' 소장 '간호교과서(상권)'에 대한 관계 전문가 현지조사(2015. 6. 12)
- 문화재위원회 제7차 검토사항 부의(2015.9.22) 후 결과 : 보류(사유 : 우리나라 최초의 간호교과서로 알려졌으나, 상권으로만 가치 판단하기보다는 하권에 대한 조사와 타기관에 보유 여부 확인 등이 이루어진 후, 상·하권 일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타 기관 보유 여부 확인(장로회신학대학교 상권, 하권 보유)
- '장로회신학대학교' 소장 '간호교과서(상·하권)'에 대한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2015. 11. 3)
- 문화재위원회 등록 검토(2016. 1. 26) - 원안 가결

#### (4) 등록예고

- 예고기간 : '16. 2. 11 ~ '16. 3. 11(30일간)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5) 심의내용 : 문화재 등록 심의

## 라. 검토의견(관계전문가)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5.11.3.)>

- ○ ○ ○ 위원
  - 우리나라의 간호원 양성학교는 1903년 12월에 서울 중구 정동에 있던 보구여관(保救女館)에서 설립되어 있었지만 제대로 된 교재도 없이 수업이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고자 발행한 교과서가 바로 이 책임.
  - 『간호교과서』 상·하 두 책은 의학사연구 뿐 아니라 초기 의학용어의 한글번역 연구와 20세기 초기의 국어연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소중한 자료임. 또한 상하 완본의 소장은 매우 희귀하므로 등록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 ○ ○ 위원
  - 조사 대상 유물인 『간호교과서』 상하 2권 2책본은 마가렛 제인 에드먼즈(Margaret Jane Edmunds, 1871~1945)가 출판한 우리나라 최초의 간호교과서임. 20세기 초기의 국어연구는 물론 의학사의 중요한 자료임. 또한 초기 의학용어의 한글번역 연구와 20세기 초기의 국어연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이며 우리나라 최초의 간호교과서라는 점에서 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 ○ ○ 교수
  - 보구여관에 근무하던 선교사 마가렛 제인 에드먼즈(Margaret Edmunds)가 번역·출판한 간호교과서임. 한국 최초인지는 더 파악할 필요가 있지만, 매우 중요한 간호 분야 자료임은 분명함.
  - 비록 번역판이지만 근대적 간호교육 초기에 실제로 사용된 간호교과서로 문화재로 등록할 가치가 있음.

### <근대문화재과 의견>

- 예고 내용대로 등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6명, 원안가결 6명

붙임 : 「간호교과서」 조사보고서 1부.

## 「간호교과서」 조사보고서

1. 명 칭 : 간호교과서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로 5길 25-1 장로회신학대학교
3. 소유자 : 장로회신학대학교
4. 조사자 의견

### <○○○ 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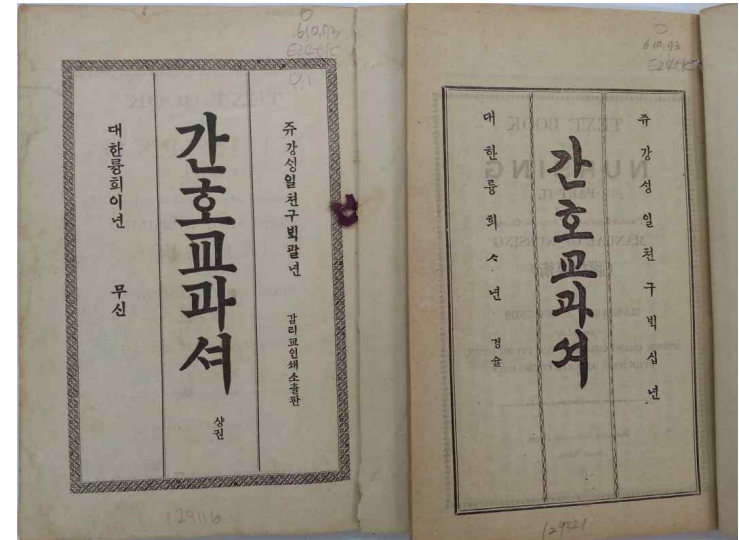
- 1) 현상
  - 양호함
- 2) 내용 및 특징
  - 장로회신학대학교 도서관 소장의 『간호교과서』 상하는 마가렛 제인 에드먼즈(Margaret Jane Edmunds, 1871~1945)가 간행한 우리나라 최초의 간호교과서이다. 상권은 1908년 3월, 하권은 1910년에 서울에 있던 감리교인쇄소(출판사)인 Methodist Publishing House에서 발행되었다.
  - 캐나다 온타리오 출신인 마가렛 제인 에드먼즈는 1894년에 미국 미시건대학교의 간호원양성학교를 졸업한 뒤 오하이오 주 톨레도 시에서 간호원으로 근무하였다. 1900년에 보구여관의 커틀리 의사가 이 지역의 교회를 방문하여 한국에 간호원장이 필요하다는 권유를 하자 이를 받아들였고, 미국 북감리회 여자해외선교부의 간호선교사로 1903년 3월에 서울에 오게 되었다. 그녀는 그해 12월에 보구여관에 간호원양성학교를 설립하고 초대 간호원장으로 활동하였다. 1887년에 설립된 보구여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병원이며, 여성을 돕고 치료한다는 뜻의 보구여관이라는 이름은 고종이 직접 내린 것이라고 한다. 이후 1912년 동대문 릴리안 해리스 기념병원으로 통합되었고, 1913년 진료소 기능마저 폐쇄되었다고 한다.
  - 에드먼즈는 “Nurse”의 한글번역을 우리 고유의 의녀(醫女), 중국의 호병인(護病人)이나 간부(看護), 일본의 간호부(看護婦) 등을 일방적으로 따르지 않고, 중국과 일본에서 공통으로 사용한 “간(看)”과 “호(護)”에다 “여자에 국한되는 ‘부’ 대신 포괄적인 ‘원(員)’을 사용하여 간호원이라는 새 단어를 만들었다.”고 한다. 여기에서 “간”은 “책임지다, 돌보다”, “호”는 “보호하고 인도하다”, “원”은 “구성원”이라는 뜻을 가져, 간호원은 “아픈 사람을 돌보고 보호하는 사람”을 뜻했다. 또 간호복을 만들고, 간호원의 임무도 제정하는 등 1928년 은퇴할 때까지 목포와 군산 등지에서 한국 간호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였다. 그래서 에드먼즈는 우리나라 근대 간호 교육의 역사를 시작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마침 올해 4월 7일 보건의 날을 맞아 정부에서는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을 그녀에게 수여하였다.
  - 우리나라의 간호원양성학교는 1903년 12월에 서울 중구 정동에 있던 보구여관(保救女館)에서 설립되어 있었지만 제대로 된 교재도 없이 수업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고자 발행한 교과서가 바로 이 책이다. 『간호교과서』 상권은 클라라 워스(Clara Weeks)의 『Text book of Nursing: Manual of Nursing』과 이 책의 중국 번역본 『호병요술(護病要術)』(1905년)이 번역대본이 되었다. 이렇게 이 책은 미국의 원서와 중국의 번역서를 바탕으로 국역된 것

이었다. 그런데 한글에 능숙하지 않았던 에드먼즈가 이 책을 번역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한국인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4침선장으로 장책된 상하권 2책은 당시의 다른 책보다는 지질이 고급이어서 보존상태도 좋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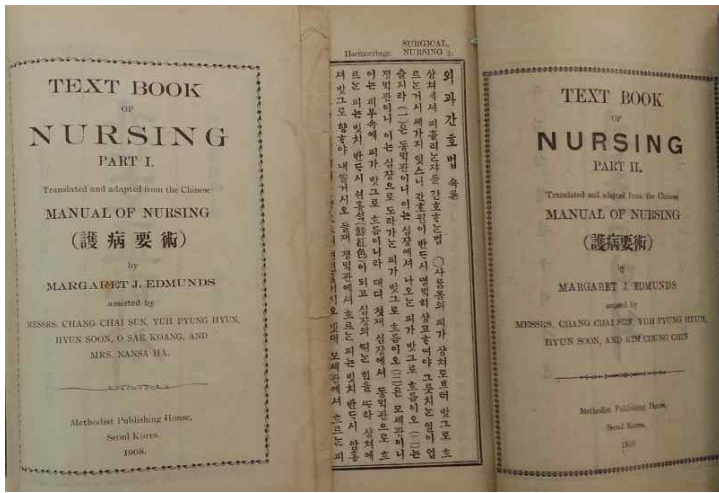
- 상권의 표지에는 『간호교과서』 상권이라는 서명의 오른 쪽에는 “주강생일천구백팔년” 감리교인쇄소출판, 왼쪽에는 대한통회이년」 무신”이라고 되어 있어 이 책이 1908년에 발행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이면에는 『Text book of Nursing』 Part I, Manual of Nursing(護病要術) 등 이 책의 서명 권차, 번역대본이 소개되어 있고, 아래에는 번역자와 조역자의 성명을 밝혀 놓았다. 다음 페이지에는 미국의 시인이자 작가인 휘티어(J. G. Whittier, 1807~1892)가 1892년에 발행한 시집 중에서 젊은 의사에게 주는 종교시(宗教詩) “The Healer(치료자)”중의 일부분이 영문으로 소개되어 있다. 마지막 장(119쪽)에는 “그런고로 사랑함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느님을 본받고...향내 나는 제사를 하느님께 드리셨느니라.”과 같이 에베소서 5장 1-2절을 5행에 걸쳐 수록해 놓았다. 각 면당 사주쌍변으로 된 광곽에 11행25자를 원칙으로 조판되었다. 각 면의 좌우 난외에는 서명, 편명과 함께 우리말 쪽수가 있다.
- 하권의 표지에는 『간호교과서』 라는 서명의 오른 쪽에는 “주강생일천구백십년”, 왼쪽에는 대한통회사년」 경술”이라고 되어 있어 이 책이 1910년에 발행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이면에는 상권의 형식과 같이 『Text book of Nursing』 Part II, Manual of Nursing(護病要術) 등 이 책의 서명 권차, 번역대본이 소개되어 있고, 아래에는 번역자와 조역자의 성명을 밝혀 놓았다. 하권은 상권과는 달리 바로 본문이 시작된다. 본문은 각 면당 사주쌍변으로 된 광곽에 16행39자 전후로 조판되어 있다. 그래서 상권보다는 글자가 작고 전체가 뾰뾰한 느낌이 든다. 상권과 다른 점은 광곽의 상단 여백에 아래 본문에 해당되는 내용의 영문(목차나 용어 등), 곧 「외과간호법 속론」이라는 편명위에는 「SURGICAL NURSING 2」, “순환기의 병”위에는 “Diseases Circulation System” 등을 수록해놓은 점이다. 각 면의 좌우 난외에는 편명과 함께 우리말 쪽수가 있다.
- 에드먼즈는 상권의 서문에서 “번역인 장재선, 검열인 려병현, 하란사, 현순, 오세광”과 같이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의 역할과 성함을 밝혀 놓았다. 곧 장재선(張載善)은 번역, 여병현(呂炳鉉), 하란사(河蘭史), 현순(玄楯), 오세광(吳世光) 등이 검열하였던 것이다. 이 중 장재선은 간호원양성학교에서 산수, 한국어, 붓글씨, 받아쓰기를 가르친 교사였다. 2년 뒤에 간행된 하권 간행의 조역자들의 성명은 영문으로만 소개되어 있는데, 장재선, 여병현, 현순, 김정진(KIM CHUNG CHIN) 등 네 사람이었다. 이렇게 에드먼즈는 이들의 도움을 받아 한글 번역에 충실하고자 하였고, 필요할 때는 스스로 “간간히 긴요한 구절을 증감”도 하였다.
- 이렇게 이 책은 에드먼즈의 단독 번역서는 아니지만 그녀의 주도로 번역, 편찬되고, 또 그녀의 자금으로 출판되었던 것이다. 상권은 “1 총론, 2 신체, 3 근계통, 4 혈액, 5 호흡, 6 폐장, 7 외과 간호법, 8 청결의 긴요함, 9 미균이 병의 근원, 10 미균의 전염, 11 병인 방의 공기, 12 물의 청결법, 13 만져서 전염됨, 14 간호원의 깨끗함, 15 병인의 깨끗함, 16 기명의 소독법, 17 기계의 소독법, 18 오줌 기계의 소독법, 19 스펀지(Sponges), 20 혈맥 잡아매는 실(Sutures), 21 드레싱의 소독법, 22 몽혼방(Operating room), 23 폐독 약물론(Antiseptic Lotion), 24 고약론(Ointments), 25 각색 기름론, 26 드레싱, 27 외과 기계론, 28 모래자

루, 29 험판(Splints), 30 석고대(Plaster of Paris), 31 면호 험판(Starch), 32 가죽 험판(Leather), 33 이불 터는 기계(Cradle), 34 잡아당겨 늘이는 법(Method of Extension), 35 어드히시브 플래스터(Strapping), 36 밴디지(Bandages), 37 인도 고무로 만든 물건들(India-rubber goods), 38 의원의 쓸 것을 예비함, 39 몽혼할 병인을 예비함” 등 39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권은 외과간호법 속론, 병인 간호하는 요법, 내과간호법, 산모간호법, 갓난아이 간호법, 어린 아이의 병 간호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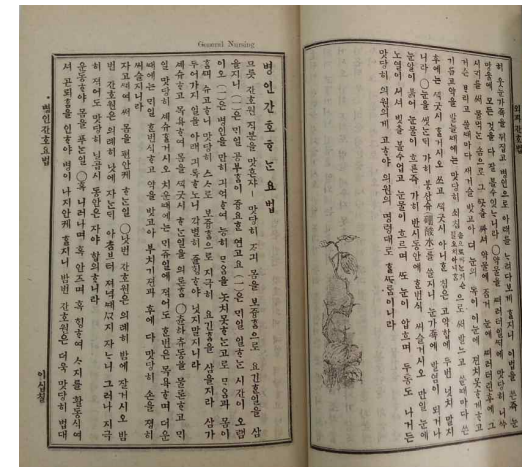
- 상권은 이미 학계에 소개되었지만 하권은 지금까지 학계에 공개되지 않은 탓에 발행여부를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에드먼즈가 상권의 서문에서 다음 권(하권)도 “계속 출간하여 완전한 책을 만들고자 하노라.”고 한 기록도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 이제 등록문화재 조사과정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간호교과서인 상하권 완본을 확인하게 되었다.
- 3)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간호교과서』 상하 두 책은 의학사연구뿐 아니라 초기 의학용어의 한글번역 연구와 20세기 초기의 국어연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다. 또한 상하 완본의 소장은 매우 희귀하므로 등록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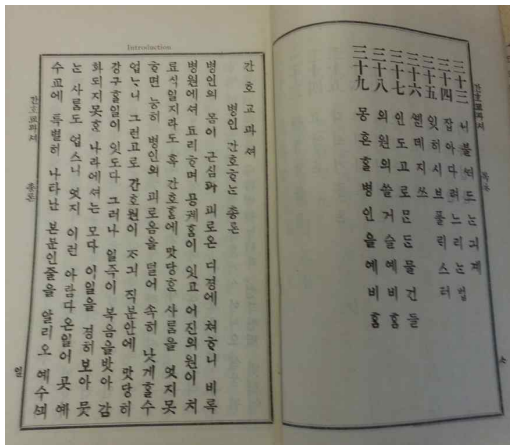




<간호교과서 상권(1908)과 하권(1910)>



<간호교과서 상권(1908)과 하권(1910)>



4) 문헌자료

- 이방원, “보구여관(保救女館)의 설립과 활동”, 『의공학회지』 17권 1호(2008), pp.37-56.
- 이방원, “보구여관 간호원양성소(1903~1933)의 설립과 운영”, 『의사학: 대한의사학회지』 제20권 제2호(2011. 12), pp.355-393.
- 옥성득, “조선개신교 간호와 간호교육의 정체성 - 1903년에 설립된 보구여관 간호원양성학교와 에드먼즈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36호(2012.03), pp.185-225.
- 옥성득, 한국 근대간호 역사여행⑦, “첫 한글 《간호교과서》의 발간, 1908년”, 『간호신문』 (2012-10-30)
- 옥성득, 한국 근대간호 역사여행⑤, “한국 간호교육의 선구자 에드먼즈”, 『간호신문』 (2012-08-28)
- 옥성득, 『한국간호역사자료집: I』 (서울: 대한간호협회, 2011)

5) 기타

- 같은 종단의 목회자가 기증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6) 종합의견

- 등록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음

<○○○ 위원>

1) 현상

- 상하 2권 2책이다. 사주쌍변으로 된 광곽에 11행25자를 원칙으로 조판되었다. 종이는 최고급 양지를 사용하였다. 전체적으로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

2) 내용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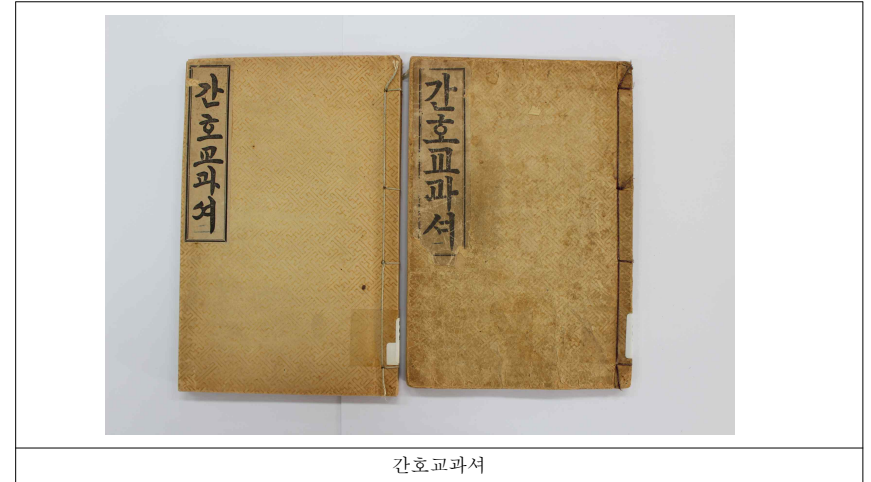
- 조사 유물인 『간호교과서』 상,하권 2책은 마가렛 제인 에드먼즈(Margaret Jane Edmunds, 1871~1945)가 출판한 우리나라 최초의 간호교과서이다. 클라라 워스(Clara Weeks)의 『Text book of Nursing: Manual of Nursing』 과 이 책의 중국 번역본 『호병요술(護病要術)』(1905년)이 번역대본이 되었다.
- 에드먼즈는 책의 서문에서 번역인 장재선, 김열인 러병현, 하란사, 현순, 오세광

과 같이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의 역할과 성함을 밝혀 놓았다. 곧 번역과 검열에 한국인으로 장재선(張載善), 여병현(呂炳鉉), 하란사(河蘭史), 현순(玄楯), 오세광(吳世光) 등이 참여하여 편찬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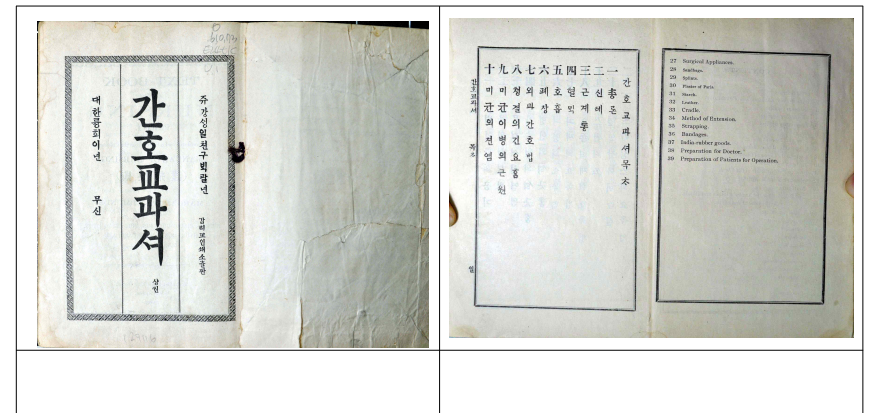
- 책의 형식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침제와 표제지는 『간호교과서』이다. 표제지에는 『간호교과서』 상권이라는 서명의 오른쪽으로는 “주강생일천구 백팔년” 감리교인쇄출판원 쪽으로는 “대한통회이년” 무신”이라고 적어 놓았다. 이를 통하여 이 책이 1908년에 감리교인쇄소에서 발행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각 면의 좌우 난외에는 서명, 편명과 함께 우리말 쪽수를 적었다.
- 표제지의 이면에는 『Text book of Nursing: Part I』 Manual of Nursing(護病要術) 등 이 책의 번역대본, 번역자와 조역자의 성명을 밝혀 놓았다. 다음 페이지에는 미국의 시인이자 작가인 휘티어(John Greenleaf Whittier, 1807~1892)가 1892년에 발행한 시집 중에서 젊은 의사에게 주는 종교시(宗教詩) “The Healer(치료자)”중의 일부분이 영문으로 소개되어 있다. 마지막 장(119쪽)에는 “그런고로 사랑함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느님을 본받고... 향내 나는 제사를 하느님께 드리셨느니라.”과 같이 에베소서 5장 1-2절을 5행에 걸쳐 수록해 놓았다.
- 조사 유물인 『간호교과서』의 전체 내용은 1. 총론, 2. 신체, 3. 근계통, 4. 혈액, 5. 호흡, 6. 폐장, 7. 외과 간호법, 8. 청결의 긴요함, 9. 미균이 병의 근원, 10. 미균의 전염, 11. 병인 방의 공기, 12. 물의 청결법, 13. 만져서 전염됨, 14. 간호원의 깨끗함, 15. 병인의 깨끗함, 16. 기명의 소독법, 17. 기계의 소독법, 18. 오줌 기계의 소독법, 19. 스펀지(Sponges), 20. 혈맥 잡아매는 실(Sutures), 21. 드레싱의 소독법, 22. 몽혼방(Operating room), 23. 폐독 약물론(Antiseptic Lotion), 24. 고약론(Ointments), 25. 각색 기름론, 26. 드레싱, 27. 외과 기계론, 28. 모래자루, 29. 헤파판(Splints), 30. 석고대(Plaster of Paris), 31. 면호 헤파판(Starch), 32. 가죽 헤파판(Leather), 33. 이불 터는 기계(Cradle), 34. 잡아당겨 늘이는 법(Method of Extension), 35. 어드히시브 플라스터(Strapping), 36. 밴디지(Bandages), 37. 인도고무로 만든 물건들(India-rubber goods), 38. 의원의 쓸 것을 예비함, 39. 몽혼할 병인을 예비함 등 39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저자인 마가렛 제인 에드먼즈는 1894년에 미국 미시건대학교의 간호원양성학교를 졸업한 뒤 오하이오 주 톨레도 시에서 간호원으로 근무하였다. 1900년에 보구여관의 키틀러 의사가 이 지역의 교회를 방문하여 한국에 간호원장이 필요하다는 권유를 하자 이를 받아들였고, 미국 북감리회 여자해외선교부의 간호선교사로 1903년 3월에 서울에 오게 되었다. 그녀는 그해 12월에 보구여관에 간호원양성학교를 설립하고 초대 간호원장으로 활동하였다. 1887년에 설립된 보구여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병원이며, 여성을 돕고 치료한다는 뜻의 보구여관이라는 이름은 고종이 직접 내린 것이라고 한다. 이후 1912년 동대문 릴리안 해리스 기념병원으로 통합되었고, 1913년 진료소 기능마저 폐쇄되었다고 한다.
- 에드먼즈는 “Nurse”의 한글번역을 우리 고유의 의녀(醫女), 중국의 호병인(護病人)이나 간부(看護婦), 일본의 간호부(看護婦) 등을 일방적으로 따르지 않고, 중국과 일본에서 공통으로 사용한 “간(看)”과 “호(護)”에다 “여자에 국한되는 ‘부’ 대신 포괄적인 ‘원(員)’을 사용하여 간호원이라는 새 단어를 만들었다.”고 한다. 여기에서 “간”은 “책임지다, 돌보다”, “호”는 “보호하고 인도하다”, “원”은 “구성원”이라는 뜻을 가져, 간호원은 “아픈 사람을 돌보고 보호하는 사람”을 뜻했다. 또 간호복을 만들고, 간호원의 임무도 제정하는 등 1928년 은퇴할 때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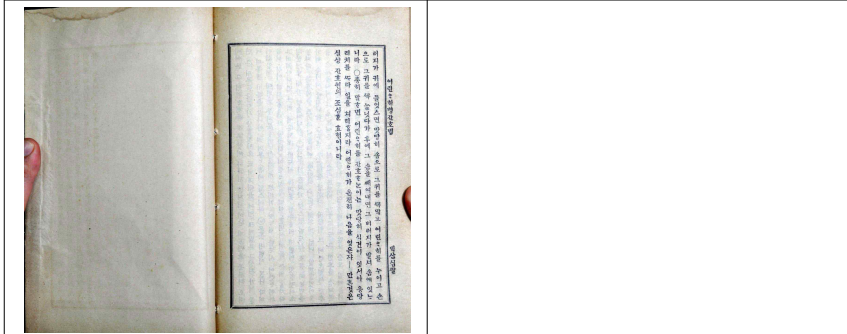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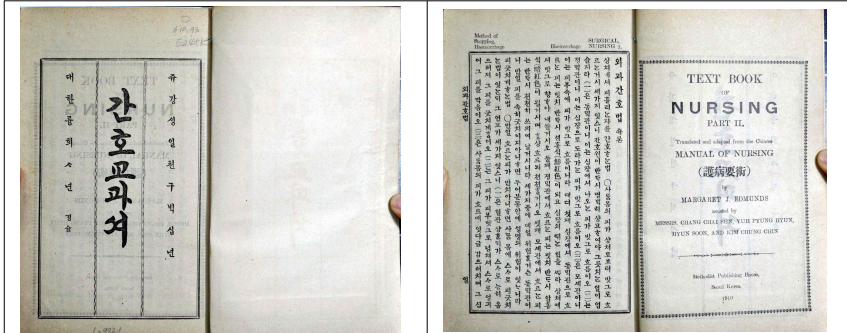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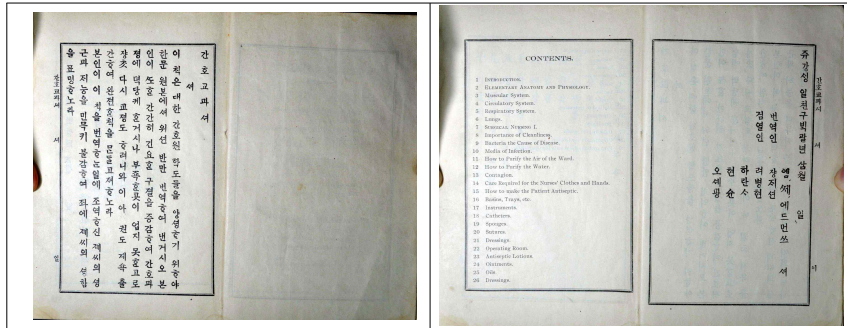
목포와 군산 등지에서 한국 간호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였다. 그래서 에드먼즈는 우리나라 근대 간호 교육의 역사를 시작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마침 올해 4월 7일 보건의 날을 맞아 정부에서는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을 그녀에게 수여하였다.

- 조사 대상 유물인 『간호교과서』는 초기 의학용어의 한글번역 연구와 20세기 초기의 국어연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이다. 더욱이 우리나라 최초의 간호교과서라는 점에서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간호교과서





- 옥성득, 한국 근대간호 역사여행⑤, “한국 간호교육의 선구자 에드먼즈”, 『간호신문』 (2012-08-28)
- 옥성득, 『한국간호역사자료집: I』 (서울: 대한간호협회, 2011)
- 4) 종합의견
  - 조사 대상 유물인 『간호교과서』 상하 2권 2책본은 마가렛 제인 에드먼즈 (Margaret Jane Edmunds, 1871~1945)가 출판한 우리나라 최초의 간호교과서이다. 20세기 초기의 국어연구는 물론 의학사의 중요한 자료로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초기 의학용어의 한글번역 연구와 20세기 초기의 국어연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이다. 더욱이 우리나라 최초의 간호교과서라는 점에서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교수>

- 1) 현상
  - 보존상태 양호
- 2) 내용 및 특징
  - 대한제국 시기 보구녀관에 근무하던 선교사 Margaret Edmunds가 번역하여, 감리교인쇄소에서 출판한 간호교과서임. 한국 최초의 간호교과서인지는 더 파악할 필요가 있지만, 매우 중요한 간호 분야 자료임은 분명함.
- 3)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보구녀관에 근무하던 선교사 Margaret Edmunds가 번역, 출판한 간호교과서임. 한국 최초인지는 더 파악할 필요가 있지만, 매우 중요한 간호 분야 자료임은 분명함.
  - 비록 번역판이지만 근대적 간호교육 초기에 실제로 사용된 간호교과서로 문화재로 등록할 가치가 있음.
- 4) 종합의견
  - 비록 번역판이지만 근대간호 도입기에 실제 쓰였던 간호교과서로 문화재로 등록할 가치가 있음.

3) 문헌자료

- 이방원, “보구여관(保救女館)의 설립과 활동”, 『의공학회지』 17권 1호(2008), pp.37-56.
- 이방원, “보구여관 간호원양성소(1903~1933)의 설립과 운영”, 『의사학: 대한의사학회지』 제20권 제2호(2011. 12), pp.355-393.
- 옥성득, “조선개신교 간호와 간호교육의 정체성 - 1903년에 설립된 보구여관 간호원양성학교와 에드먼즈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36호(2012.03), pp.185-225.
- 옥성득, 한국 근대간호 역사여행⑦, “첫 한글 《간호교과서》의 발간, 1908년”, 『간호신문』 (2012-10-30)



## 2. 사적 제280호 「서울 한국은행 본관」 현상변경

### 가. 제안사항

-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사적 제280호 「서울 한국은행 본관」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서울 한국은행 본관」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 신청이 있어 이를 심의하고자 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한국은행 총재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한국은행 (사적 제280호, '81.09.25 지정)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남대문로3가)
- (3) 신청내용
  - 대상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 (당해 문화재 )
  - 신청내용 : 지하배수로 준설, 지하수 수위계 설치, 경관조명 재정비
    - 지하(PIT)층 배수로 준설 : 토사 침전물 200m<sup>3</sup>(고압분사 흡입식 제트클리닝 기법)
      - \* 준설위한 지하층 바닥철거 2개소(800×1,000, 1,000×1,000), 벽체철거 2개소 병행
    - 지하수 수위계 설치 : 2개소 (PVC Ø50, 천공깊이 20m - 유압식)
    - 경관조명 기구 교체 설치
      - LED BAR(RGBW, 74W) : 81EA, · LED BAR(RGBW, 9W) : 192EA,
      - LED BAR(RGBW, 36W) : 6EA, · LED 투광등(RGBW, 36W) : 28EA
- (4) 신청인 의견
  - 문화재에 대한 다양한 모습의 야간 경관 조망 향유권 제공을 위하여 노후 및 고장난 외부 경관 조명 기구를 교체하고 문화재의 원활한 유지 관리를 위하여 지하 시설물에 대한 준설 및 지하 수위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임
  - 특히 외부 경관 조명은 노후 된 조명기구를 교체하는 것과 함께 다양한 연출 및 조정이 가능한 조명 시스템을 미리 확보하여 향후 재투자로 발생할 수 있는 재원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고 다양한 시민의 요구에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조명 시스템을 미리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 라. 검토의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의견('16.3.14) / 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최근 서울 한국은행 본관 주변지역에서 건축공사 시 지하수 유출 등으로 수위 변화가 감지됨에 따라 일정한 지하수위를 유지해야 하는 동 건물 기초 나무파일의 손상 방지를 위해 지하층 PIT 부위의 퇴적토 준설과 지하수위 계측을 위한 수위계 설치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한 당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외부 경관조명 정비(교체 등)는 전체적으로 문화재 조명이이드라인 기준인 입면투광 평균 휘도 이하로 계획되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벤트 조명 계획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사업시행 중 특수구조로 된 건축물 하부의 배수로 관련 학술조사 및 퇴적토 분석을 하여 보고서 제출토록 함
  - 조명의 경우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추진함
- 출석 6명, 조건부가결 6명

### 3. 사적 제291호 「창원 진해우체국」 주변 현상변경

#### 가. 제안사항

-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사적 제291호 「창원 진해우체국」 주변에서 공동주택 등 건축을 위하여 현상변경 허가 신청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창원 진해우체국」 주변 건축물 신축을 위한 현상변경 허가 신청이 있어 이를 심의하고자 함
- 본건은 이전에 다음과 같은 현상변경 허가신청 및 처리 이력이 있음
  - 근대문화재분과 2015년 7차회의('15.09.22) 심의 : 부결
  - 근대문화재분과 2015년 8차회의('15.11.24) 심의 : 부결

#### 다. 주요내용

- 신청인 : (주)세창건설
- 대상문화재명 : 창원 진해우체국(사적 제291호, '81.09.25 지정)
  -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통신동 1번지
- 신청내용
  - 대상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대흥동 10-2번지  
(문화재 주변 : 2구역/132m 이격)
  - ※ '2구역' 현상변경 허용기준 : 경사지붕, 최고높이 19m(4층) 이하
  - 신청내용 : 진해우체국 주변 건축물(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신축
    - 규모 : 지하1층, 지상6층(높이18.9m/경사지붕), 건축면적 404.84㎡, 연면적 1,655.61㎡
- 신청인 의견
  - 문화재청에서 고시 운용하고 있는 「창원 진해우체국」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높이 기준(경사지붕 19m 이하)에 맞게 사업계획을 변경 제출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허가됨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라. 검토의견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의견('16.3.15) / 전 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본 건은 사적 제291호 「창원 진해우체국」의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 2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신축하고자 하는 건이며 과거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건축높이로 현상변경 계획을 신청함에

- 따라 총 2차례('15.09.22, '15.11.24)에 거쳐 심의 부결된 이력이 있음
- 다만, 이번 신청 건은 현상변경허용기준에 정하는 규모(건축높이 19m 이하, 경사지붕) 이내로 사업계획을 보완하여 제출하는 등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현상변경허가 승인을 하여도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마. 참고사항 (그간의 현상변경 신청 및 검토 경과)

구 분	< 1차 신청 > '15년 7차 심의회('15.09.22)	< 2차 신청 > '15년 8차 심의회 ('15.11.24)
사업내용	<건축물(공동주택) 신축> - 규모 : 지하1층, <u>지상10층</u> 건축면적 343㎡, 연면적 2,191.63㎡ - <u>건물높이 : 33.9m</u>	<건축물(공동주택) 신축> - 규모 : 지하1층, <u>지상9층</u> 건축면적 343.18㎡, 연면적 1985.19㎡ - <u>건물높이 : 28.4m</u>
전문가 현지 조사의견	(전 문화재위원 ○○○) - 계획안대로 신축하였을 경우 진해우체국으로부터 직접 조망이 가능하게 되어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됨(진해우체국의 정면에 위치)	(전 문화재위원 ○○○) - 지난 계획안에 비해 규모를 축소하여 재신청하였으나, 여전히 진해우체국으로부터의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됨 -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를 고려한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위원회 검토 결과	부결	부결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6명, 원안가결 6명

**4. 사적 제442호 「구 대구의학전문학교 본관」 및 제443호 「구 도립 대구병원」 주변 현상변경**

**가. 제안사항**



- 대구광역시 중구 소재 사적 제442호 「구 대구의학전문학교 본관」 및 사적 제443호 「구 도립대구병원」 주변의 현상변경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구 도립 대구병원」 주변 경북대학교 응급병동 위에 헬리패드 등을 시설하기 위한 현상변경 허가 신청이 있어 이를 심의하고자 함
- 본건은 이전에 다음과 같은 검토 이력이 있음
  - 근대문화재분과 2016년 1차회의('16.01.26) 심의 검토 : 보류
  - \* 사유 : 계획의 변경 조정(안)을 마련하여 위원회에서 재검토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경북대학교 총장
- (2) 대상 문화재
  - 구 대구의학전문학교 본관(사적 제442호, '03.01.28 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 2가 191
  - 구 도립대구병원 (사적 제443호, '03.01.28 지정)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동 2가 50번지
- (3) 신청내용
  - 대상위치 :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동 2가 50번지 (구 도립대구병원에서 약20m 이격)
    - ※ 현상변경허용기준 상 '1구역(심의구역)'임 - 허용용도 : 대학교, 종합병원
  - 헬리패드 및 부속 계단실, 엘리베이터실 신설
    - 헬리패드(철골구조) : 시설면적 739.84㎡ (72.2m×72.2m), 시설높이 10m
    - 엘리베이터실 및 계단실 : 시설면적 32.27㎡, 시설높이 10m

1차 심의 안		보완 안 (금회)	
			
패드 하부	철골구조물 위 <b>알루미늄 BAR</b> 설치 (간격: 1M)	패드 하부	철골구조물 전체에 <b>메탈패브릭</b> 설치
패드 간판	「경북대학교병원」 간판 설치	패드 간판	설치 하지 않음
패드 바닥	적색 계열	패드 바닥	점토 벽돌색 계열

**(4) 신청인 의견**

- 대구·경북 권역의 중증외상 환자에 대한 응급이송 및 진료로 사망률을 낮추고자 시행된 외상센터(복지부 지원사업) 사업에 선정되고 후속적으로 이에 대한 필수시설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이며 동 시설이 미비 될 경우에는 사업이 취소될 소지가 있음
- 지방의 의료복지 수준 향상 및 사망률 저감을 위한 지역 염원 사업임

**라. 검토의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의견 ('16.1.19) / 전 문화재위원 ○○○〉

- 문화재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며 계획 전반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2안으로 하고, 소위원회의 지도·자문을 받아서 추진함
- 출석 6명, 조건부가결 6명

## 5. 등록문화재 제83호 「창경궁 대온실」 현상변경

### 가. 제안사항

- 서울시 종로구 소재 등록문화재 제83호 「창경궁 대온실」 보수 추진계획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창경궁 내 대온실 목재 기둥 및 창호의 부식으로 인하여 건축물 및 관람객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이를 보수하고자 함

**※ 2015년 창경궁 대온실 구조안전진단 및 보수설계용역**

- 구조안전진단을 통한 건축물의 정밀한 현황조사(3D스캔, 방사선 투과 시험 등)
- 현황조사에 따른 보수설계도서 작성

###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창경궁관리소장)
- (2) 대상 문화재 : 창경궁 대온실(등록문화재 제83호, '04.02.06 등록)
  - 위치 :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85 (사적 제123호 창경궁 내)
  - 구조/ 면적/ 최고높이 : 목조, 철골트러스/ 582.7㎡/ 10.5m
  - 건립연대/ 설계자 : 1909년/ 후쿠바 하야토(福羽逸入)
- (3) 신청내용 <창경궁 대온실 보수공사>
  - 공사내용

구 분	공사내용	세부 내용
건축문화재	목구조 공사	- 외부 부식된 목재 기둥 교체(55개소/ 총 72개소 중) - 동바리 보수(6개소/ 총 72개소 중)
	창호공사	- 부식 및 파손 창호 교체(30개소/ 총 142개소 중)
	지붕공사	- 서까래 프레임 간격 복원(3간격→5간격/ 전체 입면의 약 50%)
	타일공사	- 바닥타일을 원형의 모습으로 제작 시공
	도장공사	- 기존 박락된 도장 제거 및 재도장
	철물공사	- 일부 파손 철물(개폐장치) 보수 및 제작 설치
설비 및 전기	보일러 교체공사	- 난방방식 변경(팬코일유니트 방식→컨벡터 방식)
	탱크 철거공사	- 노후된 기름탱크 철거
	전력인입공사	- 추가 필요 전력 총당을 위한 전력인입공사
온실 실내 환경	스크린 설치	- 온실의 실내 경관과 조화되는 단열·차광 스크린 설치

- 공사기간/ 공사비 : 2016년 5월 ~ 2017년 10월 / 1,500백만원

### 라. 검토의견(창경궁)

- 목부재 부식이 심각한 상태로 문화재 보존관리 및 관람객 안전을 위하여 시급한 보수가 필요함

### 마. 참고사항

#### (1) 자문회의 경과

- 건축문화재 관련 자문('15. 12. 9. / ○○○, ○○○, ○○○, ○○○)
  - 구조안전진단 및 보수설계용역 내용 및 방향에 관한 세부적인 자문
- 대온실 환경·설비 관련 자문('16. 1. 27. / ○○○, ○○○)
  - 대온실의 단열, 환기, 차광, 냉·난방 관련 논의
- 건축문화재 관련 자문('16. 2. 10. / ○○○, ○○○)
  - 금회 대온실 보수 시 해체 범위 논의
  - 서까래 간격 및 타일을 원형의 모습으로 복원

#### (2) 대온실 수리이력

- 1955년 창문 및 지붕 유리창 교체
- 1961년 대온실 지붕 유리창 수리(서까래 프레임 간격 변형)
- 1976년 대온실 보수
- 1986년 도장공사 및 홈통공사
- 1994년 천정유리 및 동판 100% 교체, 일부 상부 주철 기둥 교체
- 2001년 2층 창호 35개소를 신재로 교체

###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사업 시행 중 전문가 자문을 받아 추진하고, 기록을 상세히 남기도록 함
- 출석 6명, 원안가결 6명

## 6. 등록문화재 제180호 「익산 중앙동 구 삼산의원」 등록 말소

### 가. 제안사항

- 전북 익산시 소재 등록문화재 제180호 「익산 중앙동 구 삼산의원」에 대한 등록 말소와 관련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2005년부터 등록문화재로 관리되고 있는 「익산 중앙동 구 삼산의원」과 관련하여 소유자가 지속적으로 등록 말소를 희망함에 따라 등록 말소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자 함
- 본건은 이전에 다음과 같은 심의 검토 이력이 있음
  - 근대문화재분과 2016년 1차회의('16.01.26) 심의 : 보류
  - \* 사유 : 문화재위원회의 현지조사 후 재검토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소유자)
- (2) 대상문화재
  - 문화재명 : 「익산 중앙동 구 삼산의원」 (등록문화재 제180호, '05.6.18등록)
  - 소재지 : 전북 익산시 중앙로 22-253(중앙동3가 114-2)
  - 등록구조/규모 : 조적조 / 1동 2층, 289.26㎡
- (3) 신청내용 : 등록문화재 제180호 「익산 중앙동 구 삼산의원」의 등록 말소
- (4) 소유자 의견 : 제출 내용 원본 배포

### 라. 검토의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의견('16.1.14) / 문화재위원 ○○○, ○○○〉

- 건립 당시의 외관과 구조를 잘 보존하고 있으며, 익산 원도심의 근대사적 유구로서 충분한 문화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함
- 단, 주변 대지의 개발계획에 따른 건축계획에서 문화재를 잘 보존하며 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을 모색하여 사용자의 편의에 도움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조적벽체의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며 트러스와 장선도 일부 부식이 우려되나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교통의 편의를 위해 1층부를 필로티로 하는 것은 일부 구조보강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구조 검토를 우선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관련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함

〈문화재위원회 현지조사 의견('15.2.25) / 문화재위원 ○○○, ○○○, ○○○, ○○○, ○○○, ○○○, ○○○, 관계전문가 ○○○〉

- 상기 문화재는 지역사는 물론 의학사 측면에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이미 등록문화재 수리를 위해 국고를 보조한 상황이므로 문화재(등록) 말소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 다만, 소유주의 의견과 지역사회에서의 활용가치가 공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마. 기타의견

#### <익산시>

- 해당 등록문화재에 대한 지정(2005.6.18등록) 당시부터 민원이 발생했던 사안으로 현재는 관련 시설들의 노후로 인한 공가 상태이며, 주변(익산 구도심) 지역 슬럼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임
- 구 삼산의원 주변은 평화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추진 계획되어 있어, 지가상승 및 개발압력이 발생하고 있으며, 삼산의원 소유자 역시 연계 부지까지 요양병원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임
- 지정 절차상의 소유자 확인 여부 등 논란이 있지만 등록문화재의 보존과 활용(개발)이 병행 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검토 건의

#### 바.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적 가치에 따라 등록 말소는 타당하지 않음
  - 등록문화재로서 보존·활용 가치가 공존할 수 있는 적극적 방법을 익산시가 관계전문가와 협의하여 적극 모색 마련할 필요 있음
- 출석 6명, 부결 6명



# 검 토 사 항

## 7. 사적 제318호 「익산 나바위성당」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 가. 제안사항

- 전라북도 익산시 소재 사적 제318호 「익산 나바위성당」의 보호구역 지정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익산 나바위성당」의 보호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보호구역 지정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익산시
- (2) 대상문화재명 : 익산 나바위성당(사적 제318호, '87.07.18 지정)
  - 소 재 지 : 전라북도 익산시 성당면 나바위1길 146 일원
  - 지정면적 : 27,788㎡
- (3) 신청내용
  - 신청내용 : 익산 나바위성당 보호구역 지정
  - 대상위치 : 전라북도 익산시 망성면 화산리 1142-2 등 15필지
  - 면 적 : 12,619.4㎡

### 라. 검토의견<관계전문가 현지조사('16.3.11.)>

- 문화재위원 ○○○
  - 이번에 신청된 구역은 성당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재구역(나바위성당은 문화재구역만 지정됨)에서 제외된 곳으로 역사적 경관 유지를 위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문화재전문위원 ○○○
  - 순례객들의 편의(주차 및 이동 등)를 도모하고 문화재환경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익산시의 '나바위성당 종합정비계획'상의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요청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문화재전문위원 ○○○
  - 익산 나바위성당의 지속적 보호관리와 경관개선 등을 위해 기존 문화재 지정구역에서 제외된 일부 성당 시설 등이 보호구역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6명, 원안가결 6명

## 8. 등록문화재 제52호 「구 서울특별시 청사」 등록범위 조정

### 가. 제안사항

-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등록문화재 제52호 「구 서울특별시 청사」에 대한 등록 범위 조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구 서울특별시 청사」의 문화재 등록 범위 조정 신청이 있어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 본건은 이전에 다음과 같은 검토 이력이 있음
  - 근대문화재분과 2016년 1차회의('16.01.26) 검토 : 보류
  - \* 사유 : 문화재위원회의 현지조사 후 재검토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서울특별시청
- (2) 대상문화재
  - 문화재명 : 구 서울특별시 청사 (등록문화재 제52호, '03.6.30 등록)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 1가)
  - 등록 관리내역 : 1동, 4층, 연면적 8,506.38㎡
- (3) 신청내용 : 문화재 등록 범위 축소 조정
  - 당초 등록 : 1동, 4층, 연면적 8,506.38㎡(구 서울청사 당초 본관동 면적임)
  - 변경 등록 : 현재 잔존한 전면과 측면 파사드, 중앙탑과 돛지붕(형태), 현관 및 중앙홀, 중앙계단에 해당되는 시설에 한하여 관리
- (4) 신청인 의견 (조정 신청사유)
  - '08~'13년에 걸친 신청사 신축 및 보수공사 결과 전면 및 측면 파사드, 중앙탑과 돛지붕 등의 일부만이 원형대로 남아 있으나 현재 등록 관리되는 범위는 당초 구 서울 청사 본관동 전체 면적이 등록 관리되고 있음
  - 현존하는 원형 시설 기준으로 등록관리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라. 검토의견

#### <관계전문가 검토 의견('15.1.20) / 문화재위원 ○○○>

- 등록문화재 제52호인 서울시청 청사는 등록 후 신관증축과 수리를 통해 일부 멸실, 일부 원형유지, 일부 이전복원 되었으므로 등록범위의 조정이 필요하고, 현재 서울시 청사가 아닌 서울도서관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명칭변경이 필요함.

- 명칭 : 구 서울시 청사
- 등록범위 조정 : 원형이 유지된 부분(전면 및 측면 파사드, 중앙 탑과 돛지붕, 현관 및 중앙홀, 중앙계단)과 이전 복원된 부분(시장집무실, 및 접견실, 기획상황실, 태평홀)의 지표기준 수직방향 상하 전범위로 등록범위 조정

#### <문화재위원회 현지조사 의견('15.2.25) / 문화재위원 ○○○,○○○,○○○,○○○>

- 현, 구 서울시청 본관은 중앙부와 정면의 표피만 원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양측날개의 사무공간은 철거가 아닌 구조적 문제 해결 차원에서 수리된 결과라고 볼 때 원형 전체를 등록문화재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 특히, 등록문화재의 경우 1/4 이내에서 수리가 자유로운 가운데 수리된(기해체된) 부분이 문화재 관리에서 제외 될 경우 오랜 시간이 경과되고 난 후에는 원래의 모습을 상실할 우려가 있으므로 문화재 범위 축소는 불가하다고 판단됨
- 현, 신청사 신축 과정에서 발굴 된 조선시대 공장건축인 군기시터는 회소성과 중요성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문화재 지정을 검토 할 필요가 있음

### 마. 기타 참고사항

#### < 구 서울청사 관련 참고 연혁 >

- '03.06.30 등록문화재 제52호로 등록
- '07.07.10 서울시청 본관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신고
- '08.08.26 태평홀 일부 해체에 따라 문화재청 사적 가지정 통지
- '09.02 보존부위 제외한 본관의 부분 해체
- '09.09.11 사적 가지정 해제 → 등록문화재로 관리 전환
- '12.08.31 신청사 신축공사 완료
- '13.10.30 등록문화재 명칭 변경(서울시청 청사 → 구 서울특별시청사)

### 마. 의결사항

- 부결
  - 원형 보존된 부분 이외의 신축 부분은 구조적 문제 해결 차원에서 수리된 결과로서, 문화재 범위 축소는 원래 모습 상실 우려가 있어 불가함
- 출석 6명, 부결 6명

### 9. 「고흥 소록도 병사성당」 문화재 등록

#### 가. 제안사항

- 전라남도 고흥군 소재 「소록도 병사성당」의 문화재 등록 신청 사항을 부의 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소록도 병사성당」의 문화재 등록 신청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고흥군수
- (2) 대상문화재명 : 고흥 소록도 병사성당
  - 소재지 :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양지회관길 35
  - 소유자 : 국립소록도병원
  - 수량 : 1동
  - 면적 : 연면적 446.64㎡
  - 건립시기 : 1961년
  - 구조 : 벽돌조, 지상 2층
- (3) 신청내용
  - 고흥 소록도 병사성당 등록문화재 등록
- (4) 신청인 의견
  - 소록도 병사성당은 우리 현대사의 한 상징인 소록도와 그 주체인 한센인들이 직접 참여한 건축물이며, 이곳에서 절망에서 희망을 만들었던 점에서 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만한 가치가 충분함

#### 라. 검토의견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6.3.9.) / 문화재전문위원 ○○○, ○○○, ○○○>
- 한센인들의 안식과 위로를 준 건물로 근대기 성당건축으로서의 건축적 가치와 더불어 소록도라는 지역적 특징속에서 한센인과 함께 한 역사적 가치가 높게 평가됨.
  - 특히 육체적·정신적 아픔의 치유를 위한 영적 공간으로서 성당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한센인들이 직접 공사에 참여한 것은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사례로 등록문화재로 등록,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6명, 원안가결 6명

붙임 : 조사보고서 1부

1. 명칭 : (현) 고흥 소록도 천주교 병사성당 (구) 고흥 소록도 천주교 병사성당
2. 용도 : (현) 성당 (원) 성당
3. 소재지 :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양지회관길 35
4. 소유자 : 국립소록도병원

#### 5. 건축물 개요

- 건축구조 : 시멘트벽돌조적+목조트러스
- 준공일 : 1961년대
- 수량 및 면적 : 1동, 연면적 446.64㎡
- 층수(높이) : 지상 1층

#### 6. 조사자 의견(2016. 3. 9.)

##### <○○○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 소록도 병사성당의 창건 및 경과는 다음과 같다.
    - 1943년 7월 병사 공소설립(나주 성당 김필현신부)
    - 1960년 8월 13일 병사공소가 본당으로 승격(권야교보신부)
    - 1961년 10월 11일 건평 170평의 성당 신축(낙성식)
    - 1962년 마리안트와 마가렛 간호사가 환우들과 함께 미사 봉헌
-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1층은 성당 본당
  - 2층은 성가대석
  - 난방시설 무
  - 시멘트벽돌구조
  - 목조트러스 지붕구조
  - 지붕은 슬레이트 잇기
  - 측면벽의 버트레스가 특징이 있음
-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창건 당시의 형태로부터 크게 변형된 것은 보이지 않으나 외부의 일부에서 다소의 노후 부분이 나타남.
-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소록도의 자연생태환경과 잘 어울리며 보존상태도 양호하다고 사료됨
- 5)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6)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1960년대 조적조 구조와 목조트러스 지붕구조가 잘 결합된 근대건축적 가치와 한센인들의 안식과 위로를 준 건물로써 그 가치가 있다고 사료됨

##### <○○○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 현재 국립소록도병원의 전신인 소록도 자혜의원은 1916년 소록도에 한센병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시설로 설립되었다. 법령에 의거하여 섬 전체의 1/5에 해당되는 299,704평을 강제로 매입하여 주민들을 이전시키고 1917년 1월부터 본관을 비롯한

건물 47동(388평)을 점차적으로 건축하였다. 수용된 나환자는 초기에 100명으로 시작하여 최대 6,254명(1947년)에 이르렀으나,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1981년(2,561명), 2002년(750명)으로 감소하여 현재 600여명의 음성 및 양성환자가 거주하고 있다.

육지의 사람들과 격리되고 절망속에 삶을 살아가던 환우들에게 종교는 새로운 희망을 건네주었다. 천주교를 비롯한 개신교, 원불교, 일본의 신사 등의 종교시설이 소록도에 들어오게 되었다. 천주교는 1935년 11월 한센병을 앓고 있던 장순업(프란치스코), 강기수(바오로), 허영원(요셉) 등 3명의 천주교 신자를 주축으로 공소예절이 시작되는 등 전교가 이루어졌다. 1943년 7월 15일 환우들을 위한 병사공소가 설립되어 나주 성당의 김필현(루도비코) 신부에 의해 첫미사를 가졌다. 이후 1959년 11월 10일 별교본당에 권야고보(J. Michaels, 골롬반 외방선교회) 보좌신부가 부임하면서 주일미사가 계속 봉헌되었다. 1960년 8월 13일 소록도 공소가 본당으로 승격되어 권야고보 신부가 초대 주임(재임기간 1960.8~1964.1)으로 부임하였다. 이어서 1961년 10월 11일 건축면적 170평의 성당을 신축하였고, 1962년 5월 10일 광주대교구장 헨리(H. Henry, 玄海) 대주교의 집전으로 병사성당과 성모동굴에 대한 축성식을 거행하였다.

성당 건축은 장방형의 바실리카 양식으로 시멘트벽돌조 단층이다. 정면의 1개 베이를 2층으로 만들어 성가대석으로 이용하고 있다. 성당건축은 환우들 모두가 힘을 모아 이루어졌다. 환우들은 상처난 손으로 경사지에 대지마련을 위한 평탄작업을 하였고 인근 남생리와 동생리의 바다 모래를 세척하여 시멘트벽돌을 제작하였다. 건축은 권야고보 신부의 설계와 감독하에 진행되었다.

현재의 성당은 여러 부위에서 노후화에 따른 구조물과 마감재의 훼손으로 1982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대수리가 있었다.

##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병사 성당은 지상1층 시멘트벽돌조이며 시멘트몰탈위에 페인트칠로 마감되어 있다. 평면은 바실리카식 장방형으로 거북 모양을 이룬다. 환우들의 투병과 죽음으로부터 무병장수의 희망을 '거북'으로 표현하였다. 정면의 종탑은 거북의 머리 부분이며, 좌우측 벽면으로 부터 돌출된 4개의 공간은 거북의 앞발과 뒷발을 상징한다.

평면은 크고 작은 간격으로 된 7개의 베이로 이루어진 점이 특이하다. 좌우로 돌출된 부위는 고해실, 성모상, 제의실, 준비실이 위치하며 정면의 첫 번째 베이인 홀의 상부는 2층이 된다. 제단부는 단을 높였고 뒤쪽은 장방형 평면형태로 돌출시켜 좌우측면에서 빛이 제단부에 유입되도록 하였다.

좌우측벽의 바깥쪽은 조적벽을 보강하는 부축벽이 위치하여 각 베이를 구분하고 있다. 정면의 박공벽 두집대는 몰당을 만들어 선을 강조하였고, 좌우측벽 상부처마 부위는 덴탈 장식을 하였다. 지붕은 맞배지붕이며 지붕마루에 접하여 장방형 단면의 도머창이 우측에만 2개소 설치되어 있다.

창문은 반원아치창 구조이며 건축 당시에는 오르내리기 형식의 목재창이었으나 수리시 불박이 및 미닫이 방식이 혼재된 PVC계열의 창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각 출입문의 상부에는 간결한 캐노피가 설치되어 건축미를 더해주고 있다.

이 성당의 역사적 가치로는 마리안느와 마가렛 간호사가 40여년간 신앙의 힘을 얻기 위해 찾았던 성당이며, 천주교 신자 환우들이 마음의 안식처로 여기던 곳이다. 1984년 요한바오로2세 교황님의 방문이 있었고 이때 환우들에게 선물하신 대형 십자가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교황님이 앉으셨던 의자가 유품으로 보존되고 있다.

##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병사성당은 1982년과 2011년 두차례의 대수리가 있었다. 2011년은 본당설정 50주년을 맞이한 수리였다. 주된 수리 요인은 목부재 훼손에 따른 마감재교체와 일부 구조적인 보완 때문이었다.

1982년 수리는 지붕마감재교체와 외벽체안쪽 마감재교체(목제널 붙이기)가 있었다. 지붕마감재는 합성재료로 된 슬레이트로 포항제철의 신개발 제품이였다.

2011년 대수리는 창문교체, 내벽마감재교체, 천장마감재교체, 바닥마감재교체(마루널 철거후 시멘트바닥+비닐계타일 마감), 제단부교체(마루철거, 시멘트바닥+마루널), 2층구조물 철거후 확장(철근콘크리트 구조로 평면 확장) 등이다. 2011년 수리로 근대건축의 특성을 드러내는 구조와 장식들이 철거되거나 변형되었다. 창문은 개폐방식과 재료가 변형되었고, 회중석과 제단부 마루 역시 철거되었다. 그 외 제단부와 2층구조물 수리로 문양이 들어있는 목제난간이 모두 철거되었다. 이 수리는 대부분 내부공간에 국한되었고 공간의 적극적인 활용을 하기 위함이었다.

병사성당은 부분적으로 내부구조변경, 바닥마감재교체, 창호교체 등이 있었으나 건물의 외형과 구조에는 변화가 없었고, 내부 수리는 마감재 교체가 주를 이루며 온화한 성당으로써 분위기를 갖도록 하였다. 건물의 상태는 전체적으로 양호하다.

##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은 양호하다. 소록도내 병사 지역에 건축된 유일한 성당이다. 국내 최대의 한센병 환우들을 위한 특수시설이 자리잡고 있으며, 환우들의 아픈 역사가 그대로 남아 있는 곳이다. 육체적인 아픔과 영혼의 아픔까지 치유될 수 있는 영적인 장소인 동시에 평화와 희망의 집이 되기에 충분하다. 또한 국립소록도병원 당국의 적극적인 의지와 소록도 본당신부 및 천주교신자 환우들의 적극적인 사랑의 봉사는 이 성당건물이 문화재로 등록되기에 충분한 환경이 될것으로 사료된다.

건물의 외적 환경은 양호하다. 환우들이 손수 일궈낸 흔적이 가득하다. 주변의 언덕과 건축물, 자연환경은 자체가 공원과도 흡사하며, 이미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 보호를 받고 있는 근대건축유산이 산재하고 있다.

##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성당을 중심으로 환우들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을 위한 영성의 중심이 되고 있는 점은 그 자체가 종교의 가치실현이 되며 활용적인 측면에서 문화재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일로 부합된다.

###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소록도본당은 광주대교구 소속본당으로 신자 구성원이 한센병과 관련한 특수한 본당공동체로 천주교가 지향하는 활동대상 장소이다. 한센병의 완전한 퇴치를 지향하고 있지만 이곳은 환우들의 아픈 역사가 깃든 장소이며, 아픔을 기억하고 위로 받는 장소라는 점은 참으로 가치가 크다. 인간의 내적외적 아픔을 치유하는 장소가 되어 사회에 기여하고 활용되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다. 기타사항

병사성당의 앞마당에 성당건축 당시에 심은 후박나무가 반구형을 이루고 있다. 나무의 자란 형태와 줄기들이 아름답고 섬세하다. 보호수로 지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제와의 가치 비교·검토

한센병에 관련한 특수 시설안에 시멘트벽돌을 사용한 성당건물로 시멘트를 이용한 독특한 평면과 입면의 구성을 찾아볼 수 있다. 삼척 성내동성당의 평면을 닮고 있으나 종탑구성과 건물의 규모, 돌출공간의 형태도 확연히 다르다.

7) 등록가치 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성당건물을 등록 대상으로 정하고 이외 요한바오르2세 교황님 방문에 따른 대형 십자가와 유품인 의자 그리고 성당역사와 함께 한 앞마당의 후박나무를 보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8) 기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명칭 : 고흥 소록도 병사성당

<○○○ 문화재전문위원>

1) 개요

1916년 조선총독부가 한센병 환자들을 소록도로 이주시키면서 소록도 내에 천주교를 비롯하여 기독교, 원불교 등 다양한 종교시설이 들어서는 계기가 되었다. 천주교의 시작은 1935년에 한센인 장순업 등 3명의 천주교 신자가 소록도에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공소 예절이 시작되었다. 1960년 공소가 본당으로 승격되었으며 다음 해인 1961년에 성당을 신축하게 되었고 그 이후 수차례의 보수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현재 소록도에는 1916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총 363동의 크고 작은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들 대다수는 1935년 이후 소록도에서 직접 제작한 벽돌로 건축되었다. 소록도 천주교 병사 성당은 완만한 구릉지 위에 자리 잡고 있으며, 성당의 입구를 서향으로 하고 지성소인 제단을 동쪽에 설치하였다. 전체적으로 일자형태의 바실리카식 형식으로 건축되었으나 내부의 예배공간은 아일 없이 네이브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별도의 앱스와 크란셋트도 생략하였다. 지붕구조는 목조 트러스 구조이며, 그 위에 개관을 깔고 슬레이트를 얹었다. 창호와 문은 목재 틀에 유리창을 끼워 넣었으며 출입문 상부에는 캐노피를 설치하였고 외벽 측면에는 부축벽을 만들어 시각적인 안정감을 더 했다. 또한, 동쪽 벽면에는 수직창을 내어 실내로의 자연스러운 채광을 유도하였다. 성당 내부에는 교황 요한바오르 2세가 방문하여 선물한 십자가가 모셔져 있으며, 그 아래에는 교황이 직접 앉은 의자가 배치되어 있다. 성당은 전적으로 한센인들에 의해 직접 건축되었으며, 자신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로서 장수를 상징하는 거북이 형태로 계획하였다고 전해져 오고 있다. 즉, 서편의 성당 입구는 거북이의 머리, 고해실과 성모상이 위치한 공간은 앞발, 동쪽에 위치한 제단 공간은 뒷발에 해당되는데 이는 서양의 종교시설이지만 동양의 인문적 요소들이 반영된 독특한 건축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전체적으로 건립 당시의 형태에서 크게 변형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창호, 바닥 등 목부재 또는 마감재 등의 교체 작업은 수차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건립당시부터 현재까지 성당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어 본래의 기능을 소실한 소록도 내 기타 건축물에 비해 보존, 관리 상태는 매우 양호하다. 또한, 오늘날까지도 소록도에 거주하는 한센인들에게는 희망의 장소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하고 있기에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현재에도 소록도 거주 한센인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성당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문화재 활용계획의 측면에서도 부합된다.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소록도 병사 성당은 한센인들이 아픔을 이겨낸 역사적인 흔적인 만큼 일반적인 종교시설로서가 아닌 살아 있는 역사 교육의 장으로 지속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 기타사항

소록도 병사 성당 전면에 위치하고 있는 ‘후박나무’ 역시 성당의 역사와 함께 하고 있어 상징적인 측면에서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제와의 가치 비교·검토

소록도 병사 성당이 한센인들이 자신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로서 장수를 상징하는 거북이 형태로 계획된 것은 서양의 종교시설에 동양의 인문적 요소들을 반영한 독특한 건축형태로서 동일시기에 건립된 다른 성당건축과 차별적인 특징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소록도 병사 성당은 근대시기에 건립된 성당건축으로서의 건축적 가치와 함께 소록도라는 지역적인 특징속에서 한센인들과 관련된 역사적 가치가 함께 하고 있어 등록문화재로 등록,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8) 기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등록문화재 명칭 부여 기준에 따라 ‘고흥 소록도 병사성당’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 10. 「고흥 소록도 마리안느와 마가렛 사택」 문화재 등록

### 가. 제안사항

- 전라남도 고흥군 소재 「마리안느와 마가렛 사택」의 문화재 등록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마리안느와 마가렛 사택」의 문화재 등록 신청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고흥군수
- (2) 대상문화재명 : 고흥 소록도 마리안느와 마가렛 사택
  - 소재지 :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소록리 149-16번지
  - 소유자 : 국립소록도병원
  - 수량 : 1동
  - 면적 : 대지면적 507㎡, 연면적 92.34㎡, 높이 4.5m
  - 건립시기 : 1938년
  - 구조 : 벽돌조, 지상 1층
- (3) 신청내용
  - 소록도 마리안느와 마가렛 등록문화재 등록
- (4) 신청인 의견
  - 소록도 한센인들을 위해 평생 동안 자원봉사를 실천하였던 마리안느와 마가렛이 거주하였던 주택으로, 자국민들도 기피하는 열악한 환경의 소록도에 들어와 한센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의료활동으로 사랑과 자애를 몸소 보여준 마리안느와 마가렛이 한센인들과 함께 격동적인 시기를 같이 이겨낸 역사적 장소임.

### 라. 검토의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6.3.9.) / 문화재전문위원 ○○○, ○○○, ○○○>

- 일제강점기의 열악한 환경에서 한센인들이 직접 제작한 적벽돌로 건축된 일본식 적벽돌 구조의 주택으로, 마리안느와 마가렛이 사용하던 유품과 생활 도구들이 그대로 남겨져 있음
- 40여년간 한센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의료 봉사활동으로 한센인들이 겪었던 현대사의 아픈 시기를 같이 이겨낸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희생과 봉사의 상징적인 주택으로 등록할 만한 가치가 있음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소록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자료 수집 보완 및 주변 건물 포함한 종합적인 보존방안을 권고함
- 출석 6명, 원안가결 6명

붙임 : 조사보고서 1부

# ‘고흥 소록도 마리안느 및 마가렛 사택’ 조사보고서

- 1. 명 칭 : (현) 마리안느와 마가렛 사택 (구) 마리안느와 마가렛 사택
- 2. 용 도 : (현) 주택 (원) 주택
- 3. 소재지 :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소록선창길 116-10
- 4. 소유자 : 국립소록도병원

## 5. 건축물 개요

- 건축구조 : 벽돌구조
- 준공일 : 1938년대
- 수량 및 면적 : 1동, 대지면적 507㎡, 연면적 92.34㎡
- 층수(높이) : 지상 1층, 높이 4.5m

## 6. 조사자 의견(2016. 3. 9.)

### <○○○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한센인들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기거한 두 수녀가 40여년을 생활했던 주택으로 그들의 희생정신과 실천의식이 잘 보존되어 있다. 초창기에는 고급관리가 거주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주택은 주요구조가 적색 벽돌이며 내부골조는 목재이다. 1933년 벽돌공장이 세워진 후 이 공장에서 제작된 벽돌로 지었으며 이 건축물도 이 공장에서 제조된 벽돌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붕은 애초에는 기와지붕이었으나 현재는 기와무늬 철제지붕(골슬레이트 철판)으로 개수되었다.

창문은 거의 유리창이며 신축당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는 이중 창호를 설치하는 등 일부 변형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모든 창호의 상부에는 캐노피가 설치되었으며 캐노피 상부에 벽돌벽이 아닌 시멘트 마감이 보인다(인방으로 추정). 이는 캐노피를 미리 타설하여 창호부분을 만들고 그 위에 벽돌벽에 삽입한 것으로 추정한다. 벽돌벽 위에 도리를 얹고 그 위에 방형의 서까래를 설치한 다음 지붕을 덮었다.

####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건물은 전체적으로 벽돌구조이며 지붕은 합각지붕이다. 지붕틀은 목조 트러스이며 서까래가 없었다. 모근 창호의 상부에 캐노피를 두었다. 일제강점기 관사주택의 일반적 형태를 가졌다.

####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비교적 원형에 가깝게 잘 보존되어 왔으며 관리가 양호하여 노후화도 많지 않다. 일부 변형(창호)부분은 노후부분은 원형복원 및 수리가 필요하다. 또한 지붕의 골합석판(철골판) 잇기는 기와로 복원하는 것이 바람직.

####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이 건축물이 입지한 소록도는 섬자체로 보존가치가 크며 주변은 일부 원시림이 우거진 정도로 자연생태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어서 보존관리 여건으로 매우 양호하다.

#### 5) 등록가치의건(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한센인들의 치료 및 재생을 위한 특별한 영역인 소록도에 마리안느와 마가렛이

40여년간 거주하였던 집으로 역사적 의미가 있다. 이들은 1962년 자국민들도 기피하는 열악한 환경의 소록도에 들어와 적극적인 의료 봉사활동으로 사랑과 자애를 몸소 보여주며 한센인들이 겪었던 현대사의 아픈 시기를 같이 이겨낸 기념비적인 인물들이다. 이들이 살았고 희생과 봉사의 상징성이 된 이 주택은 근대유산으로 신청한 국립소록도병원이 그 관리 및 보존을 충실히 이행할 것으로 판단되고 근대적 양식의 건축물로 등록의 가치가 있다고 사료됨.

### <○○○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현재 국립소록도병원의 전신인 소록도 자혜의원은 1916년 소록도에 한센병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시설로 설립되었다. 1917년 1월부터 본관을 비롯한 건물 47동(388평)을 점차적으로 건축하였다. 건물의 배치는 병사지역과 관사지역으로 나뉘고 있으며 조사 대상 건물은 관사지역내 직원 사택이다. 이 건물은 1938년 일제강점기에 건립된 적벽돌 주택으로 소록도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건축양식이다.

대상 건물은 한센인들을 위해 평생을 봉사해왔던 마리안느(Marianne Stoeger)와 마가렛(Margreth Pissarek)이 거주하던 주택이다. 열악한 환경속에서 적극적인 의료활동을 하였고, 해외의 원조를 통해 의약품을 나누어주고 장애교정 수술을 실시하고, 한센인 자녀를 위한 영아원 운영 등 보육과 자활창작 사업에 헌신하였다.

마리안느와 마가렛은 각각 1934년과 1935년에 오스트리아에서 출생하였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이들은 인스부르크 국립간호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 자격을 얻은 다음 그리드도왕 시녀회에 입회하여 수녀가 되었다. 그리고 각각 1962년과 1966년 한국 소록도를 찾아왔다. “이제는 저희들이 천막을 접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라는 편지를 남기고 떠난 2005년 11월 21일 까지 거주하였다. 이들의 공로를 기리고자 오스트리아 정부 훈장수여가 있었고, 한국정부에서는 국민포장(1972), 국민훈장 모란장(1996)을 수여했다.

이 건물은 그동안 몇 차례의 수리가 이루어졌으며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마리안느와 마가렛 주택은 세상 사람들에게 새로운 주목을 받고 있다.

####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사택은 관사 지역의 약간 높은 언덕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곳에 위치한다.

평면은 동서를 축으로 중앙에 복도를 두고 그 양쪽에 각 실을 배치하고 있는 방형 건축이다. 정면은 남향으로 2개의 방과 거실 및 마루가 있고, 북쪽에는 욕실과 화장실, 주방, 뒷방이 위치한다. 주출입구는 동쪽이 된다. 바닥은 다다미방 구조였으나 후대에 보일러로 방식으로 교체되었다. 각 실을 구분하는 칸막이벽은 목구조로 되어 있다. 천장은 합판반자 위에 벽지로 마감하였다.

창문은 각 실마다 위치하며 벽면에 비해 넓게 개방된 모습이다. 외벽의 창문 상부에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캐노피를 두었다. 주변의 조적 상태를 보아 후대에 캐노피가 설치된 것으로 판단된다.

지붕구조는 모임지붕 형태로 벽돌벽 위에 도리를 깔고 방형단면의 서까래를 걸친 구조이다. 서까래 위로 개관을 덮고 금속제 기와로 마감하였다. 건축 당시에는 일본식 기와를 사용하였으나 후대에 교체한 것으로 보인다. 보일러실과 주방의 돌출부분, 부출입구 상부는 모두 외쪽지붕이다.

사택은 적벽돌 구조에 일본식 지붕마감과 내부 수장이 그 특징을 이룬다. 건축

에 사용된 적벽돌은 한센인들이 직접 제작하였다. 일제강점기의 열악한 환경안에서 환우들의 노동력으로 건축이 이루어진 점은 근대건축사 안에서 주목받을 가치가 충분하다. 그리고 일본식 적벽돌 구조의 주택에 대한 건축기술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이외에도 마리안느와 마가렛이 사용하던 종교적 유품과 생활 도구들이 그대로 남겨져 있어 평생을 봉사에 헌신해온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주된 수리는 난방방식의 전환과 우수에 따른 건축적인 보완과 마감재 교체가 주를 이룬다. 일본식 기와를 금속제 기와로 교체하였고, 다다미방을 보일러 방식으로 바꾸었고, 창호상부에 캐노피를 설치하였다. 내부 마감은 기존의 틀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건축 당시의 분위기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건물은 구조적으로 안정되고 관리 상태도 양호하다. 건물 주변 수목의 관리와 배면 및 동측면 경사지의 배수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건물도 더욱 안정될 것으로 본다.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은 양호하다. 소록도내 관사 지역에 건축된 여러 관사중의 하나이다. 국내 최대의 한센병 환우들을 위한 특수시설에 종사하던 직원들의 숙소가 언덕을 따라 산재하고 있는 곳으로 평화로운 마음의 휴식처와 같은 장소로 보인다. 환우들과 함께 살아갔던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손길이 녹아 숨쉬고 있는 곳으로 육체적인 아픔과 영혼의 아픔까지 치유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기에 충분하다.

국립소록도병원 당국과 고흥군의 적극적인 의지와 소록도 본당신부 및 천주교신자 환우들의 적극적인 사랑은 이 주택이 문화재로 등록되기에 충분한 환경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건물의 외적 환경은 양호하다. 환우들이 손수 일궈낸 흔적이 가득하다. 주변 언덕과 건축물, 자연환경은 자체가 공원과도 흡사하며, 이미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 보호를 받고 있는 근대건축유산이 산재하고 있다.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대상 건물은 봉사자의 사택으로 함께 아픔을 나누던 이들의 휴식처였다. 국립소록도병원이라는 특수시설에 연관된 환우들을 돌보던 많은 직원과 봉사자들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사랑의 업적을 남긴 마리안느와 마가렛이 거주하던 사택은 잔존하는 여러 사택중에서도 대표성을 띠기에 충분하다.

시민들에게 사랑의 가치를 드높일 수 있는 장소로써 활용된다면 이는 문화재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일로 부합된다.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한센병의 완전한 퇴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아픈 역사를 기억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환우들의 아픈 역사가 깃든 장소이지만 또 다른 세상의 아픔을 위로받고 치유받는 장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일제강점기의 건축 상황이 확연히 드러나 있고, 인간의 내적외적 아픔을 치유하는 장소가 되어 사회에 기여하고 활용되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 기타사항

마리안느와 마가렛이 사용하던 종교적 유품과 생활 도구들이 보존되고 있어 이에 대한 목록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한센병에 관련한 특수 시설안에 적벽돌을 사용한 일본식 건물이다. 기존의 일본식 주택은 목조가 주를 이루지만 대상 건물은 적벽돌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건축에 종사한 이들의 구성원이 나환우라는 점은 특기할 사항이다.

7) 등록가치 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사택 1동을 등록 대상으로 정하고 이외 유품과 주변 수목들도 보호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본다.

8) 기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명칭 : 마리안느와 마가렛 사택

<○○○ 문화재전문위원>

1) 개요

소록도 한센인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실천하였던 마리안느와 마가렛이 약 40년간 거주하였던 주택이다. 마리안느와 마가렛은 오스트리아와 폴란드 태생으로 오스트리아 인스브룩 간호학교를 졸업 후 1962년부터 2005년까지 소록도에서 한센인들을 위한 자원봉사와 의료 활동을 하였다. 소록도는 크게 관리인 거주지역과 한센인 거주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주택은 일반인 거주지역의 약간 높은 구릉 위에 위치하고 있다. 1938년에 소록도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한 벽돌로 건축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건축물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마리안느와 마가렛이 소록도 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이후 한동안 공가로 방치되어 있던 것을 최근 소록도 천주교 성당 관계자들이 중심이 되어 당시의 모습을 재현, 교육의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이 주택은 일제강점기에 건립된 건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붉은 벽돌구조 양식이다. 주택의 평면은 내부에 설치된 소위, 숙복도를 기준으로 전, 후 2열의 실들로 배치되어 있다. 각 실들은 거실, 욕실과 화장실, 부엌, 침실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침실의 한쪽 벽면에는 외부로 돌출시켜 수납공간을 마련하였는데 이곳은 당시 한센인들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침실 바닥은 본래 다다미이었던 것을 보일러로 교체하였다. 지붕구조는 내부에 설치된 천정으로 인해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벽돌로 쌓은 외벽 위에 방형의 도리를 돌리고 그 위에 역시 방형의 서까래를 얹은 것으로 보인다. 외벽에 면한 창호와 출입문 위에는 모두 캐노피를 설치하였고 좌측면 모서리 부분에 원형의 창호를 두어 부분적으로나마 장식적인 효과를 연출하고 있다. 침실 내부에는 각각 마리안느와 마가렛이 사용하였던 생활 용품 등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어 당시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사료가 되고 있다.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주택 시설 중 침실 바닥이 본래의 다다미에서 보일러로 교체되는 등 일부 시설에서 원형에서 변형되었지만, 내외부에 설치된 창호 등은 원형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전반적인 건축물의 구조는 안정적이며, 관리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소록도라는 지역적인 특성과 일반인들에게 개방되는 공간이 한정적인 관계로 시설물에 대한 보존, 관리 여건 및 주변 환경은 매우 양호한 상태로 판단된다.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마리안느와 마가렛은 평생 한센인들에게 의료봉사를 실천한 인물로서 소록도의 역사와 함께 이들의 헌신적인 삶을 널리 알리고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등의 문화재 활용계획의 측면에서도 부합된다.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이 주택은 소록도의 기타 역사적 사료와 함께 마리안느와 마가렛이 거주했던 두 분의 일상이 담긴 곳으로 소록도에서 한센인들이 겪었던 현대사의 아픈 시기를 같이 이겨낸 역사적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 기타사항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침실 내부에는 각각 마리안느와 마가렛이 사용하였던 생활 용품 등을 그대로 재현하는 등 당시의 생활상을 살필 수 있어 동일시기에 건립된 다른 주택과 차별적인 특징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7) 등록가치의건(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소록도 마리안느와 마가렛 사택은 근대시기에 건립된 주택건축으로서의 건축적 가치와 함께 소록도라는 지역적인 특징속에서 한센인들과 관계된 역사적 가치가 함께 하고 있어 등록문화재로 등록,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8) 기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등록문화재 명칭 부여 기준에 따라 '고흥 소록도 마리안느와 마가렛 주택'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11. 「남대문로 2층 한옥 상가」 문화재 등록

가. 제안사항

-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남대문로 2층 한옥 상가」의 문화재 등록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남대문로 2층 한옥 상가」의 문화재 등록 신청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홍국생명보험
- (2) 대상문화재명 : 남대문로 2층 한옥 상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4가 71-1
  - 소유자 : ㈜홍국생명보험
  - 수량 : 1동
  - 면적 : 연면적 145.46㎡
  - 건립시기 : 1910년~1920년대
  - 구조 : 연와조 한식기와, 2층
- (3) 신청내용
  - 남대문로 2층 한옥상가 등록문화재 등록

라. 검토의견<관계전문가 현지 조사('16.3.14.)>

- 문화재위원 ○○○
  - 서울시내 한옥상가 건물이 거의 사라진 이 시점에서 현 위치 보존이 가능할 수 있도록 문화재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등록시 문화재 명칭
    - 1안) 남대문로 한옥상가                      2안) 남대문로 한옥상가1
    - 3안) 남대문로4가 한옥상가                4안) 남대문로 흥국생명(주) 4호관
    - 5안) 남대문로 흥국생명(주) 소유 한옥상가
- 문화재전문위원 ○○○
  - 서울의 대표적 간선도로인 남대문로에 일제강점기에 건설된 상가건축의 전형적인 형식이며, 현재 유일하게 남아있는 건물로서,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가치도 높지만 이 건물의 장소성은 독보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 도심에 위치한 2층 한옥 상가의 경우 우리나라 전통주거방식과 달리 2층으로 된 익숙하지 않은 형태로 인해 그 가치를 주목 받지 못하고 개발에 밀려 점차적으로 멸실되어 가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상황에서 본 2층 한옥 상가는 당시 상업건축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구)한국은행 본관으로 이어지는 남대문로의 과거 건축선을 회복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향후 도시문화적 측면에서도 남대문로 상업가로의 역사적 의미를 새롭게 재해석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됨.
- 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록문화재 명칭 부여 기준에 따라 ‘서울 남대문로 2층 한옥 상가’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6명, 원안가결 6명

붙임 : 조사보고서 1부

##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남대문로 2층 한옥 상가 (현 : 흥국생명 4호 별관)

2. 용 도 : (현) 상업시설 (원) 상업시설

3.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4가 일반 71-1

4. 소유자 : 흥국생명보험(주)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4가 일반 71-1)

### 5. 건축물 개요

- 건축구조 : 벽돌 조적조+한식기와
- 준공일 : 1910년대로 추정
- 수량 및 면적 : 1동, 건축면적 72.73㎡, 연면적 145.46㎡
- 층수(높이) : 2층

### 6. 조사자 의견(2015.03.17)

#### <문화재위원 ○○○>

#### 1) 개요

1910년대에 건립되었을 것을 추정되는 이 건물은 10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소유주가 바뀌면서 용도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이에 따른 건축의 공간적, 재료적 변화가 꾸준히 생겼던 서울 시대의 대표적 유구이다.

비슷한 시기에 3채의 한옥상가가 이어져 건립되었으나 현재는 옆의 두채는 철거되었고 인접한 북쪽에는 대규모, 고층의 호텔이 신축되어 그 호텔 접근로의 모퉁이에 잔조하게 된 상황에 처 있다.

####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1900-1910년대에 서울 남대문로를 중심으로 종로 등, 주요 간선도로 변에는 한양절충식, 한옥상가가 2층으로 연이여 건립되는 붐이 일어났다. 이는 중국, 일본에서도 근대 초기에 서양의 건축문화가 도입되면서 자국의 전통건축기술자들이, 서양 사람들에 의해 지어지는 새로운 건축을 보고 자발적으로 학습하여 새로운 형태의 건축을 만들어 냈던 과도기의 공통적 현상으로, “類似 西洋式”, “擬洋風” 등으로 불렸으며 특히 한국에서는 “韓洋折衷式”, “韓屋店鋪”, “韓屋商家(商街)” 등으로 불렸던 형식의 건축물이다.

공통적 특징을 보자면, 당시까지는 단층 건물이 주류였던 상황에 2층의 건물들이 연이어 지어졌으며 목조 가구식 구조의 전통에서 벽돌(주로 진돌) 조적식 건축으로 바뀌었으며 지붕은, 전통적 지붕틀에서 탈피하여 서양식 목조 트러스를 설치하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1층은 상점으로, 2층은 주거로 사용하는 사례도 있었으나, 본 신청건물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것이 없다.

상업건물이 주였으므로 외부에는 출입문, 창문 등에 목재틀과 난간 등이 설치되었는데 그 장식은 당시에 유행하던 문양들이 채택되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건물들이 간선도로 양쪽에 이어져 있어서 개항기와 근대초기 서울의 경관을 특징 있게 이루어내던 요소들이었으나 급격한 도심 재개발에 의해 모두 없어지고 본 신청 건물만 유일하게 남아 있다고 판단된다.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외부)벽돌 조적조 외부에 페인트 도색을 한 것 외에는 외부마감에 큰 변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층의 창호는 재료에 변화가 있었고 1층은 오랜 세월 동안 용도에 맞게 개변조를 거듭하여 원형을 잃었다고 판단된다. 지붕의 기와는 새 재료가 얹혀 있기는 하지만 원래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내부)내부에 설치되었을 벽과 관련 구조/시설물 대부분은 철거되어 하나의 큰 공간에 부속실 하나가 구획되어 있는 형상이다. 2층 연결계단의 위치와 형태(재료)는 변형된 것으로 여겨지며 전체적으로 새로운 마감재가 설치되었다.

\* 외관은 대단히 노후된 것으로 보이나 벽, 2층 바닥, 지붕에는 현 소유주가 지속적인 보수보강을 시행하여 비교적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신청 건물은, 지금은 퇴락하여 위험한 구조물로 보이나 소유주의 꾸준한 관리와 유지 보수로 건조물로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 상태이다. 소유주가 서울 원도심의 역사적 유적과 유물을 문화재로서 보존, 관리하며 나아가서는 시민들에게 공간 제공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신청건물의 주변환경은, 북측 인접대지에 대규모 호텔이 신축되었으며 그 외에도 고층건물군이 에워싸고 있는 상황이다. 남대문로 건너편에는 남대문시장의 상업건물들이 연이어져 있다.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승례문과 신청건물만이 조선시대와 개항기 이후 근대서울의 도시적 맥락(건축물, 건축선, 도로형상, 경관요소 등)을 보여 줄 수 있는 마지막 유구이다.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서울 중심지 대표적 대로변의 유구를 공공의 활용에 제공하기로 한 계획은 도심지 근대유구의 활용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문화재 등록 신청 시에 제안한 계획대로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격변하는 현재의 경제적 여건과 사회, 문화적 변동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문가들과 관련 기관들이 긴밀히 협조, 자문하여 소유주와 시민들에게 유익한 공간으로 지속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기타사항

(이 유구를 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한옥상가 유구에 대하여 파악하고 후속 등록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20세기 초에 남대문로와 종로 일대에 꾸준히 건립되었던 수많은 한양절충, 한옥상가들이 도심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현재는 거의 멸실되어 있는 상황이다.

7) 등록가치의건(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등록가치)

서울시대 한옥상가 건물이 거의 사라진 이 시점에서 이 건물은 반드시 현 위치 보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문화재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보존부분)

외부: 전체(단, 페인트를 제거하여 원 재료의 면이 드러나도록 할 필요 있음/창호의 원형복원)

내부: 현재의 마감을 제거하여 원래의 구조들을 규명하여 복원도면을 작성한 후, 활용목적에 맞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8) 기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1안 : 남대문로 한옥상가

2안 : 남대문로 한옥상가1

3안 : 남대문로4가 한옥상가

4안 : 남대문로 흥국생명(주) 4호관

5안 : 남대문로 흥국생명(주) 소유 한옥상가

<문화재위원 ○○○>

1) 개요

서울의 대표적 간선도로인 남대문로에 일제강점기에 건설된 상가건축의 전형적인 형식이며, 현재 유일하게 남아 있는 건물임.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조적조 벽체위에 왕대공 트러스를 설치하고 지붕을 한식기와로 마감한 일제 강점기의 전형적 상가와 사무 또는 주거공간이 복합된 건축물로 양식과 한식이 절충된 건물임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외관은 원형이 많이 남아 있으나 내부는 트러스와 2층 바다 구조를 제외하면 원형이 남아있지 않음.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소유자의 보존 의지가 상당히 강하여 보존관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후면 경관은 나쁘나 전반적인 주변환경은 양호함.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보존관리 계획과 활용계획의 부합성은 높음.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소유주가 대상 건물을 보존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 활용방안의 실현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됨.

다. 기타사항

내부 공간의 원형 고층에 유의하여 복원하여야 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서양식 절충형 건물은 다수 존재하나 복합형 상가 건물은 드물고 특히 서울의 중심대로변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건물임으로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가치도 높지만 이 건물의 장소성은 독보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

7) 등록가치의건(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8) 기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문화재전문위원 ○○○>

### 1) 개요

남대문로에 건립된 2층 한옥 상가 건물로서 근대이후 도시한옥의 진화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료이다. 정확히 언제 건립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1910년-20년대에 건물의 소유자가 이근홍(李根洪)씨로 되어 있어 대략적인 그 시기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최근까지 이곳에는 모두 3동의 한옥 상가가 있었으나, 20층 규모의 호텔이 신축되는 과정에서 나머지 2동은 이미 철거되어버린 상황이다.

###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오늘날 종로 및 남대문로 일대에서 보기 드문 2층 한옥 상가로 벽돌 조적조의 벽체에 목조 트러스의 박공지붕으로 외관 형태를 구성하였으며, 목조 트러스 위에는 개관을 깔고 그 위에 한식기와를 얹었다. 내부구조는 안쪽에 설치된 나무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연결되어 있어 본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는 있지만, 천정 및 바다 등의 마감재는 오랜 기간 동안 수차례 보수과정을 거치면서 변화되었다. 2층 외벽에는 수직창을 설치하여 전체적인 입면의 수직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창호 위, 아래에는 각각 수평방향의 화강석 창대석을 두어 안정감을 더하였고 1층의 개구부와 창호 위에는 아치로 장식하였다. 건축 형태상 특징적인 것은 우측 배면 지붕의 내림마루 위에는 굴뚝이 설치되었던 흔적이 확인되고 있는데 실제로 일제강점기에 촬영된 사진 자료에 의하면 박공지붕 위로 벽돌로 쌓아 올린 굴뚝의 모습을 볼 수 있어 동시에 지어진 일본식 가옥과 비교되는 특징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건축 규모와 외관, 구조 등은 전체적으로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나, 창호와 개구부 등의 재료는 현대적인 재료(금속 등)로 변화하였고 일부 출입문과 창호의 경우 한동안 사용하지 않아 상당 부분 훼손된 흔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원형의 흔적을 충분히 살펴볼 수 있어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배면 벽체의 일부가 훼손되었지만 2층 바닥 슬라브 등 주요 구조체에는 보강재(H형강)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다만, 향후 활용 차원에서 새로운 기능으로 사용할 경우 용도에 맞게 추가적인 보수 및 구조적인 보강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소유주의 보존의지가 확고하므로 현황조사, 정밀실측, 고증을 거쳐 원래의 모습으로 충실히 복원하여 근대시기 남대문로 밀집되었던 2층 한옥 상가 시설에 대한 역사적 가치와 의미에 기초하여 역사체험공간이나 휴게시설 등으로 충분히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5)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현재 남대문로에 현존하는 유일한 2층 한옥 상가로 조선시대 후기까지 유지되었던 선혜청(宣惠廳)의 존재로 인해 이 일대가 서울 중심상권으로 자리 매김 하였던 곳임을 입증해 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기타 유형의 근대건축물에 비해 역사적, 건축사적 가치가 한층 높다고 할 수 있다.

### 6) 등록가치의건(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도심에 위치한 2층 한옥 상가의 경우 우리나라 전통주거방식과 달리 2층으로 된 익숙치 않은 형태로 인해 그 가치를 주목 받지 못하고 개발에 밀려 점차적으로 멸실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2층 한옥 상가는 당시 상업건축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구)한국은행 본관으로 이어지는 남대문로의 과거 건

축선을 회복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향후 도시문화적 측면에서도 남대문로 상업가로의 역사적 의미를 새롭게 재해석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 7)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등록문화재 명칭 부여 기준에 따라 '서울 남대문로 2층 한옥 상가'가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 12. 「김천 나화랑 생가」 문화재 등록

### 가. 제안사항

- 경상북도 김천시 소재 「나화랑 생가」의 문화재 등록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나화랑 생가」의 문화재 등록 신청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나화랑 생가
  - 소재지 : 경상북도 김천시 봉산면 인의리 722
  - 소유자 : ○○○
  - 수량 : 3동
  - 면적 : 건축면적 149.4㎡ (안채 46.5㎡, 사랑채 76.4㎡, 창고 12.35㎡)
  - 건립시기 : 1921년
  - 구조 : 목조주택, 1층
- (3) 신청내용
  - 김천 나화랑 생가 등록문화재 등록
- (4) 신청인 의견
  - 한국 가요사에서 근·현대 가요를 토착시키며 1980년대 이전 대중가요 정착에 크게 이바지한 중요한 작곡가인 나화랑의 생가로서 문화적 가치가 있음

### 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의견

- '15.3.17. / 관계전문가 ○○○, ○○○, ○○○
  - 한국전쟁 이후 많은 대중가요를 작사·작곡하였던 고려성, 나화랑 형제의 생가로서, 건축적 측면에서는 뚜렷한 양식적 가치와 보존상태가 미흡하여 건축적 가치는 높지 않음.
  - 따라서 대중가요 음악가로서는 처음 등록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한국근대 대중가요사에서의 위상과 대표성 등에 대한 검토 후 등록가치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 ○ '16.2.29. / 문화재전문위원 ○○○

- 나화랑은 광복 후 한국 대중음악계를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 대중음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고, 고향인 김천에서 '나화랑가요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또 인근에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나화랑 고려성 형제 노래비'가 건립되어 있음.
- 그러나 한국 대중음악 발전에 더 많은 역할과 기여를 한 분들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유사한 사례를 조사하여 함께 논의해야 할 사항임.

### 마.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건축적 측면에서 생가의 보존·관리 상태가 미흡하고 용도변경 등 물리적인 변화가 적지 않아 등록문화재로서의 등록 가치가 높지 않음
- 이에 우리나라 근현대 가요사에서 나화랑에 대한 인물사적 가치 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관련분야 일제조사를 통해 보완연구가 이루어진 후 등록을 재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바. 의결사항

- 보류
  - 유사 사례에 대한 종합조사 후 재검토함
- 출석 6명, 보류 6명

붙임 : 조사보고서 1부

# ‘나화랑 생가’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현) 나화랑 생가 (구)

2. 용 도 : (현) 주택 (원) 주택

3. 소재지 : 경상북도 김천시 봉산면 봉계길 214-15

4. 소유자 : ○○○

## 5. 건축물 개요

- 건축구조 : 목조
- 준공일 : 1921년 (추정)
- 수량 및 면적 : 3동, 연면적 46.5㎡(안채), 연면적 76.4㎡(사랑채), 연면적 26.5㎡(창고)
- 층수(높이) : 각 1층

## 6. 조사자 의견(2015.03.17)

<2015.03.17./문화재전문위원 ○○○>

### 1) 개요

- 본 가옥은 1950년대 ~ 60년대 우리나라 가요계에서 활동하며 ‘무너진 사랑탑’ ‘청포도사랑’ ‘열아홉순정’ 등을 작곡한 故 조광환(예명 나화랑)이 태어나 자란 곳이다.
- 나화랑의 큰형인 故 조경환(예명 고려성) 역시 대중가요 작사가로 당시 나화랑과 같이 활동하였다.
- 안채와 사랑채 및 창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본 가옥의 건축시기는 불확실한데, 사랑채의 경우 종도리 밑면에 쓰여있는 상량문(上元五十八年 辛酉年)과 건축형식을 보면 1921년으로 여겨진다. 안채는 그보다 조금 앞서는듯 하지만 정확한 년대는 알 수 없다.
- 1921년 본 가옥에서 출생한 나화랑은 1983년 향년 62세로 타계하였고, 작곡생활 40여년간 480여곡을 작곡하였다.
- 2009년 김천 지지문화공원에 고려성 나화상 형제의 노래비를 세웠고, 2013년에는 나화랑의 흉상을 제작하여 건립하였다.

###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一자형 평면의 안채는 정면 5칸 측면 2칸 규모로, 안방 2칸 마루 1칸 건넌방 1칸 주방 1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후면에 퇴칸을 두고 있는 형식으로 조선 후기 남도지역의 평면형식을 반영하고 있다.
- 사랑채는 ㄱ자로 격인 평면으로 정면 5칸 측면 4칸 규모이다. 5량 구조로 전면에 퇴칸을 두고 있으며, 후면으로 격인 공간은 3칸 방이 연이어 있는데, 중사랑의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 안채와 사랑채 모두 마루를 1칸으로 구획하고 있는데, 이는 반가의 형식보다는 일반 민가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 지붕가구의 경우 종도리가 높지 않아 전체적으로 지붕이 낮아 보인다. 서까래도 그 크기가 작은 편이어서 지붕하중을 지탱하기에 부족한 듯한데, 이러한 까닭에 적심과 흙을 많이 얹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 안채 전면에 설치된 유리문은 후대에 보온을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여겨진다.

###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생활이 이루어지는 안채는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편이지만 사랑채의 경우에는 비어있기 때문에 관리가 잘 안되어서 많이 노후화되었다.
- 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안채의 후면에 공간을 확장하고(보일러 설치) 부엌 등 일부 공간을 변형하였지만, 원래 모습을 추정하는 것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
- 안채와 사랑채 모두 기와지붕은 그 하중을 이기지 못하여 곧 쓰러질 것 같은 상태이다. 특히, 안채에 면한 사랑채의 팔작지붕은 훌처마를 비교적 길게 내밀어 처마공간이 큰 편인데, 추녀가 거의 내려앉아 허물어질 지경에 이르렀다.

###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비교적 평탄한 마을의 지형과 평지에 위치하고, 가옥의 주변으로는 텃밭과 일반 가옥들이 자리잡고 있다.
- 작곡가 나화랑을 기억하고 그의 노래를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나화랑 가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었다. 이 모임의 활동을 통하여 마을 입구에 나화랑 생가 안내판이 만들어졌고, 지지문화공원 안에 노래비와 흉상이 각각 건립되어 있다.
- 마을 뿐만 아니라 김천지역에서 나화랑에 대한 추모열기는 높은 편이다. 나화랑 대표곡 CD가 제작되었고, 출판사에서 평전을 출판하여 배포하였으며, 2014년에는 김천실내체육관에서 제1회 나화랑 가요제가 개최되었다.
- 추모모임을 중심으로 이들 형제 음악가에 대해 애정을 갖고 되새기고자 하는 의지는 높은 편이고, 본 가옥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보존여건은 좋은 편이다.

###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 특별한 활용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문화재로 등록될 경우 인근에 위치한 고려성 나화랑 노래비와 흉상 등과 연계하여 이들 형제가 사용하였던 물품 등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 관리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분께서 맡아서 하되 모임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구체적 방안이 마련된 것은 아님)

###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현재 등록문화재(주거시설) 중 인물과 관련된 것은 제84호 서울 원서동 고희동 가옥을 비롯하여 총 21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문화예술 인물들과 관련된 등록문화재는 총 10건으로 파악된다.
- 미술(조각포함)과 관련된 인물의 주거가 5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 원서동 교회동 가옥(84), 서울 동선동 권진규 아틀리에(134), 서울 누하동 이상범 가옥과 화실(171), 창원 소담동 김종영 생가(200), 용인 장육진 가옥(404) 문학관련 인물의 주거가 4건

서울 홍지동 이광수 별장터(87), 서울 평창동 박종화 가옥(89), 청도 이호우와 이영도 생가(293), 부여 신동엽 가옥 터(339)

마지막으로 음악과 관련된 서울 홍난파 가옥(90)이 1건이다.

- 등록문화재 중에서 인물과 관련된 문화재의 등록은 크게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과 관련된 인물의 주거나 전 대통령 주거, 문화예술 관련 인물 등이 각각 하나의 카테고리를 이루고 있다.
  - 이 중에서 독립운동 관련 인물과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비록 건축적 가치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역사적 가치에 대한 평가가 높기 때문에 등록에 큰 이견이 없을 수 있다. 그렇지만 문화예술 관련 인물의 주거시설에 대해서는 등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텐데, 각 분야에서 어느 정도 대표성을 띠고 있는가 하는 것에서 보다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다.
  - 등록문화재 운영 초기에는 하나하나의 건물과 인물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등록이 이루어졌지만 현재 그 대상이 넓어지는 추세에서 보면 역사적 가치와 더불어 건축적 가치 역시 중요한 기준이 될 필요가 있다.
- 7) 등록가치의건(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본 가옥은 한국전쟁 이후 많은 대중가요를 작사하고 작곡하였던 고려성 나화랑 두 분 형제의 생가로서 대중가요에 하나의 획을 그은 업적을 기리고자 문화재로 등록신청하였다. .
  - 그렇지만 본 가옥의 건축적 가치는 높지 않다. 이와 같은 유형 혹은 형식의 주거시설은 전국적으로 꽤 많기 때문이다.
  - 다만, 대중가요사에서 두 분 형제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객관적 판단기준이 없는 편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중가요 음악가로서는 처음 등록신청이 들어온 까닭에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기준설정이 필요하다.
  - 홍난파 선생의 경우에는 생가와 더불어 악보 원판도 등록문화재 제479호로 등록되어 있다. 사실 문화예술가의 경우 그 인물의 평가는 태어난 곳(생가)에서도 그가 활동하였던 무대와 결과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 따라서 본 가옥에 대한 등록여부는 건축적 가치가 크지 않은 만큼 우선 대중음악사에서 선생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남아있는 결과물 혹은 유품 등에 의하여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2015.3.17. / 문화재전문위원 ○○○>

##### 1) 개요

- 한국 대중가요계 1세대 작곡가로 평가받는 나화랑(본명 조경환, 1921~1983)의 생가

- 나화랑은 대표작 ‘무너진 사랑탑’(1958년 발표, 반야월 작사, 나화랑 작곡, 남인수 노래) 등 다수의 유명 대중가요를 작곡

#####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안채, 사랑채, 창고, 대문채 등으로 구성된 전통양식 주택으로 전체적으로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
- 중정형 안마당을 중심으로 一자형 안채의 전면에 ㄴ자형 사랑채가, 직각방향으로 一자형 창고가 배치되어 전체적으로 ㄱ자형 배치를 구성하고 있으며, 사랑채 앞쪽에 사랑마당이 있고 그 앞쪽에 대문채가 위치
- 건축연도는 사랑채의 상량문 ‘上元五拾八年辛酉八月拾參日未時立柱上樑’에 의하면 1921년으로 추정됨

#####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모든 건물이 전반적으로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심각한 상태이며 부분적으로는 원형을 훼손하고 개보수
- 안채는 2000년경 처마흙통 설치, 마루 앞쪽 알루미늄창호 설치, 부엌 입식개조 및 확장, 부엌 뒤편 보일러실 증축 등의 개보수 공사 시공
- 사랑채는 2010년경 왼쪽마루 상부도리 균열로 인한 철골보강 등의 개보수 공사 시공

#####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등록후 보수하여 지속적으로 거주할 예정이고 김천시 외곽 농촌 마을내에 위치하며 소유주가 주변 토지도 나대지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은 양호

#####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 소유주는 등록후 보수하여 지속적으로 거주한다는 계획 이외에는 구체적 활용계획을 제시하지 못함
- 현재로서는 구체적 활용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거주의 불편함, 건물의 노후화를 개선하고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됨
- 나화랑 기념사업회에서는 소유주의 주변 대지에 기념관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제시하였으나 규모, 내용, 재원조달, 운영방식 등 모든 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한 상태

#####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현재 주거건축물이 다수 등록되어 있으며 이들에 비해서 나화랑생가는 양식적 특성, 건축적 가치 모두 미흡하고 건축원형의 보존상태도 부실
- 인물관련 주거건축물로 등록된 사례는 21건이 있으며 대부분 정치가, 독립운동가, 예술가와 관련된 주거건축물
- 한국 대중가요사 측면에서 인물관련 생가가 등록된 사례는 아직 없으므로 등록 가치 판단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

##### 7) 등록가치의건(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건축적 측면에서는 뚜렷한 양식적 가치가 미흡하고 또한 보존상태도 양호하지 않으므로 등록가치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나화랑가옥은 건축적 가치 측면보다는 인물사적 측면에서 등록가치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한국 대중가요사에서 나화랑이 차지하는 위상과 대표성에 대한 조사 후, 대표성이 인정될 경우 등록가치를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음

8) 기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등록시 명칭은 나화랑생가
- 나화랑과 같은 음악관련 예술가의 경우 생가 보다는 LP판, 악보, 악기 등 음악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유물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것으로 판단됨

<2015.03.17./○○○○>

1) 개요

사랑채 상량문(上元五拾八年辛酉八月)으로 보아 1921년에 지은 것으로 안채와 사랑채가 튼 口자형을 이루고 있는 한식목조의 근대한옥 임.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안채는 一자형으로 정면5칸, 측면 1칸 규모이며, 사랑채는 정면 4칸, 측면 4칸의 L자형 집임. 두 채 모두 네모 기둥을 세우고 간략한 민도리 홀처마에 한식골기와를 얹었음.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건물의 주요구조재(기둥, 보, 도리 등)로 가구한 목구조의 기본 뼈대는 비교적 잘 간직하고 있으며, 생활 편의를 위하여 변용한 공간(대청 샷시, 입식부엌 등)과 노후한 부위를 철골 등으로 보강한 곳이 몇 군데 있음.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신청 주택의 주변은 전답으로 이루어진 농촌의 전형적인 풍경임. 현재의 주택은 변용과 보강 부분들을 원래 모습대로 보수할 경우는 근대기 한옥으로서의 활용 여지는 있다고 봄.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현 소유자의 보존 관리 계획 의지가 뚜렷하나 구체적인 건축관리 및 활용 계획은 미흡함.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현재 나화랑 가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가 유적 답사 계획 등이 잘 이루어진다면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봄.

다. 기타사항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기존 등록문화재의 근대한옥과 건축양식적인 측면에서 비교해 볼 때 문화재적 가치는 다소 미흡함.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건축물은 현재 주거 편의를 위하여 변용한 공간이 있고, 노후화된 부분을 임시적으로 보강한 곳이 있어 건축적 가치는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대중가요의 선구자인 나화랑이 태어난 생가라는 장소성과 한국근대가요사에서의 그의 명성과 역할에 비중을 두고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를 판단함이 좋을 것임.

<2016.2.29. /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나화랑(羅花郎, 1921~1983년, 본명은 조광환(曹曠煥). 대중가요 작곡가. 경상북도 김천 출생. 김천 봉계초등학교 및 김천고등보통학교 졸업하였고. 일본 동경의 중앙

음악학원에서 바이올린을 수학하였다. 작사가 고려성(高麗星, 본명 조경환 曹景煥)의 동생이기도 하다.

1942년 가수로 데뷔했다가, 1943년 포리돌레코드사에 작곡가로 입사하여 처녀작 「삼각산 손님」을 발표하였다. 광복 후에는 김천여자중학교 음악 교사로 근무하면서 「봉계초등학교 교가」, 「김천서부초등학교 교가」 등을 작곡하기도 하였다. 한국전쟁 중인 1952년 육군 군예대에서 활동을 하였고, 전쟁 직후인 1954년 공군 정훈음악대에서 군가 작곡 및 지휘자로 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1954년 12월 킹스타레코드사 전속 작곡가 겸 문예부장으로 입사하면서 본격적인 작곡 활동을 전개하였다.

1956년부터 KBS 경음악단 상임지휘자를 맡았으며, 대한레코드작가협회 창립 멤버이기도 하며, 1962년에는 라미라레코드사를 창설하여 직접 음반 회사를 경영하기도 했다. 62세인 1983년 세상을 떠났으며, 작품집으로는 1981년 회갑기념으로 출판된 『나화랑 창작가요집』 등이 있다.

2) 인물의 작품 세계

500여 편의 곡을 작곡한 사람으로 작품 세계도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작품 세계는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첫째, 한국 전통 민요를 바탕으로 한新民요 또는 민요풍의 대중가요 창작.

둘째, 서양의 맘보 리듬을 비롯하여 스윙, 탱고, 블루스 등의 리듬을 대중가요에 접목시킨 새로운 한국적 대중가요 창작.

셋째, 밝고 건강한 건전 가요 창작.

넷째, 한국적 정서와 시대적 정서가 결합된 대중가요 창작.

다섯째, 수많은 히트곡 발표. 대표적인 것으로는 「삼각산 손님」, 「얼아홉 순정」, 「닐너리 맘보」, 「무너진 사랑탑」, 「이정표」, 「청포도 사랑」, 「뽕 따러 가세」, 「님이라 부르리까」, 「푸른 꿈이여 지금 어디」, 「울산 큰애기」, 「행복의 일요일」 등이 있다.

또한 저서로 『나화랑 제1작곡집』(1958년), 『나화랑 제2작곡집』(1960년), 『나화랑 제3작곡집』(1981년) 등이 있고, 음반으로 작곡집 15매 및 편곡·제작한 한국 민요집 수백 종 등이 있다.

3) 인물의 위상과 대표성

광복 후 한국대중음악계를 선도한 대표적인 대중음악 작곡가 중 한 사람. 수많은 히트곡을 만들었으며, 이미자, 남일해 등을 발굴하여 유명 가수로 육성시켰고, 작곡가뿐만 아니라 음악제작자로 활동하면서 한국 대중가요 제작과 보급 및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4) 등록가치의견(인물사적 측면)

나화랑의 고향인 김천에서 ‘나화랑가요제’를 개최하고 있고, 또 인근에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나화랑 고려성 형제노래비’가 건립되어 있다. 나화랑 생가가 문화재가 되면 이것들과 연계되어 기념사업이 더욱 더 활기를 띠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나화랑은 광복 후 한국 대중음악계를 대표하는 한 사람이고 대중음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기는 하였지만, 그보다 더 많은 역할과 기여를 한 분들도 더러 있다.

나화랑의 생가가 국가 등록 문화재가 된다면, 그와 유사한 것들이 여러 건 신청



### 13. 「백용성 역 『조선글화엄경』」 문화재 등록

#### 가. 제안사항

- 「백용성 역 『조선글화엄경』」을 문화재로 등록하고자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백용성 역 『조선글화엄경』」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6.2.18)를 실시하고,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서울특별시청
- (2) 대상문화재

유물명	수량	규격	제작년대	재질	판종	소유자	소재지	비고
백용성 역 『조선글화엄경』	2식 (12책, 11책)	세로25.8×가로18.3 (cm)	1927년~1928년	종이	신연 활자본	동국대학교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 (3) 검토사항 : 문화재 등록 검토

#### 라. 참고사항

- 등록문화재 제629호 ‘백용성 역 『조선글화엄경』’은 기등록되어 있음.
  - 소장처 : 죽림정사
  - 수량 : 12책

#### 마. 검토의견(관계전문가)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6.2.18.)>

- ○ ○ ○ 위원
  - 등록문화재 제629호(2014.10.29.)인 죽림정사 소장본과 동일한 판본인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의 『조선글화엄경』은 우리나라 최초의 80권 화엄경의 국역본이자 후일 화엄학 연구의 초석이 되었다는 점, 또 불교 경전의 현대화라는 점에서 먼저 가치를 찾을 수 있음. 또한 1920년대 후기의 한글표기방식을 살필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가치임.

## 「백용성 역 『조선글화엄경』」 조사보고서

- 그러므로 완질본인 이동립 교수의 기증본, 한 질은 물론 국역자이자 편집 겸 발행인이었던 용성 스님의 옛 소장본 역시 가치가 적지 않음. 두 질 모두 등록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 ○ ○ ○ 위원

- 『조선글화엄경』은 우리나라 최초의 화엄경 국역본이고, 한글의 변화과정도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등록문화재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조선글화엄경』 12책 완질로서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하며, 『조선글화엄경』 11책은 제 7권이 결본이지만 백용성 스님이 소장하였던 역사성이 있음. 따라서 2질 모두 등록문화재가 될 수 있는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됨.

### ○ ○ ○ ○ 연구원

- 한국근대 불교사와 독립운동사(3·1운동)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백용성(白龍城) 스님이 한글로 번역간행한 불교경전으로서 근대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만한 가치가 충분함.

### <근대문화재과 의견>

- 해당 유물은 2014년도에 등록된 ‘등록문화재 제629호 ‘백용성 역 『조선글화엄경』’과 동일하며, 전적 2식 중 1식(12책)은 완질본과 백용성 스님 기증본 1식(11책)이며, 역사적 가치는 충분하지만, 인쇄본 등의 경우 합리적인 등록 기준을 마련한 후 추후 등록 검토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바. 의견사항

- 보류
  -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 기준 마련 후 재검토함
- 출석 6명, 보류 6명

붙임 : 「백용성 역 『조선글화엄경』」 조사보고서 1부.

1. 명 칭 : 백용성 역 『조선글화엄경』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3. 소유자 : 동국대학교
4. 조사자 의견

### <○ ○ ○ 위원>

#### 1) 현상

- 용성스님 기증본 제 1책 앞표지 가운데에 부분적인 손상이 있으나 나머지는 표지와 내용 모두 양호함.

#### 2) 내용 및 특징

조선글화엄경 / 백용성 역; 석시경 교정; 백용성 재교정 신인활자본 경성: 삼장역회, 1927-1928 12책: 사주쌍변, 반곽 20.3×14.0cm 무게, 반엽 14행41자, 상하향후어미; 25.8×18.3 cm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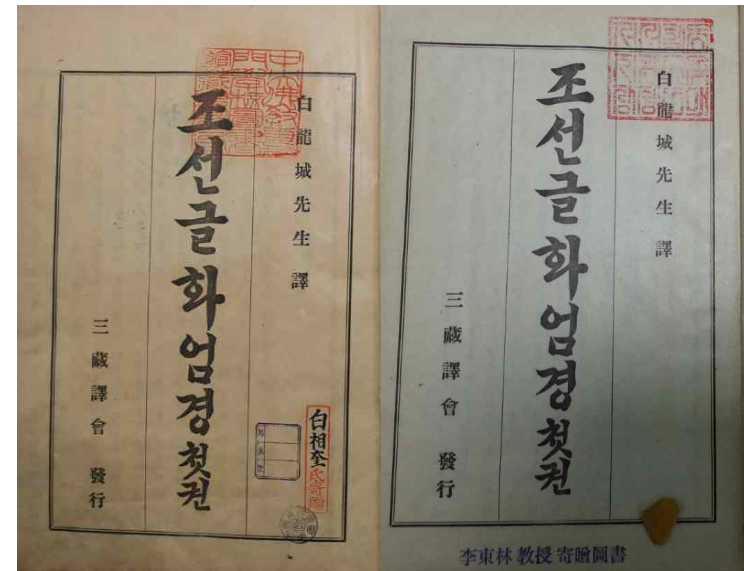
- 『조선글화엄경』은 백용성(1864~1940.2.24.) 스님이 이통현(李通玄, 635~730)의 『신화엄경론(新華嚴經論)]과 징관(澄觀, 738~839)의 『화엄경소(華嚴經疏)]를 참고하여 1926년 4월 17일부터 1927년 11월 13일(음력)까지 근 1년 7개월에 걸쳐 80화엄경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다. 백용성 스님의 속명은 상규(相奎), 법명은 진중(震鍾), 법호는 용성(龍城)이다. 1919년 3·1운동 때 민족대표 33인 중의 한 사람으로 불교계를 대표하여 독립선언서에 서명하였다. 결국 이 일로 수감되었는데, 수감 중에도 불교의 대중화, 중생의 구제에 대해 고민을 하다가 불경의 우리말 사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다. 곧 한문 불경을 우리말로 번역함으로써, 불교의 대중화와 민족의 독립역량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이다. 출옥한 뒤 1921년 3월에는 삼장역회(三藏譯會)를 조직하여 불경의 우리말 번역과 불교의 대중화를 위한 각종 포교서의 저술에 착수하였다.
- 『조선글화엄경』은 발행에 앞서 두 차례의 교정을 거쳤다. 제1차 교정은 발행 직전까지 연변(延邊) 용정(龍井)의 대각교당 책임자였던 석시경(釋時鏡)이 맡았다. 그는 이 책을 발행한 뒤인 1930년대 초반에는 불교원산포교소에 가난한 아동들의 교육시설인 명성학원을 설립하는 등 포교와 교육활동을 함께 한 스님이었다. 제2차(최종)는 용성스님이 직접 다시 교정하였다. 용성 스님이 화엄경을 국역하게 된 동기는 “타 종교의 비방과 도전에 대한 자극과 위기감”이었음을 후기에서 밝히고 있는데, 결국 불교의 대중화와 연계된다고 볼 수 있겠다. 한태식(보광)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조선글화엄경』의 특성은 “국역대본을 80화엄경으로 삼은 점, 산문체 번역에 대해 기준을 밝힌 점, 기야(Geya: 重頌, 應頌)는 생략하고, 가타(Gatha: 諷頌, 孤起頌)는 그대로 번역한 점”이라고 하였다. 간행당시에도 “조선문 화엄경 간행은 백용성 선사(의 후반생 필사적 노력의 결정체” (『불교』 43호, 1928.1)라는 평가를 받았다.
- 한편 『조선글화엄경』의 편집 겸 발행인은 백상규, 곧 용성스님이었고, 발행소는 모두 삼장역회이다. 전 12책은 1927년 11월 5일(제1책)부터 1928년 3월 28일

(제12책)까지 발행되었다. 그런데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2책부터 제5책까지의 발행 시기는 책의 차례와 동일하지 않고, 또 다른 세 곳에서 인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기독교관련 출판사인 창문사에도 의뢰하는 등 국역본을 하루라도 빨리 발행하고자 하였기 때문이었다.

<표1> 『조선글화엄경』의 책별 발행 상황

구분	발행연월일	인쇄소
제 1책	1927.11.5	한성도서
제 2책	1928.2.25	대동인쇄
제 3책	1928.1.10	기독교彰文社
제 4책	1928.2.20	한성도서
제 5책	1928.1.20	기독교彰文社
제 6책	1928.1.30	상동
제 7책	1928.2.10	상동
제 8책	1928.2.29	상동
제 9책	1928.3.7	상동
제10책	1928.3.25	상동
제11책	1928.3.26	상동
제12책	1928.3.28	상동

-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에는 동일한 판본의 『조선글화엄경』이 두 질 소장되어 있다. 한 질은 국어학자이자 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였던 이동림(李東林, 1923~1997) 교수의 기증본으로 12책 완본이다. 다른 한 질은 1책(제7책)이 결락된 결본이다. 「中央佛敎專門學校圖書館藏書之印」이라는 장서인이 찍혀있는 결본은 표제면 우측 아래에 「白相奎 氏寄贈」이라는 장방형의 인장 안에 용성스님의 속명인 “白相奎”를 묵서해 놓았다. 그러므로 이 기증본은 이 책의 국역자이자 편집 겸 발행인이었던 용성스님의 옛 소장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용성스님이 이 책들을 기증한 시기는 「消」라는 푸른색의 작은 원형의 인장이 찍혀 있고, 중앙불교전문학교(1930-1940. 중앙불교전문학교는 1940년 2월에 조계학원, 같은 해 6월에는 해화전문학교로 개칭되었음)의 장서인이 찍혀 있는 것으로 보아 일제강점기인 1940년 이전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런데 기증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1950년 6월 7일에 등록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표제지 이면에 “4283.6.7.”이라는 동국대학교 도서관의 등록 스탬프가 찍혀져 있기 때문이다.



[사진 1] <용성스님의 기증본>

<이동림 교수 기증본>



[사진2] 용성스님 기증본의 장서인, 등록인과 “消”印

3) 문헌자료

- 한태식, “백용성스님 국역 『조선글 화엄경』 연구”, 『대각사상』 제18집, 2012, pp.55-102.
- 한태식, “백용성스님의 역경활동과 그 의의”, 『대각사상』 제5집, 2002, pp.89-124.
- 한태식, “龍城스님의 후반기의 생애2: 대각교세의 확장파 해산”, 『대각사상』 제4집, 2001. pp.9-74
- 김광식, “백용성의 불교개혁과 대각교운동”, 『대각사상』 제3집, 2000, pp.65-98.
- 김광식, “일제하의 역경”, 『대각사상』 제5집, 2002, pp.45-83.

4)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등록문화제 제629호(2014.10.29.)인 죽림정사 소장본과 동일한 판본인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의 『조선글화엄경』은 우리나라 최초의 80권 화엄경의 국역본이자 후일 화엄학 연구의 초석이 되었다는 점, 또 불교경전의 현대화라는 점에서 먼저 가치를 찾을 수 있겠다. 또한 “머리말”을 “머스리말”, “둘째”, “셋

책” 등을 “둘스재”, “세스재” 등으로 표기하는 등 1920년대 후기의 한글표기방식을 살필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가치이다.

- 그러므로 완질본인 이동림 교수의 기증본 한 질은 물론 국역자이자 편집 겸 발행인이었던 용성 스님의 옛 소장본 역시 가치가 적지 않다. 두 질 모두 등록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5) 종합의견

- 등록문화재 가치 있음

### <○○○ 위원>

#### 1) 현상

- 『조선글화엄경』 12책은 동국대학교 이동림(1923~1997) 교수가 기증한 완질본과, 백용성 스님이 소장하였던 11책(제7권 결본)으로 두 종류 모두 잘 보존되어 있음
- 『조선글화엄경』 12책의 제1권은 표지가 약간 손상되어 있지만, 약간의 손질을 한다면 원형을 갖출 수 있음. 『조선글화엄경』 11책도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음

#### 2) 내용 및 특징

- 『조선글화엄경』은 백용성 스님이 불교경전 중 가장 방대한 화엄경 80권을 대상으로 최초로 국역한 것으로, 교학적으로 화엄학 연구에 크게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번역상 한글의 변화상도 엿볼 수 있음
- 『조선글화엄경』을 번역한 백용성 스님은 3·1독립선언 당시 불교계를 대표한 민족대표 33인 중의 한 분이다.

#### 3) 문헌자료

- 김광식, 「백용성의 불교개혁과 대각교운동」 『대각사상』 3, 2002.
- 김광식, 「일제하의 역경」 『대각사상』 5, 2002.
- 한보광, 「백용성스님 국역 『조선글화엄경』 연구」 『대각사상』 18, 2012.
- 한보광, 「백용성스님의 역경활동과 그 의의」 『대각사상』 5, 2002.

#### 4) 기타

- 『조선글화엄경』 12책 완질본은 현재 용성기념관에 소장되어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음

#### 5)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조선글화엄경』 12책(완질)과 11책(백용성스님 기증본)은 현재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잘 보존되고 있다.
- 위의 『조선글화엄경』 두 질은 모두 서지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인정됨
- 『조선글화엄경』 12책(완질) 제1권은 표지에 약간의 손상이 있으나, 수리를 통해 원상태를 보존할 수가 있음

#### 6) 종합의견

- 『조선글화엄경』은 우리나라 최초의 화엄경 국역본이고, 한글의 변화과정도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등록문화재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 『조선글화엄경』 12책 완질로서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하며, 『조선글화엄경』 11책은 제7권이 결본이지만 백용성 스님이 소장하였던 역사성이 있다. 따라서 2질 모두 등록문화재가 될 수 있는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 연구원>

#### 1) 현상

- 현재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1919년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의 한분이었던 백용성 선사 기증본(11책으로 한글 결본)과 이동림 교수(1923~1997, 동국대 재직) 기증본(12책 완본) 2종이 있다.
- 다만 백용성 기증본 『조선글화엄경』 첫권(1927년간)의 표지(덧씌운것) 좌하단이 상당부분 훼손되어 있음. 나머지 권들은 거의 상태가 양호하여 지금도 독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임.

#### 2) 내용 및 특징

- 백용성(1864~1940)의 법호는 용성(龍城), 법명은 진종(震鍾)이며, 속명은 백상규(白相奎)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919년 거족적으로 전개된 3·1운동 당시 불교대표 자격으로 민족대표 33인의 한분으로 참여하여 활동하다가 일경에 체포되어 2년여 동안 옥고를 치렀다. 이후 불교 개혁운동과 불교 경전의 번역과 대중화 작업에 매진하였다. 특히 조선총독부에서 사찰의 주지가 되려면 비구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전통적 조항을 삭제하려 하자 이에 반대하는 건백서를 제출하여 적극 지지하려 한 것으로 유명하다.
- 특히 그는 1926년 4월부터 1927년 10월까지 『화엄경』 80권을 최초로 한글로 번역하는등 불교 경전의 번역에 적극 앞장섰으며, 불교 관련 저술사업과 선농(禪農)일치운동 등 사원(寺院)경제 개혁운동을 주도하였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됨.
- 따라서 백용성이 한글로 번역하고 간행하는데 크게 기여한 『조선어 화엄경』의 가치와 역사적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백용성이 직접 기증한 전질(1권 결본)은 의미가 크며, 이동림 교수가 기증한 전질(12권, 전질)은 결본이 없다는 점에서 상호 보완적 측면이 있다고 본다.
- 책 뒷면의 ‘저작권 발행자’는 백용성의 속명인 ‘白相奎’로 표기되어 있는 점이 주목됨.

#### 3)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본 도서류 2질은 1919년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의 한분으로 활약한 백용성 선사가 번역·발간한 우리나라 최초의 화엄경(80권) 국역본이자, 후일 화엄학 연구의 기초가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불교사적·국어사적·역사적 의미가 있음. 또한 비교적 보존상태가 양호하므로, 근대문화재로 등록, 보존하여 잘 활용할 필요가 있음.

#### 4) 문헌자료

- 김광식, 「1926년 불교계의 帶妻食肉論과 白龍城의 建白書」,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1(1997.12),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김광식, 「백용성의 사상과 민족운동 방략」,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9(2002.12), 독립기념관.
- 김광식, 「백용성과 소태산의 同異에 대한 몇가지 문제」,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63(2015.3),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 김광식, 「조계종단 律院의 역사와 성격」, 『불교학보』 70(2015.4),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 김정희, 「백용성의 이상사회와 불교개혁론 : 근대와 전통의 만남」, 『철학사상』 20(2003.12),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 14. 「백용성 역 『조선어능엄경(朝鮮語楞嚴經)』」 문화재 등록

**가. 제안사항**

- 「백용성 역 『조선어능엄경(朝鮮語楞嚴經)』」을 문화재로 등록하고자 부의 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백용성 역 『조선어능엄경(朝鮮語楞嚴經)』」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6.2.18)를 실시하고,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서울특별시청
- (2) 대상문화재

유물명	수량	규격	제작년대	재질	판종	소유자	소재지	비고
백용성 역 『조선어능엄경(朝鮮語楞嚴經)』	1책	세로25.8×가로18.4 (cm)	1928년	종이	신연 활자본	동국대학교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3) 검토사항 : 문화재 등록 검토

**라. 참고사항**

- 등록문화재 제632호 ‘백용성 역 『조선어능엄경(朝鮮語楞嚴經)』’은 기등록되어 있음.
- 소장처 : 국립정사
- 수량 : 1책

**마. 검토의견(관계전문가)**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6.2.18.)>

- ○ ○ ○ 위원
- 등록문화재 제632호(2014.10.29.)인 국립정사 소장본과 동일한 판본인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의 『조선어능엄경』은 순 한글 국역본이며, 교학적으로도 우수한 번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또 불교경전의 현대화와 일제강점기 시대 한글의 변화과정도 엿볼 수 있는 자료이기도

- 金淳碩, 「韓龍雲과 白龍城의 근대 불교개혁론 비교연구」, 『한국근현대사연구』 35(2005.12), 한국근현대사학회.
  - 전재강, 「백용성 불교 가사에 나타난 담화 방식과 대상 인식의 구도」, 『어문학』 103(2009.3), 한국어문학회.
  - 박재현, 「일제강점기 ‘독립’의 한 의미 : 백용성을 중심으로」, 『한국선학』 38(2014.8), 한국선학회.
  - 김종인, 「경전에서 고전으로 : 불교 문헌의 현대와의 대화」, 『동서비교문화저널』 21(2009.12), 한국동서비교문화학회.
  - 이병욱, 「한국 근·현대 불교개혁론의 전개와 유형」, 『한국종교』 37(2014.8),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인물대사전』, 중앙M&B, 1999.
  -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공훈록』 (백용성)
- 5)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근대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방안을 확실히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목적으로 전시, 연구, 교육 등 다방면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6) 기타
- 백용성 기증본은 일제강점기에 동국대학교의 전신인 ‘혜화전문학교’에 백용성이 기증한 것으로 판단됨.
  - 전북 장수군 죽림정사에 소장된 동종의 『조선글화엄경』이 이미 2014년에 등록문화재 제629호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동국대 소장본 2질 모두 근대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 활용할 필요가 있음.
- 7) 종합의견
- 한국근대 불교사와 독립운동사(3·1운동)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백용성(白龍城) 스님이 한글로 번역간행한 불교경전으로서 근대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만한 가치가 충분함.

함. 그러므로 등록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 ○ ○ 위원

- 『조선어능엄경』은 우리나라 최초의 능엄경 국역본이고, 한글의 병화과정도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필요가 있음. 『조선어능엄경』은 민족대표 33인의 불교대표인 백용성 스님이 번역한 것으로, 문헌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등록문화재가 될 수 있는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됨.

○ ○ ○ ○ 연구원

- 한국근대 불교사와 독립운동사(3·1운동)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백용성(白龍城) 스님이 한글로 번역간행한 불교경전으로서 근대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만한 가치가 충분함.

<근대문화재과 의견>

○ 2014년도에 등록된 ‘등록문화재 제632호 백용성 역 『조선어능엄경(朝鮮語楞嚴經)』’과 동일하며, 인쇄본 등의 경우 합리적인 등록기준을 마련한 후 추후 등록 검토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바. 의견사항

- 보류
  -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 기준 마련 후 재검토함
- 출석 6명, 보류 6명

붙임 : 「백용성 역 『조선어능엄경(朝鮮語楞嚴經)』」 조사보고서 1부.

「백용성 역 『조선어능엄경(朝鮮語楞嚴經)』」 조사보고서

1. 명 칭 : 백용성 역 『조선어능엄경(朝鮮語楞嚴經)』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3. 소유자 : 동국대학교
4. 조사자 의견

<○ ○ ○ ○ 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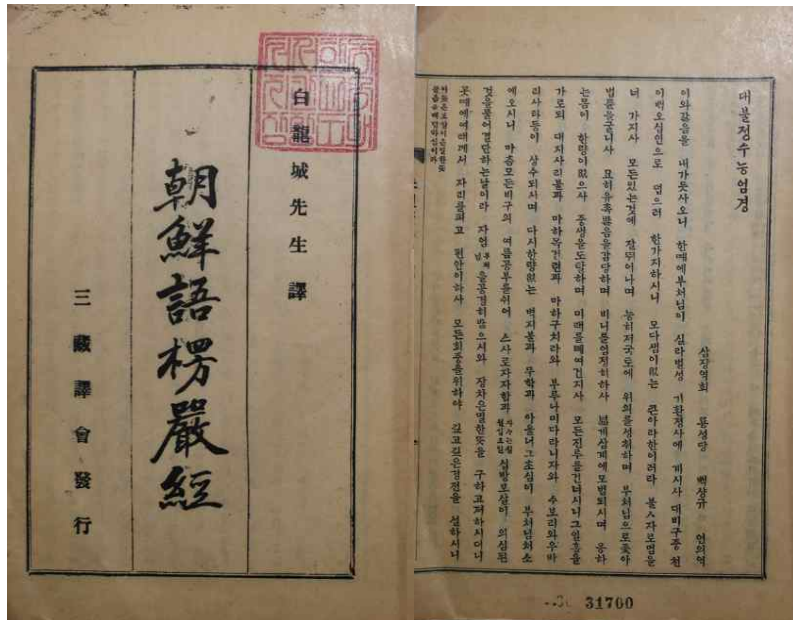
- 1) 현상
  - 표지와 내용 모두 양호함.
- 2) 내용 및 특징

조선어능엄경 / 백용성 역
신연활자본
경성: 삼장역회, 1928
1책(85장): 사주쌍변, 반곽 20.3×14.3cm 무게, 반엽 14행41자, 상하향흑어미; 25.8×18.3 cm
권수제: 대불정수능엄경
관심제: 조선문능엄경

- 『대불정수능엄경』의 정식명칭은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이며, 『수능엄경』 또는 『능엄경』이라고 약칭한다. 『금강경』, 『원각경』, 『대승기신론』과 함께 강원 의 사교과 과목으로 채택된 경전이다. 조선 세조 8년(1462)에 간경도감에서 목판으로 찍어 낸 국역언해본이 우리말 『능엄경』으로는 최초이며, 일제 강점기에 백용성스님이 순 우리말로 국역한 책이 바로 『조선어능엄경』이다.
- 용성스님의 속명은 상규(相奎), 법명은 진종(震鍾), 법호는 용성(龍城)이다. 1919년 3·1운동 때 민족대표 33인 중의 한 사람으로 불교계를 대표하여 독립선언서에 서명하였다. 결국 이 일로 수감되었는데, 수감 중에도 불교의 대중화, 중생의 구제에 대해 고민을 하다가 불경의 우리말 사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다. 곧 한문 불경을 우리말로 번역함으로써, 불교의 대중화와 민족의 독립역량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이다. 출옥한 뒤 1921년 3월에는 삼장역회(三藏譯會)를 조직하여 불경의 우리말 번역과 불교의 대중화를 위한 각종 포교서의 저술에 착수하였다.
- 용성스님은 대중의 교화 지침으로서 불교의 생활화, 불교의 대중화, 불교의 지성화(知性化)를 주장하였고, 경전을 번역하고 발행함으로써 이를 실천하였다. 우리말 또는 우리말과 한문을 혼용하여 불경을 번역한 것은 『운관』에서 “한자장경이 산처럼 쌓여 있더라도 오물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내 부득이 조선글과 선한문으로 『금강경』, 『능엄경』 등을 번역하였다.”고 하였다. 곧 용성스님이 경전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발행한 이유는 우리말로 된 경전을 통해 대중 교화에 힘쓰기 위한 바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역경사업에 대해 “체계에

적이었다는 점, 삼장역회를 설립한 점, 유통망의 조직을 활용한 점, 광고를 한 점, 단어의 변화와 대화체 번역"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한다.

- 용성스님은 이 이전인 1922년 3월 16일에 우리말과 한문을 혼용한 『대불정어래 밀인수중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제첩제는 『수능엄경선한언의(首楞嚴經鮮漢演義)』, 관심제는 『대불정수능엄경(大佛頂首楞嚴經)』)을 간행하는 등 일찍부터 능엄경에 많은 관심을 둔 것으로 보인다. 또 대표 저술인 『각해일륜(覺海日輪)』에서도 『능엄경』 학설을 자주 인용하는 등 저술에서 『능엄경』을 많이 인용하였다.
- 이 책의 표제(標題)와 제첩제는 『朝鮮語楞嚴經』이나 권수제는 『대불정수능엄경』, 관심제는 『조선문능엄경』 등 다양하다. 음력 1927년 12월 13일(양력 1928. 1.5)에 번역을 완료하였으며 이듬해 3월에 삼장역회에서 발행하였다. 이 『조선어능엄경』은 불교의 현대화는 물론 1970년대 초에 윤희 스님이 국역할 때 바탕으로 삼는 등 후대 국역의 초석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크다고 하겠다.
- 용성스님은 이 경전의 국역방식에 대해 “연의역”이라고 하였다. 연의(衍義)란 “의미를 널리 펴서 해설”한다는 의미인데 문자에 한정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쉽게 해설하였다는 의미로 보인다. 그래서인지 마지막에는 “5권 이하는 요점만 번역하고 번거로운 것은 번역하지 않았으니 보는 사람은 양해”해달라고 추기(追記)해 놓았다.



[사진 1] 표제지(標題)와 권수제(卷首題)

- 3) 문헌자료
  - 한태식, “백용성스님의 역경활동과 그 의의”, 『대각사상』 제5집, 2002, pp.89-124.
  - 김광식, “백용성의 불교개혁과 대각교운동”, 『대각사상』 제3집, 2000, pp.65-98.
  - 김광식, “일제하의 역경”, 『대각사상』 제5집, 2002, pp.45-83.

- 4)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등록문화재 제632호(2014.10.29.)인 죽림정사 소장본과 동일한 판본인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의 『조선어능엄경』은 순 한글 국역본이며, 교학적으로도 우수한 번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불교경전의 현대화와 일제강점기 시대 한글의 변화과정도 엿볼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등록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5) 종합의견
  - 등록문화재 가치 있음

<○○○ 위원>

- 1) 현상
  - 『조선어능엄경』은 능엄경을 최초로 국역한 것으로 불교 교학의 연구와 대중화에 크게 기여하였음
  - 능엄경은 금강경·원각경·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과 함께 불교 전문강원의 사교과(四敎科) 과목으로 채택되어 학습되었다. 능엄경은 소화엄경(小華嚴經)이라 불리면서 널리 독송되어 한국불교의 신행(信行)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 2) 내용 및 특징
  - 『조선어능엄경』은 한글을 전용으로 국역되었으며, 번거로운 부분이나 중복되는 부분은 경전을 축약하여 번역하였다.
  - 『조선어능엄경』을 번역한 백용성 스님은 3·1독립선언 당시 불교계를 대표한 민족대표 33인 중의 한 분이다.

- 3) 문헌자료
  - 이윤희, 『능엄경』, 법보원, 1963.
  - 김광식, “백용성의 불교개혁과 대각교운동” 『대각사상』 3, 2002.
  - 김광식, “일제하의 역경” 『대각사상』 5, 2002.
  - 한보광, “백용성스님 국역 『조선글화엄경』 연구” 『대각사상』 18, 2012.
  - 한보광, “백용성스님의 역경활동과 그 의의” 『대각사상』 5, 2002.

- 4) 기타
  - 『조선어능엄경』은 현재 용성기념관에 소장되어 등록문화재 632호로 지정되어 있음

- 5) 보존성비 및 활용 착안사항
  - 『조선어능엄경』은 현재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잘 보존되고 있다.
  - 『조선어능엄경』은 모두 서지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인정됨

- 6) 종합의견
  - 『조선어능엄경』은 우리나라 최초의 능엄경 국역본이고, 한글의 병화과정도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등록문화재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 『조선어능엄경』은 민족대표 33인의 불교대표인 백용성 스님이 번역한 것으로, 문헌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등록문화재가 될 수 있는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 연구원>

### 1) 현상

- 발간된 지 90여년이 되었지만, 책 표지(황색)가 깨끗하고 본문 등 내용 부분의 상태도 거의 완전하게 보존되고 있음.
- 다만 표지 좌하단이 일부 변색되고 본문의 일부도 다소 변색된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존상태는 양호함.
- 속표지에는 '백용성 선생 譯 조선어 능엄경 三藏譯會 발행'으로 표기되어 있음.

### 2) 내용 및 특징

- 백용성 번역 간행 『朝鮮語 能嚴經』은 후대 국역의 기초가 되었고, 순 한글 국역본으로서 교학적(敎學的)으로도 우수하며, 불교경전의 현대화와 일제 강점기 한글이나 한국어의 변화과정도 고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불교사적, 국어학적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 이 책 뒷면에 편집점 발행인으로 백용성의 속명인 '白相奎'로 표기되어 있는 점이 주목됨.

### 3)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본 도서는 1919년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의 한분으로 활약한 백용성 선생이 번역·발간한 우리나라 최초의 능엄경 국역본이자 불교 대중화의 기초가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불교사적·국어사적·역사적 의미가 있음. 또한 비교적 보존상태가 양호하므로, 근대문화재로 등록, 보존하여 잘 활용할 필요가 있음.

### 4) 문헌자료

- 김완진, 「능엄경 언해에 관한 몇 가지 과제」, 『한글』 127(1960.10), 한글학회.
- 장영길, 「능엄경과 능엄경언해에 대하여」, 『동악어문학』 27(1992.12), 동악어문학회.
- 최법해, 「능엄경의 성립과정과 전역의 자료에 관한 고찰」, 『불교학보』 34(1997.12),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 김문웅, 「활자본 《능엄경 언해》의 국어학적 고찰」, 『한글』 246(1999.12), 한글학회.
- 유근선, 「『능엄경언해』 권7의 활자본과 목판본 비교」, 『한글』 307(2015.3), 한글학회.
- 남경란, 「《능엄경》의 새 자료에 대하여-남권회(다)본'과 '파전 본」, 『어문학』 71(2000.10), 한국어문학회.
- 남경란, 「여말선초 음독구결본의 성립배경 : 《능엄경》, 《법화경》, 《육조대사법보단경》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40(2008.12),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인물대사전』, 중앙M&B, 1999.
-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공훈록』 (백용성)

### 5)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근대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방안을 확실히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목적으로 전시, 연구, 교육 등 다방면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6) 기타

-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구입한 도서로 파악됨.
- 전북 장수군 죽림정사에 소장된 동종의 『조선어 능엄경』이 이미 2014년에 등

록문화재 632호로 지정되었으므로, 동국대 소장본도 근대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소장 경위가 비교적 확실하게 파악되고 있고, 동종의 도서가 추후 발견될 가능성도 별로 없다고 판단됨.

### 7) 종합의견

- 한국근대 불교사와 독립운동사(3·1운동)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백용성(白龍城) 스님이 한글로 번역간행한 불교경전으로서 근대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만한 가치가 충분함.



## 15. 「백용성 역 『상역과해금강경』」 문화재 등록

### 가. 제안사항

- 「백용성 역 『상역과해금강경』」을 문화재로 등록하고자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백용성 역 『상역과해금강경』」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6.2.18)**를 실시하고,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유물명	수량	규격	제작년대	재질	판종	소유자	소재지	비고
백용성 역 『상역과해금강경』	2책 (1924, 1939년 발행본 각 1책)	- 1924년 발행본 : 세로22.0×가로15.0(cm) - 1939년 발행본 : 세로24.5×가로17.0(cm)	1924년 , 1939년	종이	신연활자본(1924), 석인본(1939)	유기옥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목도로 2길 10 목도양조장	

- (3) 검토사항 : 문화재 등록 검토

### 라. 검토의견(관계전문가)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6.2.18.)>

- ○ ○ ○ 위원
  - 『상역과해금강경』은 1924년에 처음 발행된 뒤 5판을 간행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수요가 있었던 국역본 『금강경』임. 후일 『금강경』의 국역에 있어서도 참고해야 할 만큼의 비중과 독자성을 갖추고 있음은 물론 일제강점기 시대에 동일한 내용의 한글표기도 대비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익함. 그러므로 5판중에서 「등록기준(안)(2013)」의 “근현대종교(불교)분야 - <기타>”에 “초판본으로 간행된 전적류”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초판인 1924년 간행본을 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현재 소장이 확인되는 6부 모두를 등록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선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함.
- ○ ○ ○ 위원
  - 『상역과해 금강경』은 불교계를 대표하여 민족대표 33인의 한 분인 백용성 스님이 번역한 것임. 『상역과해 금강경』은 1926년 4월 29일에 간행된 것이

『용성대종사전집』 제5권에 수록되어 초판으로 인정되어 왔음. 그러나, 이에 앞선 1924년에 간행된 『상역과해 금강경』이 있었다는 것이 최초로 확인되었음. 따라서 1924년판도 등록문화재가 될 수 있는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됨.

#### ○ ○ ○ ○ 연구원

- 한국근대 불교사와 독립운동사(3·1운동)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백용성(白龍城) 스님이 한글로 번역간행한 불교경전으로서 근대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음.

#### <근대문화재과 의견>

- 1924년에 발행된 초판본 『상역과해 금강경』은 불교사와 독립운동사에서 중요한 인물인 백용성 스님이 번역한 전적으로 신앙인들의 지속적인 수요가 있었고 체제와 내용면에서 독자성을 갖추고 있음. 또한 그 당시 한글 표기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며 보관상태도 양호하나, 다만, 동일본의 소장처가 다소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희소성 가치에 대한 충분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판단됨.

#### ※ 참 고

##### <불교 분야 등록기준>

<p>&lt;불교조각&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배대상의 특성을 살린 전통적 요소와 함께 근대 조각 기법이 반영된 불상</li> <li>○ 종교성과 시대성이 반영된 새로운 형식의 근대 제작 기념물</li> </ul> <p>&lt;불교회화&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적 요소와 함께 투시법이나 명암법 등 근대 서양화 기법이 접목된 불화 및 고승진영</li> </ul> <p>&lt;불교공예&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양식을 계승하면서도 근대성이 나타나는 유물</li> <li>○ 시대상이 반영된 상징물 및 불교생활용품</li> </ul> <p>&lt;불교전적&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대적 사고가 반영(한글화, 사적기)된 기록자료</li> <li>○ 근대 불교계의 변화 양상과 관련된 내용 수록</li> <li>○ 근대적 시대상이 반영된 사찰법령, 교육, 행정 관련자료</li> </ul> <p>&lt;기 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대 불교사 흐름에서 중요한 인물이나 사건과 연관되는 유물</li> <li>○ 건칠과 같이 희소성 있는 재료로 만들어진 불상</li> <li>○ 초판본으로 간행된 전적류</li> <li>○ 멸실 및 훼손의 위험이 큰 유물</li> </ul>
--

### 바. 의결사항

- 보류
  -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 기준 마련 후 재검토함

붙임 : 「백용성 역 『상역과해금강경』」 조사보고서 1부.

# 「백용성 역 『상역과해금강경』」 조사보고서

1. 명 칭 : 백용성 역 『상역과해금강경』
2. 소재지 :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목도로 2길 10 목도양조장
3. 소유자 : 유기옥
4. 조사자 의견

## <○○○ 위원>

- 1) 현상
  - 양호함
- 2) 내용 및 특징
  - 1924년 발행 『상역과해금강경』

상역과해금강경 / 백용성 역  
 신연활자본(초판)  
 경성: 삼장역회, 1924  
 1책(92면): 사주쌍변, 무계, 반엽 13행35자, 무어미; 22.0×15.0 cm  
 권수제(卷首題): 금강반야바라밀경  
 서명은 제침제(題簽題)에 의함

- 1939년 발행 『상역과해금강경』

상역과해금강경 / 백용성 역  
 석인본(5판)  
 경성: 삼장역회, 1939  
 1책(56장): 사주쌍변, 무계, 반엽 13행40자 내외, 상후어미; 24.5×17.0 cm.  
 권수제, 판심제: 금강반야바라밀경  
 서명은 제침제에 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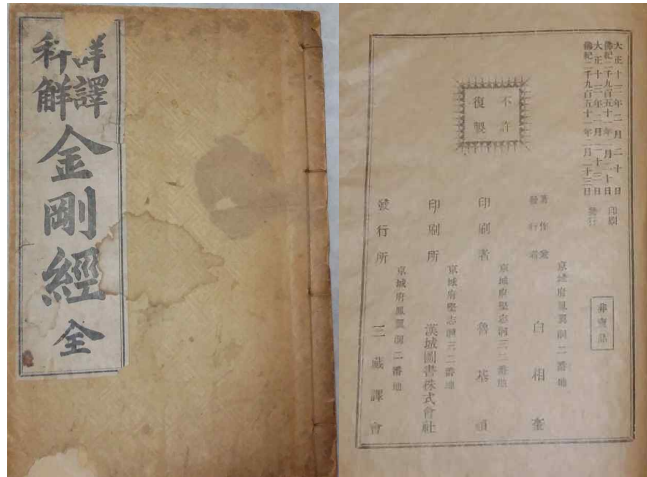
- 『상역과해금강경(詳譯科解金剛經)』은 백용성(1864~1940) 스님의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蜜經)』 국역본 가운데 하나이다. 스님의 속명은 상규(相奎), 법명은 진종(震鍾), 법호는 용성(龍城)이다. 용성스님은 육조대사 혜능이 학자적인 태도를 끝까지 견지한데 비해 선사의 입장에서 종교 신앙자로서의 태도를 일관적으로 고수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19년 3·1운동 때 민족대표 33인 중의 한 사람으로 불교계를 대표하여 독립선언서에 서명하였다. 결국 이 일로 수감되었는데, 수감 중에도 불교의 대중화, 중생의 구제에 대해 고민을 하다가 불경의 우리말 사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다. 곧 한문 불경을 우리말로 번역함으로써, 불교의 대중화와 민족의 독립역량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이다. 출옥한 뒤 1921년 3월에는 삼장역회(三藏譯會)를 조직하여 불경의 우리말 번역과 불교의 대중화를 위한 각종 포교서의 저술에 착수하였다.
- 『금강반야바라밀경』은 대승불교의 근본을 이루는 경전으로 『금강반야경』,

『금강경』이라고 약칭한다. 『대반야경』 600권 중의 『능단금강분(能斷金剛分)』의 별역으로 부처님과 제자 수보리(須菩提)의 문답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금강경 국역본은 세조 10년(1464)에 간경도감에서 처음으로 간행된 이후 일제강점기에 용성스님의 주도로 국역본이 다시 간행되었다. 곧 용성스님은 한글본 『신역대장경(금강경장외)』(등록문화재 제646호)과 국한혼용본 『신역대장경(금강마하반야바라밀경)』(등록문화재 제631호), 『상역과해금강경』 등의 서명으로 『금강경』의 국역본을 간행한 것이다. 『상역과해금강경』은 용성스님이 불인 48개의 과목아래 『금강경』 원문을 차례로 해설해 놓았는데 경문의 분과에 대해 번역자의 견해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책머리에는 석가가 『금강경』을 설했던 것과 당시 용성스님의 생각을 적은 「금강반야바라밀경전부대의운관(金剛般若波羅蜜經全部大義論貫)」이 있다. 이후 본문은 『금강반야바라밀경』이라는 권수제 아래 『금강경』 원문은 한글과 한자, 해석은 한글로 기술되어 있다.
- 윤점열(지원)은 『상역과해금강경』의 특징에 대해 첫째는 경문을 전반부 및 후반부로 나누고 도합 54분과로 설정하였다는 점, 둘째는 경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의심을 주제로 37가지로 설정하였다는 점, 셋째는 경전의 전체에 대하여 대의를 아공과 법공으로 설명하였다는 점 등 세 가지를 들고 있다.
- 목도양조장 소장의 『상역과해금강경』은 1924년에 발행된 초판본과 1939년에 발행된 5판 등 2종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발행시기와 판차에 대해 약간의 오해가 있었다. 곧 1924년에 초판본이 발행되었으나 1926년에 발행된 재판본이 초판본으로 소개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발행시기와 판차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초판본부터 5판본까지 유관한 판의 발행사실과 그 특징을 간략히 살핀다.
- ① 초판본(1924.2.23.) 목도양조장 소장
  - 신연활자판으로 저작 겸 발행자는 백상규, 발행자는 삼장역회, 인쇄는 경성부 견지동(堅志洞) 32번지에 있던 한성도서주식회사이다. 4침선장본이며, 권수제와 판심제는 『금강마하반야바라밀경』이다. 발행비용은 본문이 끝난 뒤의 “인시 최윤석 최윤옥(印施 崔潤錫 崔潤鈺)”과 같이 최윤석 윤옥형제가 지원하였다. 그래서인지 이 초판본은 비매품이었으며, 당시 발행한 부수는 알 수가 없다. 인쇄한 이후 발견한 오결자(誤缺字)는 우측에다 수정 또는 보완해야 할 글자를 주색(朱色)으로 찍어 놓았다. 이렇게 수정 보완한 글자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1> 초판본의 수정글자

구분	면수	원문(오결자)	朱色 수정자	형식
1	윤관-1	唯我獨在	唯我獨在	오자수정
2	윤관-2	何以故로	何以故오	오자수정
3	1	須苦提	須善提	오자수정
4	16	疑無上因으로 契無上果	疑無相因으로 契無相果	오자수정
5	26	수리실	수보리실	결자보완
6	32	대환신불	대화신불	오자수정
7	45	應生噴	應生噴恨	결자보완
8	45	인생	인상	오자수정
9	75	耨多羅 三邈三菩提	阿耨多羅 三邈三菩提	결자보완
10	88	소견다	소견과	오자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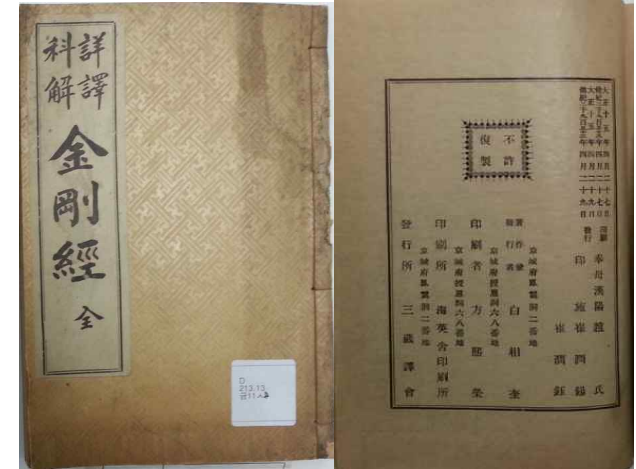


초판본의 표지와 판권기(1924.2.23. 발행)

○ ② 재판본(1926.4.29. 초판으로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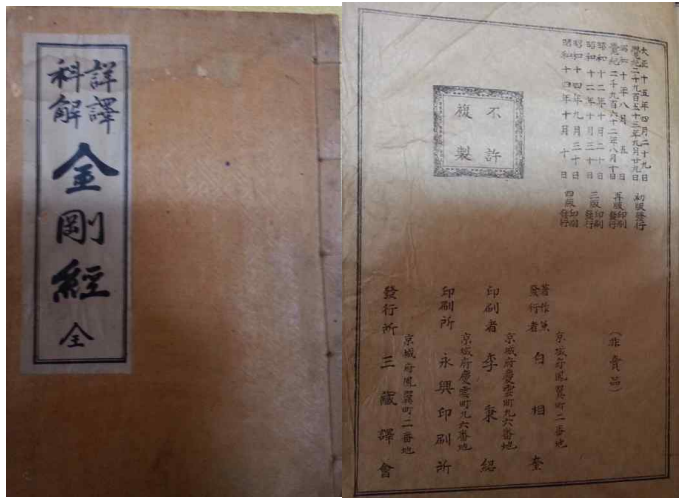
- 신연화자판으로 저작 겸 발행자는 백상규, 발행자는 삼장역회, 인쇄는 경성부 수은동(授恩洞) 68번지의 해영사(海英舍) 인쇄소이다. 4침선장본이며, 권수제는 『금강마하반야바라밀경』이다. 판권지의 “봉모한양조씨(奉母漢陽趙氏) 인시 최윤석 최윤옥(印施 崔潤錫 崔潤鉦)”과 같이 초판의 인경시주였던 최윤석 윤옥 형제가 다시 어머니 한양 조씨를 위해 지원하여 발행하였다. 그래서인지 재판 역시 비매품이었다. 초판의 주색으로 수정 보완한 오결자는 재판에서는 바로 잡아놓았고, 한글도 변형된 곳이 제법 많다. 초판본의 “佛”과 “龍城堂”을 “覺”

과 “龍城”으로 바꾸어 놓은 점이 바로 눈에 띈다. 그런데 용성스님이 64세 때인 1927년에 쓴 「저술과 번역에 대한 연기」의 “임의 번역하여 인쇄한 경은 다음과 같음”에 따르면, “『상역과해금강경』 이천부”라고 되어 있다. 글을 쓴 시기로 보아 이 때 인쇄한 2,000부는 재판본으로 판단된다.



재판본의 표지와 판권기(1926.4.29. 발행)

- ③ 3판본(1935.8.5. 재판으로 소개)
- ④ 4판본(1937.10.30. 3판으로 소개)
- ⑤ 5판본(1939.10.10. 4판으로 소개) 목도양조장 소장
- 석인본으로 저작 겸 발행자는 백상규, 발행자는 삼장역회, 인쇄는 경성부 경운정(慶雲町) 96번지에 있던 영흥(永興)인쇄소이다. 5침선장본이며, 권수제와 판심제는 『금강마하반야바라밀경』이다. 본문이 시작되기 전에 『금강경』의 연원에 대한 김경운(金擎雲)의 친필이 영인 수록되어 있다. 발행당시 인경대화주는 안양암(安養庵, 현재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에 있으며, 1926년 이태준이 칠성각을 짓고 창건의 주지와 신도들이었다. 이들이 보시한 부수(권수)는 주지인 이태준(李泰俊, 50권), 청신녀인 노발심일(盧發心一, 100권), 정일념화(鄭一念華, 100권), 노대자심(盧大慈心, 50권), 김대성심(金大性心, 50권), 심광명심(申光明心, 50권), 정축생(1937) 여자인 유씨(柳氏, 50권)와 고양군(高陽郡) 송인면(崇仁面) 정릉리(陵陵里) 150번지에 사는 청신녀 임도덕화(林道德華, 50권) 등 모두 500부(권)이었다. 그래서인지 5판 역시 비매품이다.
- 끝으로 “쇼와기묘(昭和己卯, 1939) 양추(涼秋, 음력9월)”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기는 이 책의 인쇄(1939.9.30.)와 발행(1939.10.10.)시기와 일치한다. 이때는 용성스님이 입적하기 4개월 전이다.



5판본의 표지와 판권기(1939.10.10.발행)

- 『상역과해금강경』의 초판본부터 5판본까지의 서지적인 특징을 대비하면 <표2>와 같다.

<표2> 『상역과해금강경』의 판본 비교

구분	판분구분	발행연월일	인쇄소 및 가격	소장처
초판	신연활자본	1924.2.23.	한성도서/비매품	목도양조장, 국립중앙도서관(2부), 고려대, 경희대, 동국대
재판	상동	1926.4.29.	해영사/[비매품]	
3판	상동	1935.8.5.	미확인	
4판	상동	1937.10.30.	대동/비매품	
5판	석인본	1939.10.10.	영흥/비매품	목도양조장, 국립중앙도서관, 중앙대 등

-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상역과해금강경』은 1924년에 초판이 발행된 뒤 1926, 1935, 1937, 1939년 등 모두 5회에 걸쳐 발행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1924년의 초판의 존재는 알려지지 않았고, 1926년에 발행된 재판본을 초판본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었다. 그것은 발행할 때마다 인쇄소를 변경한데다 1926년에 재판을 발행하면서 재판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고, 1937년 4판과 1939년 5판에서는 각각 3판과 4판으로 판권기에 명시함으로써 판차의 혼란을 야기한 점이 크다고 하겠다.
- 또한 도서관에서 편목할 때 서명의 채택방식도 혼란의 원인이 되었다. 곧 초판본을 소장한 도서관에서 『금강반야바라밀경』(동국대), 『금강반야바라밀경전

부대의운관』(국립중앙도서관)이라는 서명을 채택함으로써 초판본의 존재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또 용성스님의 저술전집인 『용성대종사전집』 제5책에는 1937년에 발행된 제4판이 영인 수록되어 있다. 바로 제4판의 권말 판권기에는 1926년에 간행된 재판이 초판, 해당 판이 3판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 분야의 연구자들은 원본보다는 이 전집에 수록된 영인 자료를 이용하면서 이 판권기의 기록을 그대로 수용하였기 때문에 혼란은 지속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여러 이유로 인해 현재 초판은 1926년, 재판은 1935년, 3판은 1937년에 발행된 것으로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초판은 1924년, 재판은 1926년, 3판은 1935년, 4판은 1937년, 5판은 1939년에 발행되었다는 사실은 현전본으로 확인이 된다.

- 용성스님의 『금강경』 번역서중의 하나인 목도양조장 소장의 『상역과해금강경』은 1924년에 발행된 초판본이다. 이 국역본은 5판까지 발행될 정도로 신앙인들의 지속적인 수요가 있었고, 체제와 내용에서도 독자성을 갖추고 있다. 그러므로 1924년에 발행된 초판본은 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3) 문헌자료

- 『상역과해금강경』(초판, 재판, 4판, 5판)
- 『용성대종사 전집: 5』, 서울: 신영사, 1991
- 김치운, “운허의 『금강경』 한글 번역에 대하여”, 『대각사상』 21집, 2014
- 김호귀, “금강경번역의 제문제”, 『진자불전』 제15집, 2013
- 윤점열(지원), “용성선사역해 금강경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6.
- 이영자, “용성해 상역과해금강경에 대하여”, 『불교학보』 11집, 1974

### 4)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상역과해금강경』은 1924년에 처음 발행된 뒤 5판을 간행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수요가 있었던 국역본 『금강경』이다. 후일 『금강경』의 국역에 있어서도 참고해야 할 만큼의 비중과 독자성을 갖추고 있음은 물론 일제강점기 시대에 동일한 내용의 한글표기도 대비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익하다. 그러므로 5판중에서 「등록기준(안)(2013)」의 “근현대종교(불교)분야 - <기타>”에 “초판본으로 간행된 전적류”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초판인 1924년 간행본을 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현재 소장이 확인되는 6부 모두를 등록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선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

### 5) 종합의견

- 1924년 발행된 초판본은 등록문화재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 위원>

#### 1) 현상

- 『상역과해 금강경』 2책은 1924년 초판본과 1939년 마지막 판본으로 모두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다.

#### 2) 내용 및 특징

- 『상역과해 금강경』(1924년판)은 한성도서주식회사에서 인쇄하였으며, 인쇄일은 1924년 2월 20일, 발행일은 1924년 2월 23일, 발행인은 백상규, 인쇄인은 노기점으로 되어 있다.
- 『상역과해 금강경』(1924년판)은 기존에 학계에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것으

로, 『용성대중사전집』 제5권에 수록된 1926년 4월 29일 영흥인쇄소에서 발행된 것이 초판본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상역과해 금강경』(1924년판)이 먼저 발간된 이후, 일정부분 수정과 교열을 거쳐 1926년에 다시 간행한 것 같다. 일제시대 당시 『상역과해 금강경』(1939년판) 제4판의 판권에 보면, 초판 인발행은 '1926년 4월 29일'로 되어 있다.

- 현재 학계에서 『상역과해 금강경』의 1926년판이 초판본으로 알려진 이유는 상세하지 않다. 그리고, 번역자인 백용성 스님이 1926년판을 초판본으로 인정한 이유도 분명하지 않다. 추측하기로는, 1924년판이 오역과 탈자 등이 많아 번역자가 초판본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된다. 신청자의 『상역과해 금강경』(1924년판)에는 오자가 있을 경우, 빨간 활자인으로 수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산견된다.

### 3) 문헌자료

- 김광식, 『용성』, 민족사, 1999·2000
- 김광식, 「일제하의 역경」 『대각사상』 5, 2002.
- 이영자, 「龍城解 詳譯科解 金剛經에 對하여」, 『불교학보』 11, 1974.
- 윤점열, 『龍城禪師 譯解 『金剛經』 연구』, 동국대 박사논문, 2015.

### 4) 기타

- 『상역과해 금강경』(1939년판)은 마지막 판본으로 널리 알려진 책자이다. 발행소는 삼장역화로 되어 있고, 인쇄소는 영흥인쇄소, 인쇄인은 이병소, 저자 겸 발행자는 백상규로 되어 있다. 판권에는 1939년 9월 30일 4판 인쇄, 10월 10일 발행이라고 되어 있다.

### 5)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상역과해 금강경』(1924년판)은 현재 개인(유기욱)이 소장하고 있으나,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하고 초판본으로서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다.
- 『상역과해 금강경』(1939년판)도 현재 개인(유기욱)이 소장하고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하나, 마지막 판본이기 때문에 문화재적 가치는 매우 떨어지는 편이다.

### 6) 종합의견

- 『상역과해 금강경』은 불교계를 대표하여 민족대표 33인의 한 분인 백용성 스님이 번역한 것이다. 『상역과해 금강경』은 1926년 4월 29일에 간행된 것이 『용성대중사전집』 제5권에 수록되어 초판으로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이에 앞선 1924년에 간행된 『상역과해 금강경』이 있었다는 것이 최초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1924년판도 등록문화재가 될 수 있는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 연구원>

### 1) 현상

- 『상역과해 금강경』 초판본(1924년 간행)과 4쇄본(1939년 10월 간행) 2권임. 초판본은 표지의 제호 부분이 약간 손상되어 있으나, 대체로 양호한 상태임. 1939년 간행된 4쇄본 역시 보존상태가 양호함

### 2) 내용 및 특징

- 백용성은 『금강경』과 관련하여 1922년 『新譯大藏金剛摩訶般若波羅寶經』을 비롯하여 1926년 『詳譯科解 金剛經』 및 『金剛摩訶般若波羅寶經』, 그리고 1936년 『신역대장경』 등 총 4회에 걸쳐 번역하였다. 또 1923년에는 『금강경』의 전체적 대의에 대한 견해를 알아볼 수 있는 『金剛摩訶般若波羅寶經全部大 義輪實』

을 저술하였다. 『신역대장금강마하반야바라밀경』은 蘇漢文 혼용체이면서, 治父의 주석을 중심으로 하면서, 거기에 함허의 說誼 및 백용성 자신의 주해를 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상역과해 금강경』은 經文의 分科에 대한 백용성의 견해가 가장 잘 드러난 번역본으로서 54분과로 세분하고, 백용성 자신이 41회에 걸쳐서 경문의 단락에 대하여 부연설명을 가하였다. 불교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3)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본 도서(1924년 초판본)는 저명한 불교 승려이자 독립운동가, 불교개혁운동가인 백용성 번역간행 서적으로 전승, 확인되고 있음. 따라서 유물의 가치와 희소성, 그 불교사적·국어학적·역사적 의의 등을 고려하여 근대문화재로 등록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추후 동종의 도서가 발견될 가능성이 없지 않으나, 보다 정밀한 고증과 검증, 보존처리 등을 거쳐 근대문화재로 등록, 근대 불교사 및 불교대중화의 생생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4) 문헌자료

- 이영자, 「龍城解 詳譯科解 金剛經에 대하여 : 六祖解義와 비교고찰」, 『불교학보』 11(1974.12),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 한보광, 「백용성 스님의 역경활동과 그 의의」, 『대각사상』 제5집(2002. 11), 대각사상연구원.
- 한보광, 「근대 한국불교의 네가지 반응유형에 대하여」, 『철학사상』 제16집(2003. 6),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 정운(신명희), 「『華嚴經』의 禪觀 小考」, 『한국선학』 32(2012.8), 한국선학회.
- 김호귀, 「『금강경』 번역의 제 문제 -백용성 대중사 번역본 『금강경』의 구성 및 내용의 특징」, 『전자불전』 15권(2013), 동국대학교 전자불전문화재콘텐츠연구소.
- 윤점열, 『龍城禪師 譯解 『金剛經』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5.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인물대사전』, 중앙M&B, 1999.
-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공훈록』 (백용성)

### 5)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초판본 도서를 근대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방안을 확실히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목적 또는 소장자의 사적 목적으로 전시, 연구, 교육 등 다방면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6) 기타

- 소장자(유기욱) 집안이 독실한 불교신자로서 일제강점기 괴산에서 목도양조장을 운영해온 바 현재까지 소장하고 있다고 함.
- 소장 경위가 비교적 확실하게 파악되고 있으며, 유사 물품이 거의 없어 희소가치도 있다고 판단됨.
- 2중 도서 가운데 1924년 9월 간행된 초판본 상역과해 금강경을 근대문화재로 등록할 필요가 있음

### 7) 종합의견

- 한국근대 불교사와 독립운동사(3·1운동)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백용성(白龍城) 스님이 한글로 번역간행한 불교경전으로서 근대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음.

## 16. 「서울 흥천사 감로도」 문화재 등록

### 가. 제안사항

- 「서울 흥천사 감로도」를 문화재로 등록하고자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서울 흥천사 감로도」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6.2.24)를 실시하고,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서울특별시청
- (2) 대상문화재

유물명	수량	규격	제작년대	재질	소유자	소재지	비고
서울 흥천사 감로도	1점	세로158.2×가로222.0(cm)	1939년	면	흥천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55 불교중앙박물관	

- (3) 검토사항 : 문화재 등록 검토

### 라. 검토의견(관계전문가)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6.2.24.)>

- ○ ○ ○ 교수
  - 1939년에 문성과 병문이 그린 감로도(甘露圖)로, 사각형으로 면 분할된 공간에 여러 도상을 그려넣은 독창적인 구성이라던가 원근법과 명암법, 입체감의 사용, 서양화적 채색기법, 사실적 묘사 등 근대 회화의 요소를 잘 보여줌. 또한 20세기 전반의 시대 상황에 맞게 새로운 도상을 창출한 점이 돋보이는 작품으로서, 근대문화재적 가치가 크므로 근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 ○ ○ 전문위원
  - 흥천사 감로도는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원근법이나 명암법 등에서 새로운 방식을 수용했고,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듯이 표현하는 방식도 새로운 요소라고 하겠다. 내용적으로 전통 감로도보다도 더욱 적극적으로 당대의 풍속이나 사회적 관심이 포함되어 있어 흥미롭다. 내용의 일부가 태평양전쟁과 관련이 있고 신사나 통감부 등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일제말기의

사회상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유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됨.

- ○ ○ ○ 전문위원
  - 이 불화는 하단에 봉안되는 의식용 불화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어느 감로도보다 깊은 기록화적인 요소도 풍성히 담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임. 이 작품은 작품이 담고 있는 근대성은 물론 근대기 작가의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작품으로 평가되므로, 등록문화재로 등록·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함.

#### <근대문화재과 의견>

- 전통을 계승하면서 근대 회화 요소를 잘 보여주며 당시 사회상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등록문화재로 등록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 마. 의결사항

- 보류
  - 친일 요소 확인 후 재검토함
- 출석 6명, 보류 6명

붙임 : 「서울 흥천사 감로도」 조사보고서 1부.



# 「서울 흥천사 감로도」 조사보고서

1. 명 칭 : 서울 흥천사 감로도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55 불교중앙박물관
3. 소유자 : 흥천사
4. 조사자 의견

## <○○○ 교수>

### 1) 현상

○ 액자형으로 장황되었는데, 화면이 군데 군데 찢어지고 특히 아래부분에 오염이 심하다. 뒷면은 배접지가 거의 찢어져서 화면이 그대로 드러나 보인다. 또한 상단 제단의 불번(佛幡) 및 중단과 하단의 일부 장면은 흰색 안료가 덧칠해져 있으며, 일부는 그림 윗부분에 종이를 붙였다가 최근에 떼어냄에 따라 자욱이 그대로 남아있는 등 보존상태가 좋지 않다.

### 2) 내용 및 특징

- 지옥에 빠진 중생을 극락으로 인도하고 죽은 이의 영혼을 위로하는 영가천도(靈駕薦度)의식에 사용하던 감로도로서, 1939년 보응문성(1867~1954)이 편수를 맡고 남산병문이 출초하였다. 성북구 돈암동 흥천사 연화대에 봉안되어 있었으나 최근 불교중앙박물관으로 옮겨 수장되어 있다.
- 상·중·하 3단으로 구성되는 일반적인 감로도처럼 흥천사 감로도역시 육도윤회 속에서 고통 받는 중생들이 배치된 하단, 재를 행하며 지옥도와 아귀도를 헤매는 중생들에게 감로를 베푸는 중단, 의식을 거쳐 중생을 극락으로 인도하는 불보살과 극락세계가 그려진 상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단 중앙에는 5불이 정면을 향해 나란히 서있다. 이들은 다보여래·묘색신여래·감로왕여래·광박신여래·리포외여래(多寶如來·妙色身如來·甘露王如來·廣博身如來·離怖畏如來)의 오여래로, 모두 녹색의 두광을 지니고 상반신만을 드러낸 채 합장 또는 오른손을 들어 손가락을 마주잡고 있다. 여래의 향우측에는 아미타삼존과 천인들, 향좌측에는 관음보살과 인로왕보살 및 천인들이 흰색 구름을 타고 하강하고 있으며, 그 아래로는 어깨에 바람 주머니를 맨 풍신(風神)과 연고(連鼓)를 어깨 뒤로 든 뇌신(雷神)이 그려져 있다. 전통적 감로도에서는 풍신은 등장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여기에서는 풍신과 뇌신을 서로 상대하여 배치한 점이 특이하다.
- 화면의 큰부분을 차지하는 중단은 제단과 제단 앞에서 의식을 행하는 승려들로 구성되었다. 제단에는 ‘南無千億億...’, ‘南無清淨法...’, ‘南無圓滿報身...’(‘남무천백억...’, ‘남무청정법...’, ‘남무원만보신...’)이라고 적힌 三身佛幡과 ‘奉爲天皇陛下聖壽萬歲’, ‘普告十方...’(삼신불번과 ‘봉위천황폐하성수만세’, ‘보고십방...’)이라고 적힌 번이 바람에 휘날리듯 나부끼고 있으며, 그 아래 제단에는 꽃병과 촛대 및 다양한 공양물이 진설되어 있다. 제단 바로 아래에서는 승려들이 의식을 집전하고, 그 옆에는 사람들이 무리지어 앉아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화면 좌측 공양간에서는 승려와 여성신도들이 공양물을 머리에 이거나 어깨에 들쳐올린 채 줄지어 제단을 놓을 공양물을 옮기는 장면이 보이는데, 이러한 모습은 19세기 후반에 서울 경기지역에서 성행한 감로도에서 나타나는 광경으로, 그러한 전통을 이은 것으로 보인다. 제단 아래에는 황색의 상복을 입은 남녀상주들이 제단을 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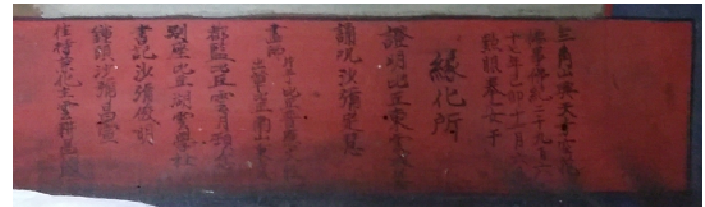
해 앉아있으며, 이들 뒤로는 병풍을 치고 앉은 승려들 앞에서 승무와 밭고춤을 추는 모습이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다. 의식장면 향좌측으로는 아귀 두 마리가 의식장면을 바라보듯 앉아있다.

- 한편, 하단부는 31개의 칸으로 나뉘 서른 한 가지 중생계의 다양한 삶과 죽음의 모습을 그려냈다. 화면 우측에서부터 자동차를 타고 여행하는 장면, 눈일하는 모습과 새참을 내오는 광경, 관아에서 벌어지는 재판, 기차가 다니는 어촌, 가마행렬, 코끼리 서커스단, 호랑이에게 쫓기는 장면, 고기잡이, 번화가, 대장간, 전당포, 전깃줄 공사, 다툼, 도로 확장공사, 전화 거는 사람, 스케이트 타기, 뱀에 놀라거나 바위에서 떨어지는 소년, 거센 물살에 휩쓸려 가는 모습, 농악 장면 등이 배치되었다. 특히 포화가 난무한 채 벌어지는 공중전이나 칠흠같은 어둠속에서 이루어지는 전쟁, 육중한 탱크가 포탄을 난사하는 장면, 진격하는 군대의 모습 등 전쟁장면은 그동안 종이로 가리워져 보이지 않다가 최근에 새로 드러났는데, 이 불화가 조성되던 1930년대의 사회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와 함께 당시의 번화가의 모습과 양복을 입은 신사, 하이힐을 신은 숙녀의 모습, 빙판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는 남녀들도 1930년대 당시의 상황을 잘 대변하고 있다.
- 이 그림은 보응문성(普應文性)이 편수를 맡고 남산병문(南山秉文)이 출초하였다. 두 화승은 모두 마곡사의 근대화승인 금호약효(錦湖若效)(1846~1928)의 제자이며, 병문은 문성의 제자이다. 이들은 모두 마곡사파의 특징을 이어받아 서양화법적인 음영을 근거로 한 불화를 많이 제작하였으며, 원근법과 명암법, 입체법 등을 불화에 적용시킨 현대적인 불화기법을 완성하였다. 흥천사 감로도는 이러한 그들의 화풍이 가장 잘 드러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 3) 문헌자료

#### ○ [화기]

三角山興天寺空花/佛事佛紀二千九百六/十七年己卯十一月六日/點眼奉安于/緣化所/證明比丘東雲成善/誦呪沙彌定慧/畫師片手比丘普應文性/出草比丘南山秉文/都監比丘雲月頓念/別座比丘湖雲學柱/書記沙彌俊明/鍾頭沙彌昌宣/任持兼化主雲耕昌殷



#### 4)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1939년에 문성과 병문이 그린 감로도(甘露圖)로, 사각형으로 면 분할된 공간에 여러 도상을 그려넣은 독창적인 구성이라던가 원근법과 명암법, 입체감의 사용, 서양화적 채색기법, 사실적 묘사 등 근대 회화의 요소를 잘 보여준다. 또한 20세기 전반의 시대 상황에 맞게 새로운 도상을 창출한 점이 돋보이는 작품으로서, 근대문화재적 가치가 크다.

#### 5)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화면 하단부에는 이 그림이 조성된 1939년 당시의 근대화된 모습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다. 자동차를 타고 여행하는 장면이라던가 눈에서 울력하는 모습, 근대식 재판장에서 재판하는 장면, 기차가 다니는 어촌, 코끼리 서커스단, 전차가

다니는 변화가의 모습, 전당포, 전기공사, 도로 확장공사, 전화 거는 사람, 변화가의 모습과 양복을 입은 신사, 하이힐을 신은 숙녀의 모습, 병판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는 남녀 등 근대기의 생생한 모습을 그대로 전해주고 있어 근대 생활 자료로서의 가치가 매우 크다. 뿐만 아니라 포화가 난무한 채 벌어지는 공중전이나 칠흙같은 어둠속에서 이루어지는 전쟁, 육중한 탱크가 포탄을 난사하는 장면, 진격하는 군대, 신사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 총독부의 모습 역시 한일합방 기였던 1930년대 당시의 상황을 잘 대변하고 있어, 근대기 생활사 및 역사자료로 활용하기에 충분하다.

- 그러나 화면이 군데군데 찢어지고 오염이 심하며 뒷면의 배접지가 거의 찢어져서 화면이 그대로 드러나 보이며, 부분적으로 흰색 안료가 덧칠해져 있거나 종이를 떼어 낸 자욱이 그대로 남아있는 등 보존상태가 좋지 않다. 따라서 지정 후 보존처리가 시급하다고 하겠다.

5) 종합의견

- 1939년에 문성과 병문이 그린 감로도(甘露圖)로, 사각형으로 면 분할된 공간에 여러 도상을 그려넣은 독창적인 구성이라던가 원근법과 명암법, 입체감의 사용, 서양화적 채색기법, 사실적 묘사 등 근대 회화의 요소를 잘 보여준다. 또한 20세기 전반의 시대 상황에 맞게 새로운 도상을 창출한 점이 돋보이는 작품으로서, 근대문화제적 가치가 크다. 이에 근대문화제로 지정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전문위원>

1) 현상

- 홍천사 감로도에는 불화지만 벽에 직접 그린 것이 아니라 나무로 틀을 짜고 천(면)을 고정시켜 캔버스처럼 독립된 화폭을 만들었고 그 위에 그림을 그린 형식이다. 화면은 중앙 상단에 불보살과 시식단을 배치하여 전통 감로도의 형식을 따르면서 하단 및 좌우에 당시의 풍속적인 내용과 전쟁 관련 내용이 채워져 있다. 각각각의 장면에는 연필로 칸을 나누고 내용(이야기)을 그려 넣었는데, 각각의 크기와 모양은 불규칙하다. 하단에 화기가 붉은 바탕에 묵서로 기록되어 있다.
- 부분적으로 천이 훼손되기는 했지만 보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화면에서 유독 밝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는 해방 이후에 전쟁과 직접 관련 내용을 흰색 안료로 덮었던 것을 후대에 제거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2) 내용 및 특징

- 감로도에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 부처의 가르침을 듣고 극락에 가기를 기원하는 목적에서 그린 불화이다. 전체 구성은 조선시대 감로도의 3단(상단: 불보살, 중간: 재단과 의식행사, 하단: 아귀와 생활상)으로 되어 있는데, 의례용 불화는 전범을 따르는 속성이 있어, 홍천사 감로도에는 이러한 기본적 구성으로 제작되었지만 근대기에 조성된 유물인 만큼 전통 감로도와는 다른 새로운 면모가 있다. 새로운 면모는 형식과 내용에서 찾을 수 있는데, 형식에서 우선 캔버스와 같이 틀을 만들었다는 점, 그리고 서양식 원근법과 명암표현이 적용된 점이다. 내용적으로 당대성을 띠고 있다.
- 내용을 좀더 살펴보면, 상단에서 중앙에는 아미타여래를 중심으로 불보살단이 자리하고 있는데, 화면 우측은 관음보살과 세지보살 좌측에는 지장보살과 인로

왕이 자리하고 있다. 중앙의 불보살단의 좌우에는 구름 위에 선인들이 표현되어 있는데, 전통 감로도에서는 중단 시식대 주변에 표현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중앙의 불보살 앞 시식대 전면에 화면의 좌로부터 普告十方, 南無千百億, 南無清淨法, 南無圓滿報身(보고십방, 남무천백억, 남무청정법, 남무원만보신) 등이 써진 번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는데, 맨 우측의 번의 글씨는 흰색 안료로 지워져 있다.

- 중단에는 성대하게 차린 재단이 표현되어 있다. 기존 감로도에는 이미 잘 차려진 재단이 있는데 반해 이 감로도에는 재단을 준비하기 위해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장면이 있어, 보다 실제적인 분위기가 난다. 바라춤이나 승무를 추는 비구니를 비롯해서 불단 앞에 앉아 있는 남녀상주의 모습이나 교복과 신사복 차림의 인물들이 주변에 서서 구경하고 있는 듯한 표현은 더욱더 현장감이 느껴진다.
- 하단은 화면을 30여 장면으로 나누고, 당시 생활의 다양한 장면들을 사진이나 그림책처럼 표현하고 있다. 내용은 모내기, 교육, 서커스와 같은 오락, 풍물놀이, 전당포, 서울의 변화가, 전화나 전기 보급을 보이는 장면, 여행자의 모습, 신사, 통감부, 재판, 그리고 전쟁 관련 장면이 반복적으로 그려져 있다. 이러한 장면의 배열순서의 원칙을 찾기는 어렵지만 당시 사회에서 주된 관심거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장면들이다.
- 제작자로 알려진 문성(1867-1954)과 병문(생물연도미상)은 마곡사 중심으로 근대에 활동했던 화사들이며 금호당 약호(1846-1928)의 제자들로 알려져 있는데, (장희정 논문 참조) 특히 문성은 서양화법을 익혀서 전통과는 다른 근대불화를 제작했다.

3) 문헌자료

- 김승희, 『모던불화의 탄생, 홍천사 감로도』, 『마곡사, 근대불화를 만나다』, 국립공주박물관, 2012. pp. 226-36.
- 장희정, 『1939년작, 홍천사 감로왕도』, 『동악미술사학』 9호(2008), pp. 119-139.

4)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현재 유물의 전반적인 상태는 양호한 편이지만 뒤면 종이 훼손된 상태이기 때문에 보수할 필요가 있음.

5) 종합의견

- 홍천사 감로도에는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원근법이나 명암법 등에서 새로운 방식을 수용했고,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듯이 표현하는 방식도 새로운 요소라고 하겠다. 내용적으로 전통 감로도보다도 더욱 적극적으로 당대의 풍속이나 사회적 관심이 포함되어 있어 흥미롭다. 내용의 일부가 태평양전쟁과 관련이 있고 신사나 통감부 등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일제말기의 사회상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유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등록문화제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됨.

<○○○ 전문위원>

1) 내용 및 특징

- 홍천사 감로도에는 영혼을 천도하는 불교의식에 사용된 불화이며, 범당이나 수록재 등 의식에 사용될 때는 하단에 봉안된다. 이 감로왕도는 “井”字形대로 액자를 짜고 그 위에 여러 겹의 배접지를 올려 만든 액자식 불화이다. 뒷면에는 여러 가지 진언문을 붉은색 글씨로 적어 놓았다.



- 이 감로왕도의 구도는 삼단으로 되어있는데, 상단의 오여래를 비롯한 불보살을 중심으로, 중단에는 재단과 의식행사를, 하단에는 아귀와 생활상을 배치하였다. 그림의 바탕재질은 근대기에 많이 사용된 먼 바탕이며, 화폭을 상·하 두 쪽으로 이어 붙여 사용하였다. 위쪽은 약 56.5cm이고 아래쪽은 102cm로 추정된다. 그림의 테두리는 짙은 군청색을 2단계로 하여 구분하였고, 실제 그림의 윤곽은 붉은색 선을 그어 구획하였다. 화면 하단의 좌우에는 붉은 바탕의 화기란을 두었고, 좌측의 화기란에만 제작연대·제작자·시주자 등 제작과 관련된 사실을 기록하였다. 화기란의 크기는 좌측이 7.0×52.2cm이고, 우측이 7.5×52.3cm이다. 여기에 기록된 화기에 의하면, 이 감로왕도는 1939년에 흥천사 공화불사와 관련하여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불화의 제작에는 동운계선을 증명으로 편수는 문성보용, 출초 남산병문 등 두 명의 화승이 참여하였다. 수화승 문성보용은 금호약효의 화맥을 이어받은 조선말~근대기의 대표적인 화승이며, 차화원 남산병문은 알려진 이 작품 외 알려진 것이 없지만, 이 작품을 통해 서양화법에 능숙한 화사로 추정된다. 한편 화기에는 제작연도를 “佛紀二千九百六十七年己卯十一月六日點眼奉安”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불기 2967년은 서기 1940년에 해당하고, 기묘년은 서기 1939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기와 간지가 서로 맞지 않다. 이럴 때는 통상 간지를 따라 연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그림은 1939년에 그린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상단은 재단으로 강립한 다섯 여래가 중심을 잡았고, 좌우측에는 산수를 배경으로 하늘에서 화사한 파스텔풍의 그룹을 타고 도량으로 내려오고 있는 아미타삼존과 지장보살·인로왕보살, 3인의 도교적 인물을 좌우대칭으로 배치하였다. 이곳에 묘사된 산악의 표현은 마치 북악산을 모델로 삼은 듯 홀로 우뚝 솟은 봉우리의 형태가 유사하다. 상반신만 드러낸 다섯 여래는 같은 크기로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며, 모두 둥근 녹색 顯光을 갖추고, 복발모양의 높은 육계와 동그란 정상계주를 갖추고 있다. 얼굴은 둥글고 이목구비가 단정하며, 이목구비에 음영을 넣어 입체감을 나타내어 근대불화의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다섯 여래의 가사는 붉은색으로 통견과 편단우견을 교대로 착용하였으며, 수인도 합장인과 설법인 등 두 가지 수인을 번갈아 가며 짓고 있다.
- 다섯 여래의 앞쪽에는 재단이 설치되었는데, 재단은 잘 다듬어진 가구식 기단 위에 다시 널찍한 불단을 마련하고 그 위에 향·등·차·과일·꽃·쌀 등 각종 공양물을 차렸다. 재단의 좌우에는 오색으로 만들어진 지화가 놓여져 있는데, 통상 지화 장엄은 모란이나 작약·홍련 등으로 만들어 공양하지만, 이곳에서는 장미꽃으로 표현하여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와 취향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한다. 재단의 양쪽 끝에는 높은 장대를 세우고 꼭대기에 밧줄을 연결하여 범·보·화신의 위덕을 칭송하는 三身佛幡(삼신불번)과 普告幡(보고번), “奉爲天皇陛下聖壽萬歲(봉위천황폐하성수만세)”라는 문구를 적은 축상번(祝上幡), 그리고 오색 장엄번(莊嚴幡) 등을 매달아 놓아 당시 식민지 시대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번은 바람에 펄럭이고 있으며, 뒤집어진 글자의 여운도 놓치지 않으려는 사실적인 묘사 능력을 발휘하였다.
- 중단의 가구식 기단 위에는 염불을 외고 의식을 집전하는 작법승, 불단과 계단을 오르내리며 공양물을 올리는 승려, 이를 구경하는 부녀자들이 묘사되었으며, 기단 아래에는 재를 시작의 알리는 소취타대의 시련(侍釐)행진을 비롯하여, 상주의 모습과 작법승의 바라춤과 착복무, 그리고 천도의 대상인 두 마리 아귀를 크게 묘사하였다. 특히 신식 복장을 입고 테이트를 즐기는 남녀 한 쌍을 등장시켜 시선을 사로잡는다.
- 상단의 좌우측부터 하단에 이르기까지 34개의 4각 구획을 마련하고 그 속에 다양한 현실의 생활 장면들을 실감나게 그려 넣었다. 상단의 좌우측 공간에는 일본풍의 뇌공(雷公)과 풍신(風神)을 그려 넣었고, 하단에는 전통 감로탱화의 형식과 마찬가지로 일상의 생활상은 물론 호환, 전쟁, 암반 추락 등 재난장면 등을 두루 담았다. 이곳에 등장하는 풍속장면은 전통불화의 관념적이고 관습화된 모티프를 버리고 당시의 실생활의 모습을 그대로 화폭에 담아냄으로써 다류

멘터리적인 성격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특히 당시로서는 이채로웠을 전차가 다니는 근대화된 서울의 풍경이라든가, 신식의 서커스의 장면, 신식재판 장면, 스케이트를 타는 선남선녀들의 한가로운 풍경, 전화기를 거는 사람, 우체국의 풍경, 전기 공사를 하는 사람, 도로를 넓히기 위해 부역에 동원된 사람들의 모습 등 신문물과 신기술의 유입으로 낯이 번모 해가는 도회지의 신풍경을 담았고, 한편으로는 물고기 잡는 어촌의 모습과 모내기 하는 농촌의 모습, 누에를 치는 장면, 구식재판, 호랑이에 물려죽는 장면, 암벽에서 추락하는 장면 등 일반 백성의 일상적인 삶과 재난 모습을 적절하게 분배하였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 통감부의 모습이라든가 일본신사의 모습, 중일전쟁 장면, 일본군의 행군, 일본군의 전투장면, 황제폐하의 수명장수를 기원하는 축상번 등에서는 암울했던 식민지 시대의 시대상을 가감 없이 읽을 수 있다.

- 화기
  - 三角山興天寺空花
  - 佛事佛紀二千九百六十七年己卯十一月六日點眼奉安于
  - 綠化所
  - 證明比丘 東雲戒善
  - 誦呪 沙彌定慧
  - 畫師 片手比丘 普應文性
  - 出草比丘 南山秉文
  - 都監比丘 雲月頓念
  - 別座比丘 湖雲學柱
  - 鍾頭 沙彌昌宣
  - 住持兼化主 雲耕昌殷
- 도판



그림1 흥천사 감로왕도, 1939년, 보용·병문 작

## 17. 「이회영 복식」 문화재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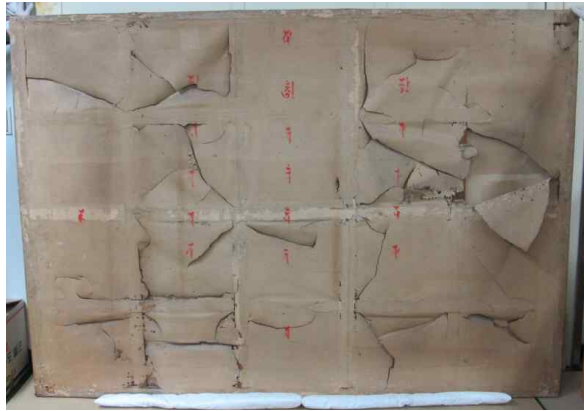


그림2 뒷면의 진언문

### 2)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이 불화는 1939년 흥천사 공화불사 때 제작된 감로왕도로, 두 명의 화승이 참여하여 제작하였다. 수화승 보응은 전통불화의 바탕아래 근대적 기법을 소극적으로 적용하며 작품 활동을 펼친 작가가기 때문에 주로 재의식이 펼쳐지는 불보살단과 재의식을 담당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며, 차화원 병문은 근대적 기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하단의 일상생활 장면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 이 불화는 일부에서 친일적 요소로 보이는 곳을 고의로 훼손한 흔적이 있지만, 전통불화 중에서도 비교적 표현이 자유로운 감로왕도라는 불화형식을 빌어서 근대의 화법을 도입하여 급변하는 일제강점기의 시대상을 적극적으로 담아내었다는 점은 높이 평가된다. 즉 그림의 모티프에 있어서도 보수적인 전통 불화의 관념적인 습관을 과감하게 버리고 뉴스를 보는 듯 당시 급변하는 시대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담아내었다. 특히 정확한 인체대생과 투시도법의 사용, 수채화 기법의 사용, 구름이나 수목 등을 이용한 전통적인 분할 방식을 외면하고 새로운 4각 분할 방식의 도입한 점, 인물 표현에 있어서 주존불까지 음영법을 확대하여 적용한 점 등에서 근대기 새롭게 유입된 새로운 기법과 시대정신을 읽을 수 있어 중요하다. 따라서 이 불화는 하단에 봉안되는 의식용 불화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어느 감로왕도보다 짙은 기록화적인 요소도 풍성히 담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작품은 작품이 담고 있는 근대성은 물론 근대기 작자의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작품으로 평가되므로, 등록문화재로 등록·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 3) 문헌자료

- 김승희, 「모던불화의 탄생, 흥천사 감로도」, 『마곡사 근대불화를 만나다』, 국립공주박물관, 2012

### 4) 종합의견

- 등록가치 있음

### 가. 제안사항

- 「이회영 복식」을 문화재로 등록하고자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이회영 복식」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5.11.20)를 실시하고,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문화재청

(※ 2014년도 '근대문화유산 항일독립운동분야 목록화 조사 연구' 후 자문회의를 통한 검토 대상으로 선정)

- (2) 대상문화재

유물명	수량	규격	제작년대	재질	소유자	소재지	비고
이회영 복식	1건 3점	두루마기-길이 122.8cm, 모자-높이 9.9cm, 신발-길이 24.5cm	일제강점기 추정	직물	독립기념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방로 95 독립기념관	

- (3) 검토사항 : 문화재 등록 검토

### 라. 검토의견(관계전문가)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5.11.20.)>

- ○ ○ ○ 위원
  - 본 이회영의 유품-두루마기, 모자, 신발 일습은 일제강점기에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고국을 떠나 만주 등지의 중국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숨기고 현지인으로 위장 활동하며, 착용하였던 복식으로 이는 대한민국 독립운동가들의 중국이라는 타국에서의 생활상을 알 수 있게 하며, 독립운동사적 측면에서는 주요한 자료로 판단됨.
  - 당시 독립운동가의 복식 가운데 한국 근대 생활사를 보여주는 한국 복식이 다량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근대 복식사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본 유물이 과연 한국의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가에 그 여부 판단은 매우 어려움
- ○ ○ ○ 교수
  - 본 유물은 독립운동가 이회영이 착용한 중국식 복식 일습으로 우리 고유의 복식은 아니지만 국권이 강탈된 후 만주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을

# 「이회영 복식」 조사보고서

하였던 독립투사들이 일제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중국인의 복식을 착용하면서 생활하였던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국가등록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지닌 것으로 판단됨.

## ○ ○ ○ ○ 연구원

- 한국 아나키즘운동사, 독립운동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회영 선생이 1932년 일본 경찰에 체포될 때 착용한 중국식 의복으로 근대문화재로 등록 보존할 충분한 가치가 있음.

## <근대문화재과 의견>

- 독립운동사에서 중요한 인물인 이회영 선생이 중국에서 착용하였다고 전해지는 이 의복은 국권이 강탈된 후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며 일제의 감시를 피하기 위하여 중국인의 복식을 착용한 것으로 역사적, 인물적 가치가 충분하므로 등록문화재로 등록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 ※ 참 고

### <항일독립운동분야 등록기준>

#### <시간적 기준>

- 1895년~1945년에 생산되거나 사용된 항일독립운동 관련 유물
- 동일한 항일독립운동 분야 유물 중에서 시기가 가장 앞서는 것
- 항일독립운동이나 독립운동가와 관련한 출판물일 경우 가능한 초판본으로 하되 출판 당시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희소한 것
- 당대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록한 것

#### <공간적 기준>

- 항일독립운동 분야에서 대표할만하고 지역적인 특수성을 지닌 것
- 항일독립운동 관련하여 지방사의 특징이 두드러진 것
- 항일독립운동 현장에서 직접 사용된 것

#### <내용적 기준>

- 항일독립운동과 관련한 유물 중에서 독립운동사적·자료적 가치가 큰 것
- 유물의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역사적 가치가 높으며 희귀한 것
- 육필 원고의 경우 독립운동가의 필적이 밝혀진 것
- 비중 있는 독립운동가가 직접 사용하였거나 제작한 유품
- 유물 제작과 독립운동가가 착용 및 사용한 이력이 뚜렷하고 용도가 구체적인 것

## 마. 의결사항

- 보류
  - 항일 관련 복식 추가조사 후 종합적인 검토 필요
- 출석 6명, 보류 6명

붙임 : 「이회영 복식」 조사보고서 1부.

1. 명 칭 : 이회영 복식

2. 소재지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방로 95

3. 소유자 : 독립기념관

4. 조사자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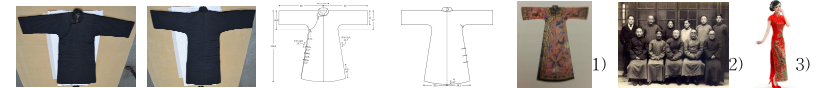
### <○○○ 위원>

#### 1) 현상

- 우당(友堂) 이회영李會榮은 조선시대 말 역대 선조들 대부분이 정승·판서, 참관을 지낸 손꼽히는 명문가의 자손 이유훈李裕承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 한국 독립운동사에 위대한 사상가, 혁명가로 인정되는 우당은 청년기부터 신지식을 받아들여 평민적 사고와 행동으로 일가족 모두를 데리고 만주로 가 항일 투쟁의 기틀을 마련하고 대한민국 독립투쟁의 역사에 위대한 족적을 남겼다.

#### 2) 내용 및 특징

- 두루마기



#### i) 내용

위 우당 이회영이 20세기 초반(1930년대) 만주에서 독립운동가로 활동하던 당시 착용한 것으로 확인된 본 유물은 중국 18세기 청대의 귀족층들의 전통 복식인 치파오(旗袍)를 복잡한 장식물을 제거하고 단순하게 현대감각에 맞도록 변화시킨 의상이다.

#### ii) 특징

- 본 두루마기는 겉감은 검정색 능직 비단(絹緞)에 약 5.2~5.3cm의 간격으로 누비 되어 제작되었으며 안감은 녹색의 평직면으로 되어있다.
- 본 두루마기는 총장 122.8cm, 품 55.5cm, 화장 좌 82cm 우 80cm, 수구 22cm로 앞길은 진동의 구분 없이 동체 소매가 한판으로 재단되었음을 볼 때 소재가 매우 광폭(廣幅)임을 알 수 있으며 약 5.2~5.3cm의 간격으로 누비 되어있다.
- 앞길 우측 어깨에서 27cm지점 겨드랑이 밑에 매듭 고리 단추가 부착되어있고 이 지점에서 10cm 간격의 매듭 고리 단추가 3개 연속 부착되어있다.
- 수구袖口는 22cm, 고대는 약 13.3cm로 깃너비 5cm의 만다린 카라가 부착되어 있으며, 역시 누비 되어있다.
- 앞길 밑자락 둘레는 77.6cm로 옆선 좌우 끝에서 각각 47cm의 트임이 있다. 좌 39.3cm, 우 39.1cm이며 뒷중심선 끝에서 3.7cm의 곡 옆선 중앙에 11.7cm의 속주머니가 부착되어있다. 뒷길 중심과 안섶에 약 9.2cm의 간격으로 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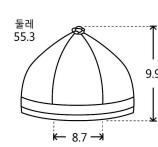
1) 18세기 청대(清代)의 치파오: 전통한복과 한스타일, 채금석, 지구문화, 2012, 393p

2) 독립운동가를 지켜준 장천(長衫)과 치파오(旗袍): 중국 복식으로 살펴본 독립운동가의 망명 생활, 박상현 기자, 연합뉴스, 2015.08.06. 기사

3) 치파오를 착용한 여성: 위키백과사전, 치파오

길이 길며 뒷길 안쪽에 약 4.3cm 너비의 안단이 둘러져있다.

○ 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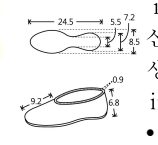


i) 내용: 이회영 유품 중 모자는 중국식 모자로서 모자의 소재는 검정색 비단絲로 되어있고, 밑둘레는 검정색 평직단으로 선이 둘러져있다.

ii) 특징:

- 모관의 높이는 9.9cm, 둘레는 55.3cm로 모두 6면 구성으로 되어있고 각 면의 너비는 8.7cm이다.
- 모자 소재 역시 두루마기와 마찬가지로 검정 능직絲에, 밑단 역시 평직단으로 매우 호사스럽게 제작되어있다.

○ 신발



i) 내용: 우당 이회영이 1930년대 독립운동가로 활동 당시 신었던 중국식 신발로서 당시 활동무대였던 만주 거주인들의 생활상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이회영 유품 중의 하나이다.

ii) 특징:

- 신의 길이는 24.5cm, 앞축 너비 8.5cm, 뒷축 너비 7.5cm. 뒷축 높이 6.8cm, 앞면 길이는 9.2cm로 남자신으로서는 비교적 작은 크기이다.
- 검정색 기모(毛)가 있는 비단毛緞으로 제작되어 있는 고급 소재의 신발로써 독립운동가의 활동복식으로는 매우 호사스러우며, 역시 조선시대 末 명문가 후손으로서의 면모가 엿보인다.

3) 문헌자료

- 전통한복과 한스타일, 채금석, 지구문화, 2012
- 개항이후 남자 모자에 관한 연구, 김이든, 이화여대 학위논문(석사), 2007
- 매일신보광고를 통해 본 일제시대 한국복식의 변천, 김에런, 김진구, 복식문화학회, 1999
- '조선일보'에 나타난 복식변천과 변천요인에 관한 연구 : 일제 문화정치시대를 중심으로, 최선희, 국민대 학위논문(석사), 1994
- 동아일보에 나타난 복식의 연구 : 1920년부터 1945년까지, 손명임, 한양대 학위논문(석사), 1989
- 개화기 이후 한국 단직물에 관한 연구, 신혜성, 이화여대 학위논문(석사), 2000

3)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가치평가
- 가. 역사성

- 이회영 독립 운동가가 남긴 本 유물 복식은 20세기를 전후한 일제강점기 모국을 떠나 만주 등지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한 독립 운동가들이 입었던 중국식 복식으로, 이는 당시 만주인의 생활상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한다.
- 따라서 本 유물은 비록 한국인 독립 운동가의 복식이긴 하나, 활동지역이 만주를 비롯한 중국지역으로 중국 근대 복식사적 가치는 있으나, 한국 근대 복식사와는 무관하다는 아쉬운 면이 있다.

나. 학술성

- 1) 本 유물 일체는 근대기의 중국식 두루마기, 중국식 모자, 중국 신으로 중국 근

대 복식사의 자료적 가치가 있다. 이는 비록 조선조 명문가 후손인 독립 운동가 이회영이 중국 만주에서 활동하면서 만주인들의 근대 복식을 그대로 착용하고 있어 당대 중국의 근대복식사적 사료적 가치가 있다.

- 2) 이회영은 귀족 상류계층 명문가 출신으로서 복식 소재가 모두 견직물로 된 단, 사, 주)緞, 絲, 紬 등 고급 비단으로 수제작으로 되어 매우 호사스러운 풍모를 보인다는 점에서 비록 외국타지에서 어렵고 힘든 독립운동을 펼치는 활동가로서 가히 그 출신을 엿볼 수 있는 사료적 가치가 있다.
- 다. 보존상태: 두루마기, 모자, 신발이 모두 원형 상태가 온전히 유지되어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하며, 제작시기(약1920년대)가 비교적 확실하다.

라. 희소성

4) 종합의견

- 本 이회영의 유품-두루마기, 모자, 신발 일체는 일제강점기에 당시 독립 운동가들이 고국을 떠나 만주 등지의 중국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숨기고 현지인으로 위장 활동하며, 착용하였던 복식으로 이는 대한민국 독립 운동가들의 중국이라는 타국에서의 생활상을 알 수 있게 하며, 독립운동사적 측면에서는 주요한 자료로 판단된다.
- 本 유물의 근원은 중국 청대 전통복인 치파오旗袍를 단순화, 간편화시켜 현대화시킨 의상으로 당시 중국복식의 근대사를 조명한다.
- 本 유물은 한국 조선조 명문가의 후손인 이회영이 비록 고국을 떠나 타국에서 독립운동을 펼치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 복식의 소재, 침선 상태를 볼 때 매우 호사스러운 상태로 수제작되어있어 당대 한국 명문가의 후손으로서의 생활상의 면모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자료이다.
- 本 유물은 착용자, 착용 시기, 착용 장소 등이 명확하고 그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 「국가문화재」로서의 등록 기준에 있어 범국가적인 명예적 가치, 역사적 가치의 상징적 의미 등 그 기준을 참고할 때, 本 유물은 이회영이 중국에서 독립 운동가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중국인으로 위장하며 행세하기 爲해 현지인의 복장을 하고 활동했다는 생활상을 보여준다. 당시 독립운동가의 복식 가운데 한국 근대 생활사를 보여주는 한국 복식이 다량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근대 복식사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本 유물이 과연 한국의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가에 그 여부 판단은 매우 어렵다.

<○○○ 교수>

1) 현상

- 이회영(李會榮, 1867-1932)은 조선 선조시대 영의정을 지낸 이항복(李恒福, 1556-1618)의 후손으로 구한말 명문가 출신이다. 1905년 을사조약 파기운동을 전개하였고, 1907년에는 신민회를 조직하는 데 참여하였다. 44세인 1910년에 대한제국이 일본에 합병되자 여섯 형제와 가솔을 이끌고 유하현(柳河縣) 삼원보(三源堡)로 망명하여 만주 독립운동 기지 건설에 매진하였다. 1911년에 교민자치기관으로 경학사(耕學社)를 조직하고, 1912년에 독립군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신홍강습소(후에 신홍무관학교로 개칭)를 설립하였다. 이후에도 만주를 근거지로 독립운동을 전개하다 1932년 일본 경찰과 중국 수상서원에게 잡혀 고문 끝에 여순감옥에서 옥사하였다.



- 본 유물은 독립운동가 이회영이 착용한 복식 일습으로 모자 1점, 치파오 1점, 신발 1켤레로 구성되어 있다.
- 본 유물은 근대 중국에서 착용된 복식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복식은 아니지만 국권을 강탈당한 후 중국으로 망명한 독립투사들이 일제의 감시를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중국복식을 착용하였던 시대적 상황을 감안할 때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1>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위원들이 1935년 11월에 촬영한 사진으로 왼쪽에서부터 송병조, 조완구, 김구, 이동녕, 조성환, 이시영, 차리석이다.(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편찬위원회 편,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44, 탐구당 문화사, 2011, p.139) 사진 속 인물들은 모두 중국복식인 치파오를 착용하고 있다. 이회영이 본 유물을 착용한 사진은 남아 있지 않지만 정황상이 유물은 만주에서 활동하던 시기에 착용하였던 복식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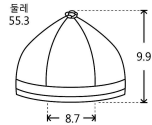
<그림 1>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위원(1935.11)

2) 내용 및 특징

- 모자의 겉감은 사직(紗織), 안감은 면으로 색은 검은색이다.<그림2>, <그림3> 삼각형 6조각을 연결한 육합모(六合帽) 형태이고 정수리에 연봉매듭이 달려 있으며 손바느질로 제작되었다. <그림4>는 모자의 도식화로 높이는 9.9cm, 아랫부분의 총 둘레는 55.3cm, 삼각형 형태의 조각 아랫변은 8.7cm 이다.



<그림 2>모자 겉 <그림 3> 모자 안



<그림 4> 모자 도식화

- 치파오는 겉감은 검정색 능직 비단, 안감은 녹색 면으로 제작되었는데 5.2cm 혹은 5.3cm 정도로 누벼져 있다.
- <표 1>을 참고하면 총길이는 122.8cm 이고 화장은 현재 좌우가 달라서 82cm, 80cm 이다. 좌우 옆선에 주머니 분량으로 11.7cm와 13.7cm 의 트임이 있고 좌우 옆선 아랫자락에도 47cm의 트임이 있다. 안길에는 실이 달리지 않고 길만 있는데 안길의 길이는 뒷길 아랫단보다 9.2cm 짧다. 우임으로 매듭단추가 모두 6개 달려 있다. 깃은 둥글고 착용시에 목을 감쌀 수 있는 세운 깃 형태이다. 앞길 왼쪽 아래에 기운 흔적이 있다. 안길 겉에 주머니가 달려 있다. 가장자리는 겉감을 안감쪽으로 4.3cm 정도 접어서 안단처리를 하였다. 어깨술기는 없고 평면재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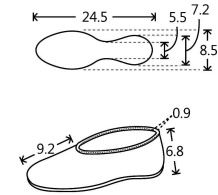
<표 1> 이회영 치파오 사진과 도식화

	치파오 앞모습	치파오 뒷모습	치파오 안설
사진			
도식화			

- 신발의 재료는 검은색 벨벳이고 제일 긴 길이가 24.5cm, 가장 넓은 부분의 너비는 8.5cm이며 뒤축에 쇠조각이 2개씩 부착되어 있다.<그림5>, <그림6>



<그림 5>신발 사진



<그림 6>신발 도식화

3) 문헌자료

- 이덕일, 이회영과 젊은 그들, 역사의 아침, 2009.

4) 기타

- 본 유물은 1985년 12월 아들인 이규창(李圭昌)이 독립기념관에 기증하였다.
- 본 유물에 대해 독립기념관의 유물 소개와 문화재청에서 발간한 <2012 근현대의 생활분야 목록화 조사 보고서>에서 ‘이회영 중국식 두루마기’로 명명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로 만주족의 민족복으로부터 유래한 청나라 의복을 남녀 통칭하여 ‘치파오(旗袍)’라고 부르는데 현대에는 여성복만을 지칭하기도 한다. 기존과 같이 중국식 두루마기로 명명할 경우 겉옷으로 착용하는 길이가 긴 포인테 중국옷이라는 것으로 의미는 통할 수는 있으나 트임이 없이 모두 막혀있고 삼각형 무가 달리는 두루마기의 형태적 특징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회영 중국식 복식 일습’으로 명명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5)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본 유물은 독립운동가 이회영의 유품으로 모자 1점, 치파오 1점, 신발 1켤레로

구성되어 있다.

- 본 유물은 근대 중국에서 착용된 복식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복식은 아니지만 국권이 강탈된 후 만주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을 하였던 독립투사들이 일제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중국인의 복식을 착용하면서 생활하였던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국가지정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복식사적으로도 독립투사들의 의생활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로서 의미를 지니는 한편 근대 시기 중국복식의 특징을 연구하는 데에도 귀중한 유물이다.

6)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본 유물은 오랜 기간 동안 마네킹에 입힌 상태로 전시되어 왔다. 이로 인해 어깨 부분이 늘어나서 평면재단으로 구성하였지만 현재 어깨 경사가 있는 형태로 제작된 것처럼 변형되었다. 더 이상의 손상을 막을 수 있도록 가능하다면 복제품을 제작하여 전시할 것을 제안한다.

7) 종합의견

- 본 유물은 독립운동가 이회영이 착용한 중국식 복식 일습으로 우리 고유의 복식은 아니지만 국권이 강탈된 후 만주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을 하였던 독립투사들이 일제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중국인의 복식을 착용하면서 생활하였던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국가등록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지닌 것으로 판단됨

<○○○ 연구원>

1) 현상

-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에 추서된 저명한 독립운동가 이회영이 평소 착용하던 중국식 의복(중국식 두루마기)과 모자, 신발(한켈레) 등 일괄 유품이다. 1932년 11월 중국 따론펜(大連)에서 일본 경찰에 체포될 때 입고있던 옷으로 전한다.
- 모자와 의복, 신발 모두 평소에 착용하던 것으로 겉은 검은 색(黑色)이다. 의복 안쪽은 원래 열은 황색 계통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은 다소 변색된 듯, 누런색을 띠고 있다. 의복과 신발은 다소 마모된 부분이나 변색, 탈색된 부분도 있지만, 대체로 보존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의복은 겨울용이라 비교적 두툽한 편으로 안에는 솜(綿)으로 누벼져 있다. 모자는 안쪽과 밑의 가장자리 부분이 상당히 마모되어 있다.

2) 내용 및 특징

- 이회영(李會榮;1867~1932)의 유품 중의 하나인 중국식 두루마기와 중국식 모자, 신발 등 일괄 유품이다.
- 이회영은 1906년 신민회를 조직하는데 참여하였고, 1900년대 초 구국계몽운동의 일환으로 설립된 서울 상동청년학원의 학감을 지냈으며, 남만주 독립운동기지 건설에도 앞장섰다. 1911년 한인 교민 자치기관으로 경학사(耕學社)를 조직하고, 1912년 독립군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신흥강습소를 설립하였다. 이후에도 중국동북(만주) 지역과 북경·상해지역을 근거지로 독립운동을 전개하다 1932년 11월 일본 경찰에게 잡혀 고문 끝에 그해 11월 옥사하였다.
- 1910~30년대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던 애국지사들은 일본 경찰이나 밀정, 중국 당국의 추적과 탄압을 피하기 위해 중국인으로 위장(혹은 변장)하여 몰래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회영의 이 유품은 그러한 실상과 생활상을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 이회영이 1932년 11월 중국 동북의 따론펜(大連) 수상(水上)경찰서에 피체되어 같은 해 11월 17일 옥중에서 순국할 당시 입었던 의복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출처가 분명하고 소장경위가 확실하며, 이회영 일가 등 6형제의 중국 망명과 독립운동을 여실히 증명하는 귀중한 유품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본 유물은 저명한 독립운동가 이회영의 유품으로 전승, 확인되고 있음. 따라서 유물의 가치와 희소성, 그 역사적 의의 등을 고려하여 근대문화재로 등록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1920~30년대 초 한민족의 해외(중국지역) 독립운동과 독립운동가들의 생활상을 증명하는 귀중한 유물로 판단됨. 추후 보다 정밀한 고증과 검증, 보존처리 등을 거쳐 근대문화재로 등록, 우리 민족 독립운동사의 생생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4) 문헌자료

- 독립기념관, 『독립기념관 전시품 도록』, 1995.
- 한상복, 「독립운동가 가문의 사회적 배경 : 우당 이회영 일가의 사례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1989.11),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외솔회, 「우당 이회영 특집」, 『나라사랑』 104집(2002.10),
- 편집부, 「우당 이회영 선생(1867년~1932년) 화보」
- 편집부, 「우당(友堂) 이회영(李會榮) 해적이」
- 박환, 「이회영의 생애와 민족운동」
- 이덕일, 「우당 이회영의 30년대 전후의 독립운동」
- 서중석, 「이회영의 교육 운동과 독립군 양성」
- 한상복, 「이회영과 그 일가의 독립운동」
- 권오돈, 「신념에 순절(殉節)한 이회영」
- 정옥재, 「독립운동가로서의 이회영과 이시영 : 성재(省齋) 이시영을 중심으로」
- 이정규, 「우당 이회영 선생 약전」
- 김명섭, 「우당 이회영의 아나키즘 인식과 항일 독립운동」,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7(1)(2008.3),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 김명섭, 「1920년대 전반기 북경지역 한인들의 아나키즘 수용과정과 활동」, 『한국근현대사연구』 69(2014.6), 한국근현대사학회.
- 이호룡, 「이회영의 아나키스트 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3(2009.8),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이덕일, 『이회영과 젊은 그들』, 역사의아침, 2010.
- 한시준, 「신흥무관학교와 한국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0(2011.12),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김귀옥, 「식민적 디아스포라와 저항하는 여성 : 이은숙과 정정화를 중심으로」, 『통일인문학』 62( 2015.6),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 최열, 「이회영, 천년의 기운을 머금은 난초」, 『내일을 여는 역사』 60(2015.9), 서해문집.
-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공훈록』 (이회영)

5)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근대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방안을 확실히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목적으로 전시, 연구, 교육 등 다방면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18. 「의병장 유인석 심의」 문화재 등록

#### 가. 제안사항

- 「의병장 유인석 심의」를 문화재로 등록하고자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의병장 유인석 심의」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5.12.11)를 실시 하고,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문화재청  
 (※ 2014년도 '근대문화유산 항일독립운동분야 목록화 조사 연구' 후 자문회의를 통한 검토 대상으로 선정)
- (2) 대상문화재

유물명	수량	규 격	제작년대	재질	소유자	소재지	비고
의병장 유인석 심의	1건 3점	심의-길이 128.2cm, 복건-길이 74.8cm, 대대-길이 390cm	1900년대 추정	직물	제천의병 전시관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의암로 566-7 제천의병 전시관	

- (3) 검토사항 : 문화재 등록 검토

#### 라. 검토의견(관계전문가)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5.12.11.)>

- ○ ○ ○ 위원
  - 의암 유인석은 문인으로 개항반대운동을 전개하며 1896년에는 의병대장으로 취임하여 충주성을 장악하는 등 많은 제자를 양성하며 의병활동을 한 인물임. 의암 유인석의 유품인 본 유물은 조선시대 말(1870년대 이후)에 통용된 심의로서 복식사적 가치가 매우 높음..
  - 학술적 관점에서, 그 제도 형식에 시대적으로 변화가 있어 온 상의하상식 심의의 형태와 구조를 살펴볼 때 본 유물은 조선말기 심의 형태를 그대로 명확하게 실증할 수 있는 중요한 실물 자료로 판단된다. 또한 착용자와 착용 시기 등이 명확하고, 착용자가 조선말기 명문가의 후예로써 독립운동을 활발히 전개한 족적은 한국 역사, 문화, 사회에 기념이 되는 상징적 가치가 인정됨.

- 6) 기타
  - 1985년 12월 이회영의 아들인 이규창(李圭昌)이 독립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에 기증하였다. 1932년 중국 동북의 따롰(大連) 수상(水上)경찰서에 피제되어 같은 해 11월 17일 옥중에서 순국할 당시 입었던 의복으로 전해지고 있다.
  - 이회영은 국가보훈처에서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할만큼 확실히 독립운동의 공로가 인정되고 있으며, 조선(한국)의 명문가였던 이시영·이석영 등 6형제의 중국 망명과 독립운동은 소위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전형으로 널리 알려져 있음.
  - 소장 경위가 비교적 확실하게 파악되고 있으며, 유사 물품이 거의 없어 희소가치도 있다고 판단됨.
- 7) 종합의견
  - 한국 아나키즘운동사, 독립운동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회영 선생이 1932년 일본 경찰에 체포될 때 착용한 중국식 의복으로 근대문화재로 등록 보존할 충분한 가치가 있음.

- 따라서 본 유물은 자랑스러운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범국민적인 긍정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국가문화재」로 등록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 ○ ○ 교수
- 본 유물은 독립운동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인물인 유인석이 착용한 심의였다는 측면에서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를 충분히 지닌다고 판단됨.
- ○ ○ ○ 연구원
- 한국근대사와 독립운동사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의암 유인석이 평소 애용하였던 옷(深衣)으로서 근대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만한 가치가 충분함.

<근대문화재과 의견>

- 한국근대사와 독립운동사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의병장 유인석이 평소 애용하였던 심의로서 등록문화재로 등록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 참 고

<항일독립운동분야 등록기준>

<p>&lt;시간적 기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95년~1945년에 생산되거나 사용된 항일독립운동 관련 유물</li> <li>○ 동일한 항일독립운동 분야 유물 중에서 시기가 가장 앞서는 것</li> <li>○ 항일독립운동이나 독립운동가와 관련한 출판물일 경우 가능한 초판본으로 하되 출판 당시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희소한 것</li> <li>○ 당대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록한 것</li> </ul> <p>&lt;공간적 기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일독립운동 분야에서 대표할만하고 지역적인 특수성을 지닌 것</li> <li>○ 항일독립운동 관련하여 지방사의 특징이 두드러진 것</li> <li>○ 항일독립운동 현장에서 직접 사용된 것</li> </ul> <p>&lt;내용적 기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일독립운동과 관련한 유물 중에서 독립운동사적·자료적 가치가 큰 것</li> <li>○ 유물의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역사적 가치가 높으며 희귀한 것</li> <li>○ 육필 원고의 경우 독립운동가의 필적이 밝혀진 것</li> <li>○ 비중 있는 독립운동가가 직접 사용하였거나 제작한 유품</li> <li>○ 유물 제작과 독립운동가가 착용 및 사용한 이력이 뚜렷하고 용도가 구체적인 것</li> </ul>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6명, 원안가결 6명

붙임 : 「의병장 유인석 심의」 조사보고서 1부.

「의병장 유인석 심의」 조사보고서

1. 명 칭 : 의병장 유인석 심의
2. 소재지 :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의암로 566-7
3. 소유자 : 제천의병전시관
4. 조사자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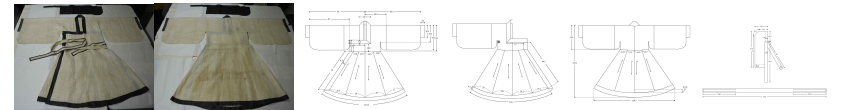
<○○○ 위원>

1) 현상

- 의암 유인석 柳麟錫(1842-1915)은 조선 후기의 학자이자 의병장이다. 1876년 강화도 조약을 체결할 때 화서학과 문인으로 개항을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 1894년 갑오개혁 후 김홍집의 친일내각이 성립되자 1896년 의병대장으로 취임하여 의병을 일으켰으나, 관군에게 패전하고 만주로 망명하여 활동하였으며, 국권피탈 후에도 연해주에서 독립운동가로서 계속 활동하였다.
- 심의는 衣(상의)와 裳(하의)이 하나로 연결된 겹옷으로 그 시원(始源)은 약 B.C 700년경부터 발생하여 중국에서는 천자에서 서인에 이르기까지 입혀졌다. 「고려사」 의종조에 ‘요(遼)의 제존조위사(祭尊弔慰使)가 숙종의 궁에서 제(祭)하였는데, 왕이 심의를 입고 심존을 드렸다.’라는 기록에서 의종이 심의를 상(喪)으로 입었음을 알 수 있고, 그 착용 형태는 익제 이체현(益齊 李齊賢)의 초상화에서 볼 수 있다.<sup>4)</sup> 조선시대에는 사대부(士大夫) 家의 율학자들이 通服(통복)으로 착용하였으며, 朝服(조복)과 祭服(제복) 다음가는 상복(上服)이었다.
- 심의는 몸을 깊게 휩싸일 만큼 그 여밈이 깊고, 또 의(義)를 취함이 깊으므로 깊을 “심(深)”자로 명명되어졌다.
- 심의의 제도(制度)에서 깃은 몸 좌우(左右)에 만들고, 소매는 팔꿈치를 지나게 하며 장의(長衣)와 중의(中衣)는 손을 덮도록 하며 소매넓이는 1척 2촌, 깃은 곡령, 직령, 지령(曲領, 直領, 之領)으로 되어있고, 곡령은 2寸, 깃의 넓이는 1촌 반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또한, 좌우 앞길 여밈이 교임양식(깊게 겹치는 양식)(깊지 않은 양식), 대의금(깃이 마주보는)양식 등으로 구분되고 소매 배래도 진동에서 수구(袖口)쪽으로 깊게 둥글게 곡(曲)진형, 얇게 둥글게 곡(曲)진형, 직선형, 두리소매형 등 그 디테일이 다양하다.

2) 내용 및 특징

- 조선시대 말 의암 유인석이 입은 것으로 알려진 本 유물은 심의, 대, 복건, 일착삼점(一着三點)이다.



- 衣:
  - 本 유물 심의의 형식은 방령(方領), 두리소매로 섯선이 령(領)에서 직각으로 꺾여 다시 직각으로 밑단까지 도련이 직선으로 내려오며 깃, 수구, 도련, 밑단에는 너비 5cm의 흑색 가선이 둘러져 있다.

4) 朝鮮時代 深衣 構成詩論(林珪壽의 外服攷를 中心으로), 趙孝順, 한국복식학회지, 1996



- 허리선 아래 상(裳)의 폭 수는 앞길좌우 上 넓이 13.5~14.2cm, 下 넓이 26.5~28cm, 길이 76cm의 각각 4쪽으로 이어져 총 8쪽이 연결되어있으며, 뒤는 4쪽으로 연결되어있다.

- 右 진동 끝에 매듭 고리 단추가 부착되어있다.

- 심의의 소재는 평직 백세포이며, 흑색가선은 평직 주(紬)로 되어있다.

○ 대대(大帶) : 길이 390cm로 소재는 황색 지(紵)로 되어있고 약 1cm의 흑색 주(紬)의 가선이 둘러져 있으며, 양쪽 끝에서 左 106.5cm, 右 105.3cm되는 지점까지 너비 1cm의 흑색 가선이 둘러져있다.

○ 복건(幅巾): 가로 26.2cm, 세로 74.8cm의 흑색비단주(紬)로 되어있고, 폭두 폭정(幅頭 幅頂)에서 21.3cm 되는 지점 좌우에 너비 5cm, 길이 82.5, 62cm의 끈이 부착되어있다.

○ 本 심의 유물은 조선 末에 나타나는 심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3) 문헌자료

○ 심의고증, 정윤용, 민속원, 2014

○ 한국복식문화-고대편, 채금석, 경춘사, 2016 출판 예정

○ 深衣에 關한 研究(朝鮮時代를 中心으로), 李永馥, 家政學研究, 1985

○ 조선시대 深衣 유형에 관한 연구, 권영숙, 문명옥, 정혜경, 최은주, 韓國衣類學會誌, 1989

○ 朝鮮時代 深衣 構成詩論(朴珪壽의 外服攷를 中心으로), 趙孝順, 한국복식학회지, 1996

3)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가치평가

가. 역사성

- B.C 7C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sup>5)</sup> 심의는 조선시대에는 사대부 가의 유학자들이 착용한 평상복이다. 복식사적으로 그 형태와 구조는 1640년대의 구암유고를 비롯하며 1900년대까지 시대에 따라 그 세부 형식이 다양하다.

- 본 심의는 백세포로 제작되어 그 세부적 특징은 깃은 방령, 두리소매, 상은 전좌4, 우4, 후4 등 총 12폭으로 연결되어 있고, 깃, 도련, 수구에 흑주로 가선이 둘러져 있는 조선조 末 ‘심의’의 형식과 매우 흡사한 형태로 한국 전통 복식사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 판단된다.

나. 학술성

1) 심의는 그 제도형식에 있어서 깃은 직령(直領), 곡령(曲領), 방령(方領), 소매 배례는 깊은 곡선형, 얇은 곡선형, 직선형, 두리소매형, 여밈은 대금형, 교입형으로 분류되며, 하상폭 수는 전좌3, 전우3, 후6이거나, 전좌4, 전우4, 후4 등 그 폭수 배치에 차이는 있으나 총 12폭이 연결되어 완성되는데<sup>6)</sup>, 본 유물은 조선말엽의 전좌4, 전우4, 후4의 상폭으로 특징된다.

2) 의의와 상裳이 연결되어 있음은天和地가 서로 닿아있어 위·아래가 통한다는 소통의 의미가 있다.

3) 본 유물의 소재를 백세포로 사용함은 古來로부터 한민족이 신분귀하에 상관없이 백세포로 옷을 지어 입었다는 고서기록과 그대로 통한다. 이는 <삼국지>에 고대 한민족은 스스로를 하늘의 자손(子孫)으로 여겨 하늘을 만물의 근원으로 보았다는 관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늘을 상징하는 것은 태양이고, 태양빛을 흰빛으로 여긴 고대 한민족의 관념에서<sup>7)</sup>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이는 흰빛을 불길함으로 여겨 선호하지 않았던 고대(古代) 중국인의 관념(觀念)과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참고할 때<sup>8)</sup>, 심의의 중국으로부터의 전래(傳來)라는 학술적 관점에 의문이 든다.

4) 본 유물은 조선시대 말 심의형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으로 상폭이 전좌4, 전우4, 후4 총 12폭으로 조선 중후기와 차별을 보이는 구조로써 학술적인 자료로서의 가치가 높다.

다. 보존상태: 조선시대 말 19세기 후반 경으로 추정되며, 착장자가 명확하고,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라. 희소성:

1) 현재 심의는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초상화에서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있으며, 현존 유물은 경기도 박물관, 부산대 박물관에 20세기 초경의 것으로 추정되는 심의가 소장되어있다.

2) 본 유물은 19세기 중후반의 것으로 추정되며, 그 형태와 세부구조에 있어 위 박물관 소장 심의와 약간의 차이가 보인다.

3) 따라서 본 유물은 희소가치가 매우 높고 역사성, 학술성 측면에서 문화재로 등록되어 보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종합의견

○ 의암 유인석은 문인으로 개항반대운동을 전개하며 1896년에는 의병대장으로 취임하여 충주성을 장악하는 등 많은 제자를 양성하며 의병활동을 한 인물이다.

○ 의암 유인석柳麟錫 1842-1915의 유품인 본 유물은 조선시대 말(1870년대 이후)에 통용된 심의深衣로서 복식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

○ 학술적 관점에서, 그 제도 형식에 시대적으로 변화가 있어 온 상의하상식 심의의 형태와 구조를 살펴볼 때 본 유물은 방령方領, 교입형, 두리소매, 상폭 전좌4 전우4 후4 등의 조선말기 심의 형태를 그대로 명확하게 실증할 수 있는 중요한 실물 자료로 판단된다.

○ 또한 착용자와 착용 시기 등이 명확하고, 또한 착용자가 조선말기 명문가의 후예로써 독립운동을 활발히 전개한 족적은 한국 역사, 문화, 사회에 기념이 되는 상징적 가치가 인정된다.

○ 따라서 본 유물은 자랑스러운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범국민적인 긍정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국가문화재」로 등록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5) 深衣에 關한 研究(朝鮮時代를 中心으로), 李永馥, 家政學研究, 1985, 62p

6) 심의고증, 정윤용, 민속원, 2014, 9p

7) 한국복식문화-고대편, 채금석, 경춘사, 2016 출판 예정

8) 한국복식문화-고대편, 채금석, 경춘사, 2016 출판 예정

<○○○ 교수>

1) 현상

- 명칭 : 유인석(柳麟錫) 심의(深衣) 일습
- 색상 : 소색(素色)
- 소재/구성 : 저포(苧布), 검은색 명주, 손바느질
- 이상은 외 2인, 중원지방의 심의와 도포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7(2), 1998.을 통해 학계에 소개된 바 있음.

2) 내용 및 특징

- 본 유물은 의암(毅菴) 유인석(柳麟錫, 1842-1915)이 착용한 것으로 전해지는 심의(深衣)이다. 의암은 구한말 국가의 위기상황에서 평생에 걸쳐 반개화, 항일 운동의 선봉에 섰던 학자이자 의병장이었다.
- 심의는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복식이다. 허리 윗부분을 의(衣)라고 하고 아랫부분을 상(裳)이라고 하여 상의하상(上衣下裳)이 연결된 원피스 형태로 구성되고 깃부분, 단부분, 수구(袖口) 부분에 검은색 연(緣) 혹은 선(縮)을 낸다.
- 심의는 옷 자체에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어서 의와 상이 나뉘어진 것은 각각 건곤(乾坤)을 의미하며, 4폭으로 구성되는 의(衣)는 4계절을, 12폭으로 나뉘어진 상(裳)은 12개월을 의미한다.
- 심의는 고려말 주자학의 전래 후부터 조선시대에 유학자들이 법복(法服)으로 즐겨 입었다. 특히 조선후기 학자들에 의해 직령심의와 함께 깃이 사각형으로 각이진 방령(方領) 형태의 심의가 착용되었다.
- 유인석 심의 유물은 조선후기에 착용되었던 방령심의의 형태를 계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유인석의 초상화로 알려져 있는 <그림1>은 현재 유인석의 표준 영정으로 지정되어 있다.9) <그림1>은 후대에 제작된 것으로 표준영정의 지정년도는 1986년이고 제작 작가는 조규환이다. 이 초상화는 유인석이 복건에 방령심의를 착용한 모습으로 제작되어 있는데 유인석이 착용하였다고 전해지는 방령심의와 같은 형태이다. 후대에 그려진 초상화이기 때문에 유물로 남아 있는 방령심의를 참고하여 그려졌을 가능성이 있다.
- 조사한 유물은 심의 1점, 복건 1점, 대대 1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촬영한 사진과 실측 치수를 바탕으로 그린 도식화는 다음 <표1>와 같다. 총길이는 뒷길기준으로 128.2cm이다. 이중 의(衣)의 길이는 54.4cm, 상(裳)의 길이는 73.8cm이다. 심의의 화장은 94cm, 반폭은 33cm, 소매너비는 55.5cm이다. 상에는 모두 12폭이 연결되어 있는데 허리에서는 평균 14cm, 단에서는 28cm 정도의 너비였다. 깃부분에는 5.5cm, 상의 가장자리에는 4.5cm의 선이 부착되어 있다. 여밈을 위해 고름 대신에 방령 깃의 오른쪽 끝에 천으로 만든 매듭단추 2개가 달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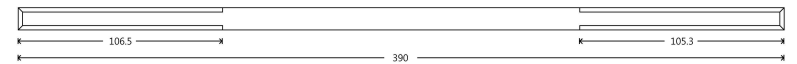


<그림1>유인석 초상화

<표1> 유인석 심의 조사 사진과 도식

	사진	도식
심의 앞		
심의 뒤		
심의 안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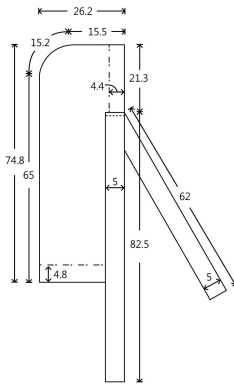
- 대대(大帶) : 유인석 심의의 대대 역시 소색의 포로 제작되었고, 너비는 5.5cm, 길이는 390cm이며 검은색 포로 양끝에서 105 혹은 106cm 되는 지점까지 선을 두르고 있다. <그림 2>는 대대의 도식화이다. 유인석 심의에는 오채조(五采條)가 남아 있지 않다.



<그림 2> 유인석 심의의 대 도식화

- 복건 : 유인석 심의의 부속품으로 복건은 검은색 명주로 제작되었고 너비는 26.2cm, 길이는 74.8cm 이고 끈의 너비는 5cm, 길이는 짧은 끈 62cm, 긴 끈 82.5cm 이다. 훗겹이고 안쪽으로 4.4cm 혹은 4.8cm를 접어 넣어서 안단으로 처리하였다. <그림 3>은 유인석 복건의 도식화이다.

9) <그림1>은 이강철 외 저음, 역사인물 초상화 대사전, 현암사, 2003, p.525 에 수록되어 있음.  
표준 영정 관련 자료는 한민족 정보 마당, 표준 영정 사이트에서 검색,  
<http://www.kculture.or.kr/korean/portrait/portraitView.jsp>, 검색일 : 2016년 1월 9일.



<그림 3>유인석 복건 도식화

### 3) 문헌자료

-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소 기획, 오영섭 지음, 유림 의병의 선도자 유인석, 역사공간, 2008.
- 정윤용 지음, 윤호진, 박윤미 옮김, 심의고증, 민속원, 2014.
- 정혜경, 심의(深衣), 경남대학교 출판부, 1998.
- 이상은 외 2인, 중원지방의 심의와 도포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7(2), 1998.
- 이강칠 외 지음, 역사인물 초상화 대사전, 현암사, 2003.

### 4) 기타

- 본 유물은 의암 유인석의 증손인 유연수(柳然壽)가 소장해 오다가 제천시에 기증하여 현재 제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천의병기념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 현재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의 중요민속문화재 제113호 ‘홍진종(洪鎭宗, 1649-1702)의복’ 중 직령 심의가 포함되어 있다. 방령심의 유물로는 1900년대 초반 유물로 추정되는 부산대학교 박물관 소장 노상익(盧相益, 1849-?) 심의(정혜경, p.161)와 대한제국 이후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기도박물관 소장 심의가 보고되어 있다. 본 유물은 심의 혹은 방령심의로서의 희소가치보다는 착용자의 역사적 중요성 측면에서 중요한 유물로 사료된다.

### 5)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본 유물은 의암(毅菴) 유인석(柳麟錫, 1842-1915)이 착용한 것으로 전해지는 심의(深衣)이다. 의암은 구한말 국가의 위기상황에서 평생에 걸쳐 반개화, 항일 운동의 선봉에 섰던 학자이자 의병장이었다. 본 유물은 의암의 증손이 소장해 오다가 제천시에 기증하여 현재 제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천의병기념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 본 유물은 것이 사각형 형태인 방령심의(方領深衣)와 부속품인 대대(大帶), 복건(幅巾)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의의 바탕 소재는 소색 저포(紵布)이고 모든 가장자리에는 검은색 명주로 선을 대었다. 이러한 방령심의 유물로는 현재 부산박물관과 경기도 박물관에 소장된 유물들이 있고 두 유물의 착용연대는 대체로 20

세기 초반으로 추정되고 있다.

- 본 유물은 착용자가 독립운동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인물인 유인석이라는 측면에서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를 충분히 지닌다고 판단된다.

### 6)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현재 상(裳)에 착용에 의한 오염이 남아 있음. 보존 상태는 양호함.

### 7) 종합의견

- 본 유물은 독립운동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인물인 유인석이 착용한 심의였다는 측면에서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를 충분히 지닌다고 판단된다.

## <○○○ 연구원>

### 1) 현상

- 심의는 조선시대~근현대 시기까지 전통적으로 주자학(성리학, 유학)을 수학하던 유생이나 선비들이 착용하던 겹옷이다. 이 심의는 한말~일제 초기 위정척사운동(衛正斥邪運動)과 의병항쟁, 해외 독립운동을 주도하여 크게 명성을 떨쳤던 유인석(柳麟錫, 1842~1915)이 1890년대에 입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후손이 기증하여 현재 충북 제천의 제천의병전시관에 소장, 관리되고 있다. 원래 심의는 머리에 쓰는 복건(幅巾), 허리띠 역할을 하는 대대(大帶), 신발인 흑履(黑履-검은 신발)와 함께 착용하는데, 흑리는 망실되어 현재 보존되고 있지 않다.

### 2) 내용 및 특징

- 심의와 함께 머리에 쓰는 복건(幅巾), 허리띠 역할을 하는 대대(大帶)가 함께 보존되고 있음. 백세포(白細布)로 된 심의의 본체는 다소 변색, 또는 탈색된 부분이 있지만, 비교적 보존 상태가 좋은 편임. 다만 심의의 맨 아랫부분 끝(下端)을 두른 검은 비단(黑綢緞) 부분이 약간 손상되었음, 현재 유인석이 신었던 흑리(黑履-검은 신발)는 망실되어 보존되고 있지 않음.

### 3)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본 유물은 구한말 대표적 의병장이자 독립운동의 큰 지도자인 의암 유인석선생이 평소에 착용하였던 의복(深衣)으로서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역사적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근대문화재로 등록, 보존하여 잘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국가 표준영정으로 지정된 ‘유인석 초상(1986년 조규환이 그림, 개인 소장)’을 보면 머리에는 검은 복건(幅巾)을 쓰고, 심의를 입고있는 모습으로 그려진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후손들의 증언을 토대로 초상화를 그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천의병전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인석 심의의 신빙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 19세기 말 조선(대한제국)의 유림들은 정부의 변복령(變服令, 1894년)과 단발령(1895년)에 크게 반발하고 있었다. 유생들은 특히 개화와 관료들이 변복령에 따라 검은색 제복을 입는 데 대해 격렬하게 반발하였다. 특히 단발령은 의병봉기의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 유인석도 이러한 변복령과 단발령에 크게 반발한 것은 당연했다.
- 따라서 유인석 등 위정척사파들은 상투를 틀고 우리의 전통의상을 착용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습속이자 서양문물에 대한 거부, 반감을 표시하는 하나의 수단이라 생각하였다.
- 본 심의는 19세기 말~20세기 초 우리민족이 내외외환에 시달릴 때, 그리고 유림의 종장(宗匠)이자 보수적 민족주의자인 유인석 선생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

을 당시의 수난상과 국난극복 의지를 보여주는 귀중한 의의와 가치가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근대문화재로 등록할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당시 기록과 최근의 연구, 관계자 및 증언 등을 고려하면 유인석이 이 심의를 입었던 것은 거의 확실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추후 정밀한 고증과 검증, 보존처리 등을 거쳐 근대문화재로 등록, 우리민족 대일항쟁기의 증거자료, 의병전쟁 및 독립운동 연구 자료 등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다만 구한말 유생들의 심의는 이외에도 여러 점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구한말의 대표적 유생인 화서(華西) 이항로(李恒老), 최익현, 민종식, 유종교, 김평묵 등 저명 지사(志士)들의 유사 유품이 없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음.

#### 4) 문헌자료

- 유인석(柳麟錫), 『毅菴集(의암집)』, 한국고전번역원(韓國文集叢刊), 2013.
- 김후경, 「의암 유인석의 학문과 사상」, 『사학연구』 34집(1982.6), 한국사학회.
- 송준호, 「위정척사파 시의 사상적 특질 -의암 유인석의 시를 중심으로-」, 『한국 문학연구』 14집(1992.2),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 유한철, 『유인석의 사상과 의병활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2.
- 유한철, 「중기의병 시기(1904~1907) 유인석의 시국대책론」, 『한국독립운동사연구』 7집(1993.12),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유한철, 「유인석의 의병 근거지론 : 1907년 이후를 중심으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8집(1994.12),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유한철, 「1910년대 유인석의 사상변화와 성격 : 「宇宙問答」을 중심으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9집(1995.12).
- 유한철, 「유인석의 연해주 망명과 국권회복운동의 전개 -망명 초기를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4집(1996.5), 한국근현대사학회.
- 유한철, 『유인석 의병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 오영섭, 「을미의병의 결성과정과 군사활동 : 제천의병을 중심으로」, 『군사』 43호 (2001.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박민영, 「유인석의 국외 항일투쟁 노정(1896~1915) -러시아 연해주를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19집(2001.12), 한국근현대사학회.
- 이영호, 「유인석의 처변삼사와 의병정신(서평)」 (이구영 편역주 『의병운동사적』, 현대실학사 2002), 『창작과비평』 31(1), 2003.3, 창비.
- 외솔회 편집부, 「유인석 특집」, 『나라사랑』 106집 (2003.9)
- 편집부, 「의암(毅菴) 유인석(柳麟錫) 선생 해적이」
- 원영환, 「의암 유인석의 생애와 구국 투쟁」
- 박민영, 「유인석의 해외 항일 투쟁」
- 윤병석, 「유인석의 중국 관전현 방취구의 수의처」
- 이구용, 「의암 유인석의 국내 항일의병 활동」
- 장삼현, 「의암 유인석과 호좌의병」
- 박성수, 「의암 유인석의 학맥과 존화양이 사상」
- 장현근, 「중화질서 재구축과 문명국가 건설 : 최익현·유인석의 위정척사사상」, 『정치사상연구』 8집(2003.11), 한국정치사상학회.
- 이황작, 「초기 근대 유교 계열의 민족주의 서사에 대한 연구 : 유인석의 「우주문답」을 중심으로」, 『문화와사회』 11(2011.11), 한국문화사회학회.

- 이등연, 「근대 초기 한국문인 한시작품 속의 ‘중국·중국인’ 형상 연구 : 유인석과 김택영을 중심으로」, 『중국인문과학』 51호(2012.8), 중국인문학회.
- 노관범, 「1910년대 한국 유교지식인의 중국 인식 : 柳麟錫, 朴殷植, 李炳憲을 중심으로」, 『민족문화』 40집(2012.12), 한국고전번역원.
- 윤대식, 「한국 위정척사의 보수응변(保守應變) : 유인석의 국권관념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인물사연구』 21(2014.3), 한국인물사연구회.
- 송기섭, 「의암 유인석 시에 나타난 斥邪의식과 현실대응에 관한 연구」, 『語文論集』 61(2015.3), 중앙어문학회.
- 노대환, 「유인석의 국권회복 운동과 華夷의식의 변용」, 『유교사상문화연구』 62(2015.12), 한국유교학회.
-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공훈록』 (유인석)

#### 5)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근대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방안을 확실히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목적으로 전시, 연구, 교육 등 다방면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6) 기타

- 후손이 제천의병전시관에 기증하여 잘 보존되고 있음.
- 다른 유학자나 유생들도 심의를 입었으므로, 보존·관리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다른 저명 유학자나 유생의 문중이나 박물관, 전시관 등의 소장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7) 종합의견

- 한국근대사와 독립운동사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의암(義菴) 유인석(柳麟錫)이 평소에 착용하였던 옷(深衣)으로서 근대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만한 가치가 충분함.

## 19. 근현대문화유산 동산분야(개신교, 식생활) 문화재 등록 추진 계획

### 가. 보고사항

- 근대 동산(개신교, 식생활) 유물의 문화재 등록 추진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나. 보고내용

- 근현대문화유산 동산분야(개신교, 식생활) 목록화 조사(2015년)를 실시하고 관계전문가 회의('16.2.2)를 거쳐 선정된 동산분야 문화재 등록조사 대상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하고자 함.

### 다. 문화재 등록조사 대상

#### (1) 개신교

- 개신교 분야 목록화 78건 중 등록 검토 대상 10건 선정
- ①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모자이크 제단화, ②예수성교성서(1~5권), ③ 마가전복음서언해, ④구약전서, ⑤찬미가, ⑥찬송가, ⑦천로역정 목판, ⑧천로역정(2책), ⑨세례대, ⑩성종

#### (2) 식생활

- 식생활 분야 목록화 263건 중 등록검토 대상 16건 선정
- ①노안당명 유제갱기 일괄·백자이화문유개발 일괄, ②무진명 찬장, ③조선 요리법(초판), ④은제다구 일습, ⑤유제발과 대접 일괄(부부용), ⑥미명 은제 주자, ⑦비원소명 분청자다구 일습, ⑧궁중용 제빵기구 일괄, ⑨태극당 제과기구 일괄, ⑩시케단지명 백자해주호, ⑪경기수량옹명 옹기술독, ⑫전선사명 목제도시락, ⑬조선요리제법(초판), ⑭왕실 연회 초대장, ⑮조선호텔개관만찬초대장 일괄, ⑯조일통상조약체결기념연회도

### 라. 향후 일정

- '16. 3월            등록 검토 대상 현지 조사 계획 수립
- '16. 4~10월        등록 검토 대상 현지 조사 실시
- '16. 7~11월        문화재위원회(검토) 상정
- '16. 9~            문화재위원회(심의) 상정 및 등록문화재 등록

# 보고사항

## 마. 문화재 등록기준

### (1) 개신교 분야

개신교 분야의 문화재 등록대상유물은 '교회미술', '역사자료', '교회물품'으로 구분되며 다음과 같은 4가지 가치기준에 의거해 그 등록가치를 평가한다.

#### 1. 역사적 가치

- 한말 계몽운동, 독립운동, 해방 후 민주화운동 등 한국사회의 변화 및 발전 등에 기여 여부
- 교육, 의료, 출판, 번역, 국어학, 여성 등 근·현대 사회·문화사의 각 분야 수용 및 발전을 선도함에 있어서의 기여도
- 기타 근·현대사 분야 발전에의 기여도

#### 2. 교회사적 가치

- 개신교 수용사에서 동아시아적 의미 및 영향력
- 개신교의 도입, 정착, 한국적 발전에의 기여도
- 개신교 발전의 주요 사건사적 및 인물사적 가치
- 각 교파별 초기 선교사적 가치 및 교회 문화사적 가치
- 개신교도에게 끼친 사회적 영향력
- 기타 순교, 선교 활동 등과 관련된 기록적 의미에서의 가치

#### 3. 예술적 가치

- 교회미술사적 희소성
- 실험성, 예술성, 완성도
- 개신교의 한국적 토착화에의 기여도
- 기타 미술사적 연계가치

#### 4. 자료적 가치

- 희귀성, 원본성, 보존상태의 양호성
- 개신교사적·역사적 가치 및 대중적 영향력은 크지 않더라도 한국 개신교사의 특징을 보여주는 주요 의미를 지닌 자료로써 보존할만한 가치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 분야의 세부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다.

### < 분야별 세부 등록 기준 >

#### (1) 교회미술

- 교회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주문 또는 기증 등 종교적 목적을 위해 제작, 사용된 미술작품 중 예술적, 역사적 가치를 지닌 것
- 개신교의 정통성을 계승하면서도 토착화가 반영된 미술품 중 선구적 가치가 있는 대표작
- 개신교 미술사의 사료적 가치를 지닌 미술품 중 대표성을 띄는 것

#### (2) 역사자료

- 한국 개신교의 역사적 지표가 될 수 있는 사료적 가치가 높은 것
- 한국 개신교의 역사적 인물과 사건과의 맥락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 중 대표적인 것
- 초간본 또는 유일본 등 희소성이 있는 것

#### (3) 교회물품

- 한국 개신교의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과 관련된 중요 유물
- 한국 개신교의 문화사적 가치를 지닌 중요 유물
- 사료적 가치나 희소성이 높은 유물

### (2) 식생활 분야

식생활분야의 문화재 등록대상유물은 범위가 광범위하고 용도에 따라 특징과 성격이 명확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시대와 용도에 따라 분야를 구분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공통 기준에 의해 그 등록가치를 평가한다.

- 1. 역사적 가치** : 식생활 분야의 유물 가운데 근·현대사 전체와 식문화사에서 지니고 있는 역사적인 기준과 역사적 사건, 사회적 맥락 등 역사와 문화, 예술·사회·경제·생활사적인 관점에서 평가한다. 변화과정이나 전승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유물들도 여기에 포함한다.
- 2. 학술적 가치** : 근·현대의 식생활 변천과정 속에서 당시의 역사와 흐름을 반영하는 가치를 지녀 관련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유물들을 기준으로 한다.
- 3. 상징·표상적 가치** : 식생활분야의 유물 가운데, 근·현대 식생활 문화의 흐름과 경향에 있어 상징성과 표상성을 지녔거나, 최초로 개발되거나 도입되어 근현대 식생활 문화에 상징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유물들을 이 기준에 포함한다. 조리법의 보급이나 역사적인 인물, 사건에 관련한 상징적인 가치를 지닌 유물과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최초로 사용된 표상적 가치를 지닌 유물도 여기에 포함한다.
- 4. 보편적 가치** : 근·현대 식생활 유물들은 실생활에 쓰인 보편적인 가치를 지닌 유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 가운데 식생활문화에 있어 실생활에 널리 이용되었으면서 동시에 근·현대 식생활 분야의 흐름에 있어 상징적·표상적·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유물들을 이 기준에 포함한다.
- 5. 유물의 선정** : ①, ②, ③, ④의 기준에서 모두 또는 일부 충족하는 유물 가운데 유물의 보존상태가 양호한 것을 우선 선정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위의 기준에 다수 포함이 되며, 형태와 용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6. 회소, 멸실 가치 판단 : 위의 ①, ②의 기준 외에 회소가치와 멸실의 우려를 근거로 유물을 판단할 수 있다. 역사적 사건이나 지역적(공간적) 특징을 명확하게 반영하는 유물이거나, 상징적인 형태와 용도를 보여주는 유일한 유형의 유물이 여기에 해당한다.

위의 공통 적용 기준 이외에 각 분야별 특징에 따라 적용되는 세부 등록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분야별 세부 등록 기준 >

영역	분류기준	등록 기준
식사용구	음식을 먹는 과정에서 사용한 유물	1. 근·현대기 한국 식생활의 식사문화에 있어 변화과정이나 전통적인 문화의 전승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유물 2. 서구식 식문화의 도입에 따른 식기의 변화를 왕실이나 역사가 깊은 외식업체 등 역사적 가치를 지닌 공간에서 상징적으로 사용된 유물
조리가공용구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한 조리, 가공 관련 유물	1. 근·현대 식문화사에서 전반적인 영향을 미친 전통적인 조리법과 근대기에 도입된 조리법, 식재료의 도입과 이에 따른 조리법의 도입 및 변화, 재료의 가공과 관련해 위의 기준에 충족하는 가치를 지닌 유물 2. 조리, 가공용구 가운데 제작처가 명확해 식사용구의 생산 방식의 변화와 흐름을 파악하게 하는 유물
저장용구	식재료나 음식물을 보관·이동에 사용한 유물	1. 식재료와 음식물의 보관에 있어 격변을 가져온 기술의 도입에 관련한 유물 2.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당시의 경향을 반영하거나 최초로 사용, 개발, 도입된 표상적 가치를 지닌 유물 3. 저장용구 가운데 제작처(지역)가 명확해 저장용구의 생산 방식의 변화와 흐름을 파악하게 하는 상징적인 유물
처리용구	조리가공 및 식사 후 처리에 필요한 유물	1. 주거생활의 변화에 따라 근·현대기 처리 용구의 변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유물 가운데 최초, 보편성을 동시에 지닌 유물
문헌매체	식생활 및 식문화와 관련된 서적, 서류, 사진, 그림 등의 자료	1. 식문화사에서 중요한 인물이나 상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자료 2. 근·현대 식생활 문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상징적인 가치를 지닌 조리서나 식품가공업체, 외식업체의 관련 자료 3. 현재까지 이어지지 않지만 근·현대 식문화사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 내용을 담은 자료
식생활 총류	기타 종합적인 성격을 띤 유물이나 위의 영역에 포함할 수 없는 유물	위의 가치평가 세부 기준을 동시에 적용하여 평가

바.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출석 6명, 원안접수 6명